2021
행복북구문화재단
문화예술담론지

Vol.4

함지

문화예술을 담는 만만한 그릇

행복북구문화재단
HAENGBOK BUKGU CULTURAL FOUNDATION

문화예술을 담는 만만한 그릇

함지

CONTENTS

HAENGBOK BUKGU
CULTURAL FOUNDATION
DISCOURSE BOOK

SECTION 01. 시대를 담다

1. 대구는 문화도시인가요?

10P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 바로 알기 * 엄명숙

22P 음악창의도시에 부쳐 * 이상만

32P 문화의 시대 * 박종문

40P 색감色感을 살렸다면 질감質感도 살려라 * 김정학

2. 대구에서 문화예술 합니다.

50P 최병소 작가를 만나다
Interviewee * 최병소 / Interviewer * 남인숙

62P 누군가 부르는 당신의 이름 앞에 * 장현희

70P 대구에서 한국 연극인이라는 시대정신 * 안민열

76P 젊은 소리꾼의 짧은 회고 * 권가연

84P '찬란한 예술의 기억'이 이어지길 * 임언미

90P 시민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도시 '대구' * 이창원

96P 대구 현대미술과 함께, 가슴 뛰는 삶... * 이우석

102P 예술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가 * 이미경

110P 저는 대구에서 [b]racket이라는 시각예술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 정세용

SECTION 02. 기억을 담다

122P 한국영화사에서 대구영화를 말하다 * 서성희

136P 대구의 옛 극장을 추억하다 * 김중기

SECTION 03. 북구를 담다

150P 청년문화, 당신의 생각은? * 심재신

158P 북구 시장로드 * 한상갑

SECTION 01.
시대를 담다

1 대구는 문화도시인가요?

2 대구에서 문화예술 합니다.

1

대구는 문화도시인가요?

대구경찰서(현 중부경찰서) 전망대에서 서남부시가지를 바라본 모습(新興都市大邱市街西南部の大觀)
(출처=대구도시경관 홈페이지, 원소장처=대구근대역사관)

1-1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 바로 알기

엄명숙(『향토와 문화』 책임 편집자, 올댓플랜창 대표)

고상하고 품격 있는 어떤 것, 그래서 상당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였던 문화가 어떤 단어와 조합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친근한 시대가 되었다. 잊혔던 시인이 소환되고, 지역 화가의 작품이 거리의 벽면을 장식하고, 지역 출신 가수의 이름을 딴 거리가 생겨났다. 사람들은 오래된 골목길과 달동네 벽화를 찾아 나서고,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사진 찍기에 바쁘다.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문화가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콘텐츠라는 걸 인식하면서 각 지자체들도 앞다투어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가공해 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너무 급하게 만들어내다 보니 과연 그 의미나 가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너무 화려한 겉치레만 즐기게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그래서 아쉽다.

오랜 역사를 통해 우리의 심성과 DNA 속에 녹아든 것이 저절로 발현되는 것, 나는 그게 문화의 깊이며 심성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의 도시, 대구'를 더 잘 알기 위해,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산의 가치를 좀 더 새겼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현대기 우리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음악, 미술, 문학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한국 가곡과 창작 오페라의 첫 페이지를 연 인재들의 도시

제일 먼저 이 땅에 들어온 서양의 근대예술은 바로 음악, 그중에서도 종교 음악이었다. 1882년 경상도 지역 사목 담당으로 임명되어 칠곡 신나무골을 거쳐 대구에 온 파리외방선교회 로베르(Achille P. Robert) 신부, 그리고 1900년 대구지역 제5대 선교사로 대구에 부임한 사이드 보텀(R.H. Side-Botham) 등에 의해 서양 음악이 처음으로 대구에 소개되었다. 부산에서 배에 실려 사문진에 도착한 피아노가 목도 [1]*두 사람 이상이 짝이 되어, 무거운 물건이나 돌덩이를 얽어맨 밧줄에 몽둥이를 꿰어 어깨에 메고 나르는 도구* 에 들려 대구 시내로 옮겨지는 과정은 선교사의 일기를 통해 널리 알려졌고, 이를 기념하는 99대의 피아노 연주회는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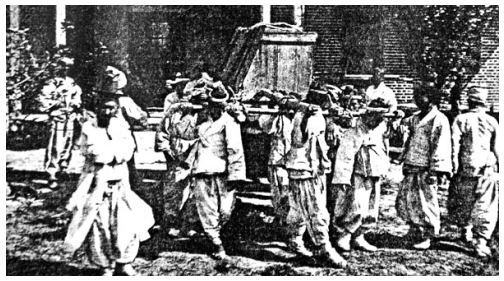


사진 1. 목도로 옮겨지는 피아노

사진 2. 1912년 조직된 계산명도회 악대부(출처=교구사화보)

성당과 교회 신도들 그리고 신식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서양의 악기와 음악이 점차 보급되기 시작해, 1910년대가 되면 계산성당과 성립학교에 악대가 조직되고 몇 년 뒤에는 '계성학교 악대부'에 이어 '제일교회 찬양대'도 결성되었다. 이보다 앞서 1907년 대구에 주둔했던 신식 군대인 진위대 역시 서양악기 나팔대를 운영하고 있었다. 2년 뒤에는 구세군악대도 등장했다. 이런 악대들은 내부 의식뿐 아니라 외부에서 열리는 운동회나 행진 때 등장하여 좋은 구경거리를 제공했다. 학교 악대는 점차 대구의 모든 학교로 확대되었는데 남학교엔 신호나팔대가, 여학교엔 고적대가 조직되어 각종 행사에서 연주 활동을 펼쳤다. 그중 계성학교의 악대는 대구공회당에서 연주회를 열 정도로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뽐내기도 했다.

1910년대 후반이 되면 신식 음악교육을 받은 세대들 사이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선두주자는 계성학교 출신 박태원이었다. 연희전문학교 재학 시절부터 박태원은 방학 때 귀향하면 후배들에게 자신이 가사를 개역한 외국곡들을 가르쳤다. 지금도 우리가 애창하는 "넓고 넓은 바닷가에~"로 시작하는 노래 〈클레멘타인〉은 이때 박태원이 소개한 것이다. 갓 스물을 넘긴 청년임에도 박태원은 광부의 딸을 우리 정서에 맞게 바닷가 외딴 오두막 어부의 딸로 바꿀 정도로 감각적인 면모를 지녔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남녀의 좌석이 구분돼 있던 시절에 혼성 합창단을 조직해 헨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발표(1917)할 정도로 음악에 대한 열정과 과감한 결단력을 지닌 인물이기도 했다. 안타깝게도 폐렴으로 인해 24년만에 짧은 생애를 마감했던 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은 동생 박태준을 통해 꽃피게 된다.

사진 3. 박태원(1897~1921)

사진 4. 박태준(1900~1986)

계성학교 시절 음악에 빠져 지내던 박태준은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하고 12년 가까이 모교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음악적 재능을 맘껏 펼쳤다. 대구에 오기 전 마산 창신중학교에 근무할 당시 그가 작곡한 〈동무생각〉(1922)은 한국 최초의 가곡으로 꼽히고 있으며 [2]*1922년 박태준이 작곡한 <동무생각>은 이후 1923~24년에 이은상의 가사가 붙어 한국 최초의 가곡이라 할 수 있다. 한편 1920년 기악곡으로 발표된 홍난파의 <봉선화>는 1926년에 가사가 붙여졌다.* 노래 탄생의 배경이 된 청라언덕은 대구 근대골목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장소가 되었다. 그는 형의 뜻을 이어 지역 합창 활동의 토대를 굳건히 다졌다. 박태원의 〈할렐루야〉 공연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후 20여 년이 지난 1938년, 박태준은 대구 최초로 일반 합창단인 '대구성가협회'를 조직하고 연주회를 열었다.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이 합창단은 밀양, 김천, 성주 등 지방에서도 순회 연주회를 가졌다.

박태준은 〈동무생각〉 외에도 많은 노래를 작곡했는데, 특히 동요 작곡에 심취해 후배인 윤복진을 비롯한 문인들과 무영당백화점에 모여 작곡 활동을 했다고 전해진다. 지금도 우리들의 동심을 자극하는 동요 〈가을밤〉(1929) [3]*동요 <가을밤>은 한국 최초의 동요로 인정받는 <기러기>(1920, 윤복진 작시, 박태준 작곡)와 가사만 다를 뿐 같은 곡이다. 윤복진의 월북 등의 이유로 배제되었다가 이후 1929년 이태선이 개사하여 현재까지 불리고 있다.*, 〈오빠생각〉(1930), 〈맴맴〉 등이 이 시기에 만들어진 노래이다.

1920년대가 되면 드디어 성악계에서도 스타들이 배출되기 시작한다. 대구에서 태어나 일본 우에노 음악학교를 졸업한 한국 최초의 바리톤 김문보는 1926년 아내인 소프라노 요시사와 나오코와 함께 대구심상공립소학교(이후 제일소학교)에서 연주회를 열었고, 이어서 국내와 일본 각지를 돌며 공연을 하고 음반도 취입하였다. 같은 곳에서 이듬해인 1927년 안동 출신으로 역시 일본에서 성악을 공부한 테너 권태호가 최초로 1인 독창회를 가졌고, 2년 뒤에는 미국에서 성악을 공부한 현제명도 독창회를 개최했다. 현제명은 작곡 활동 외에도 음악 교육가이자 행정가로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태평양전쟁 말기 노골적인 친일 행적으로 그에 대한 평가는 절하되었지만, 〈춘향전〉과 〈왕자호동〉 같은 창작 오페라 발표 등 한국 음악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것만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다.

중일전쟁 이후의 암흑기를 거쳐 다시 대구 음악계에 활기가 감돈 것은 한국전쟁(1950~1953) 기간이었다. 각계의 예술가들이 모두 전란을 피해 대구로 모여들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다. 군악대는 전성기를 이루었고, 전쟁을 피해 대구를 찾은 음악가들은 제2의 고향 대구에서 지역 예술 발전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음악 감상회를 통해 전공자 외의 음악 애호가 계층이 형성된 것 또한, 대구 음악 발전의 한몫을 담당했다. 한국 최초의 고전음악 감상실이 대구에서 문을 열어 문화예술의 구심점 역할을 해냈고, 존폐의 위기에서 시민들의 뜻이 모여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온 것은 대구의 자랑이 아닐 수 없다. [4]*우리나라 최초 고전음악 감상실 '녹향'. 1946년 고(故) 이창수 대표가 음악동호모임 '예육회'와 함께 음악 감상회를 열면서 시작하였다. 한국전쟁 중엔 예술가들의 사랑방으로, 인프라가 부족했던 1960년에는 지역 문화행사 중심지로 시대와 궤를 같이 했다. 지난 2014년에는 유지가 어려워진 '녹향'을 지키고자 향촌문학관 지하에 유치하면서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또한, 클래식 음악 애호가 박용찬이 1951년 피란 오며 연 '르네상스' 역시 많은 예술가들이 즐겨 찾은 곳으로, 외신기자가 '폐허에서 바흐의 음악이 들린다.' 고 소개할 정도로 당시 향촌동을 대표하던 문화공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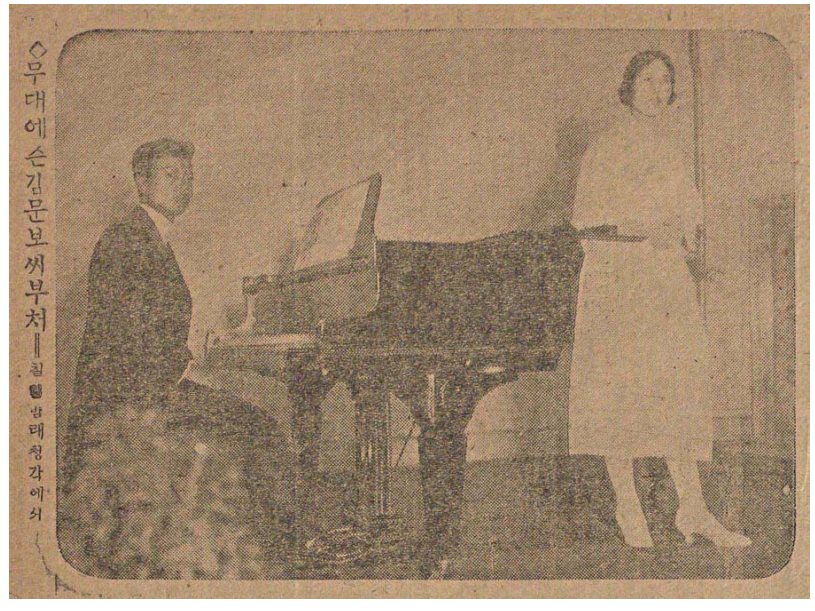


사진 5. 무대에 선 김문보 부부. 1926년 8월, 김문보(1900년 출생)는 부인 요시사와 나오코와 함께 대구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바리톤 독창회를 열었다. 사진은 이후인 9월 내청각에서 연 독창회의 모습.(『매일신보』 1926년 9월 9일) (출처=국립중앙도서관, 원소장처=한국연구원)

휴전 후 정세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그즈음 대구에서는 작곡가와 성악가들이 배출되고, 관현악단이 창설되는 등 그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효성여대(현 대구카톨릭대학교)에 재직하면서 작곡과 합창 활동 외에 대구음악가협회 회장을 맡은 하대응, 같은 효성여대에서 피아노 지도와 반주를 도맡으며 많은 제자를 길러내 대구 피아노계의 대모로 존경받은 피아니스트 이경희, 오페라 연출과 후진 양성에 평생을 바친 바리톤 이점희, 우리말이 가진 언어적 특성을 살리면서 우리 정서에 맞는 가곡과 성가를 작곡했던 김진균 등은 전쟁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대구 음악계를 이끌었던 인물들이다.

성악과 작곡에 비해 힘들게 명맥을 이었던 것은 바로 관현악단 활동이었다. 대부분 창설되어도 운영의 어려움으로 얼마 가지 못하고 해체되었다. 그럼에도 1937년 '대구사범학교관현악단'이 창단 연주회를 가진 이래로 1956년에 조직된 '칸타빌레현악합주단'과 비슷한 시기의 바이올리니스트 이기홍이 창단한 '대구현악회'(1957) 그리고 '대구현악4중주단'(1958), '오르페우스현악합주단'(1961), '대구앙상블'(1962)등으로 활동이 이어졌다. 이처럼 음악인들이 활동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1964년 '대구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될 수 있었다.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 지금도 수많은 단체와 음악인들이 대구의 화려한 무대 위에서 다채로운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 사이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콘서트홀 등 일일이 꼽기도 힘들 만큼 훌륭한 공연장이 늘어났고, 2002년 시작된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과 더불어 '음악도시 대구'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축제가 되었다.

서양의 음악을 받아들여 그것을 우리 식으로 소화해 새롭게 창작해낸 지역 음악가들의 한 걸음은 한국 음악사의 최초였고, 그들이 쌓아 올린 성과는 한국 음악사의 영광스런 순간이 되었다. 그 유산을 되살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몫이다.

사진 6. 1964년 12월 '대구시립교향악단'의 창립공연이 대구방송국 공개홀(KG홀)에서 열렸다. 초대 상임 지휘자로 이기홍이 선임되었으며 이후, 우종억을 비롯 강수일, 박성완, 라빌 마르티노프, 보구슬라프 마데이, 박탕 조르다니아, 이현세, 곽승에 이어 현재 줄리안 코바체프가 10대 지휘자를 맡고 있다.(출처=대구문화예술 아카이브)

한국 근대미술사의 압축판, 대구 근대미술사

대구에 처음 서양화를 소개한 사람은 독립운동가로 더 잘 알려진 이상정이다. 1917년, 5년간의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상정은 계성학교 도화교사로 부임하면서 처음으로 물감과 이젤을 선보였다. 『매일신보』 1915년 3월 11일 자에 〈자매〉가 게재되며 고희동이 한국 최초의 서양화가로 이름을 알린 지 불과 2년 뒤의 일이었다. 시인 백기만이 이상정의 유고와 일대기를 정리한 『중국유기』에 의하면 이상정은 1921년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서양화 개인전을 열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작품 사진은 물론 제목조차 전해지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상정은 <대구미술전람회>에 다수의 작품을 출품하고 미술연구단체인 '벽동사'를 설립해(1923) 지역화가 및 문인들과 교류하는 등 대구에 서양미술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했다.

이상정이 뿌린 서양미술의 씨앗을 싹틔운 이는 서동진이었다. 서울 휘문고보를 졸업하고 계성학교 교원으로 부임한 그는 신생 화가로 주목받았는데, 작품 활동 외에도 인쇄와 도안 등을 주로 하는 '대구미술사'를 설립해(1927) 이인성과 김용조 같은 후학들을 후원하고 미술의 기초를 지도해 화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미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화가들도 늘어나면서 1923년에 대구 최초의 서양화 단체전인 <대구미술전람회>가 대구노동공제회관에서 개최된다. 이어 1924년엔 참가의 범위를 청소년까지 확대한 <대구아동자유화전람회>도 열렸는데, 전시 심사위원의 면면이나 참여대상 등을 보아도 당시 미술에 관한 지역의 관심과 열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사진 7. 이상정(1897~1947). 대구 최초의 서양화가로 기록되었으며 서예나 전각에도 뛰어났다. 또한, 1920년대 중반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항일독립운동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한 인물이었다. 민족시인 이상화의 형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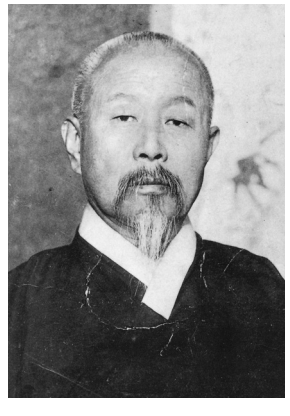


사진 8. 석재 서병오(1862~1935). 시(詩)·서(書)·화(畵)에 뛰어난 삼절(三絶)의 인물로,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걸출한 문인이자 예술가였다. 서예와 수묵화를 지키고 계승해야 할 민족문화로 연구·발전시키고, 교류와 교육을 목적으로 '교남시서화연구회'를 설립했다.

사진 9. 1926년, 교남기독교청년회관에서 박명조(1906~1969)가 대구 최초로 수채화 개인전을 개최했다. 당해 제5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하였는데, 이는 대구 출신 화가로는 처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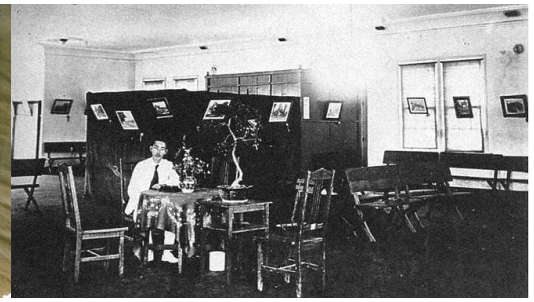


사진 10. 1927년 조양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서동진 수채화 전람회>. 서동진(1900~1970)은 수채화를 적극 수용하고 익히며 대구 지역에 정착시킨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즈음 전통적인 한국화단 역시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당대 영남서화계의 중심이라 할 석재 서병오는 1922년 '교남시서화연구회'를 설립하고 뇌경관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는데, 여기에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 같은 고서화뿐 아니라 당시 활동하던 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출품되었다. '교남시서화연구회'는 전시 외에도 강습과 연구, 다른 지역 작가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하였기에, 당시 대가로 추앙받던 김규진, 김돈희, 고희동, 오세창, 허백련 등과도 교류 하였다. 그 외에도 이재민을 위한 즉석 경매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자 했다. 특히 2회째 전시에는 서양화부까지 아우르며 탄탄한 전통의 토대 위에서 대구미술의 근간을 다져나갔다.

대구는 서양화 도입 초기,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전통 서화 애호층을 기반으로 수채화가 인기를 끌며 급성장했다. 특히 1920년대 초반부터 1930년대까지가 서양화단이 눈부신 성장을 이뤄낸 시기라 전해진다. 1927년 대구 최초 미술인 단체 '영과회'가 결성된 것, 그리고 '영과회' 해체 후 1930년에 다시 서동진을 주축으로 '향토회'가 결성된 것은 한국 근대미술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이름에서부터 과거의 진부한 미술을 지양하고 '0(영)', 즉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은 '영과회'는 대구에서 활동하던 일본인 중심의 서양화가 모임인 '자토회'에 자극받아 결성되었다는 점에서도 뚜렷한 창작 이념과 민족적 자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름에서부터 '조선 향토색 논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짐작되는 '향토회'는 순수미술 지향 작가들의 모임이었다. '향토회'는 지역사회의 지원과 호평 속에 6회까지 전시를 이어가며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 만큼 그 위상이 높아졌고, 그것을 발판으로 지역 화가들은 전국화단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사진 11. 조양회관에서 열린 제2회 <영과회전> 개최 기념사진(1928년 4월 28일~5월 2일). '영과회'는 1927년 결성된 대구 최초의 한국인 서양화가 단체이자, 동요부와 시가부가 공존하는 종합예술단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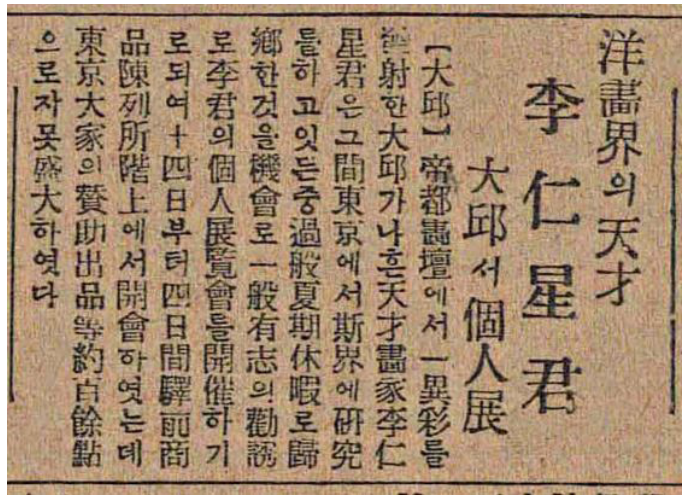

洋畵界의 天才
李仁星君
大邱서 個人展
【大邱】帝都畵壇에서 一異彩를 放射한 大邱가나흔天才畵家李仁星君은그間東京에서斯界에研究를하고잇든중過般夏期休暇로歸鄕한것을機會로一般有志의勸誘로李君의個人展覽會를開催하기로되여十四日부터四日間驛前商品陳列所階上에서開會하엿는데東京大家의贊助出品等約百餘點으로자못盛大하엿다

사진 12. 서양화의 천재 <이인성전>개최 소식. 이인성은 일본 유학 중 일본 국가주관 미술전람회와 <광풍회전>, <일본수채화회전> 등 크고 작은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다. 이를 전해 듣고 서병오를 비롯한 대구 유지들이 발기해 1933년, 대구역전 상품진열소에서 이인성(1912~1950)의 개인전을 마련했다.(『매일신보』, 1933년 7월 17일) (출처=국립중앙도서관, 원소장처=한국연구원)

이즈음 대구화단에는 유명 작가들이 탄생하기 시작한다. 1926년 제5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한 박명조는 1926년, 대구 최초로 수채화 개인전을 열었고, 이듬해 서동진도 첫 개인전을 열어 세간의 화제가 되었다. 그런 중에 단연 스타는 1928년 『개벽』이 주최한 <세계아동미술전>에서 특선을 차지하며 소년 천재로 이름을 날린 이인성이 그 주인공이다. 이인성은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서 1년 만에 <제국미술전람회>와 <광풍회>에 입선해 그 신화를 이어갔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가 참여한 3회 <향토회전>에는 첫날 무려 800여 명의 관객이 쇄도했다고 한다. 이런 인기는 미술 창작에 대한 관심과 열기로 이어져 1933년엔 서병기가 '향토회 양화연구소'라는 이름으로 회원 간의 연구와 창작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고, 1936년엔 이인성도 '양화연구소'를 개설하였다.

일제강점기 말기의 긴 침체기와 광복 후 혼란기를 겪고 있던 대구화단에 기폭제가 된 것은 한국전쟁이었다. 전쟁이 발발하자 화가들은 종군화가단을 결성해 가두 전시회를 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고, 서울을 주 무대로 활약하던 청전 이상범과 이중섭 등은 대구 미공보원에서 전시회를 열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3년, 정점식은 개인전을 열어 지역 화단에 본격적인 추상미술을 선보이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장석수, 김종복 역시 이런 흐름에 합류해 보수 화풍의 대구화단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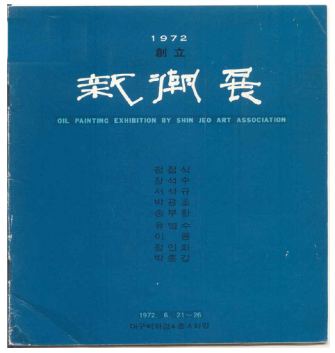


사진 13. 1972년 대구백화점 화랑에서 열린 <신조회 창립전>(출처=필자 제공)

1950년대 중후반을 넘어서면서 정점식 외에도 신석필, 서창환 등 현대미술 화가들이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남관, 손동진, 변종하 등은 활동 무대를 해외로 넓혀갔다. 1960년대가 되면서 추상미술의 새로운 화풍이 이식되어 1963년 <앙그리 창립전>, 1972년 <신조회 창립전>, 1947년 <대구현대미술제> 등이 이어졌다. 본격적으로 현대미술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술평론가 김영동은 "1960년대 앵포르멜 운동의 선구적 작업이 일찍이 모더니즘을 받아들인 지역 작가들에 의해 독자적으로 추구되었으며, 1970년대 대구가 현대미술의 본고장으로 언급되는 것 또한 이들의 활동으로 촉발되었다."고 하였다.

1920~1930년대에 확립된 자연주의 미술의 전통 위에 쌓아 올린 이런 성과들이 오늘날의 대구미술을 구축한 것이다.

코로나 시국을 맞아 한국 미술계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문화적 자산으로만 따지자면 우리는 금수저를 물고 있던 셈이다. 그 자산을 어떻게 잘 운용할 것인지 지혜를 모을 때이다.

시인들의 압도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구문학의 다양한 표정을 만들다

음악이나 미술보다 대구의 근대문학은 뒤늦게 태동했다. 청각과 시각을 통해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타 장르보다 문학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작가나 독자 모두 한문에서 벗어나 한글로 생각과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익숙해져야 했기 때문이다.

20세기 초 대구 근대문학의 첫머리를 장식한 것은 1917년, 백기만, 현진건, 이상화 등 문우들이 모여 만든 등사판 동인지 『거화(炬'火)』이다. 제목 외에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지만, 이 멤버들이 우리 문학사에 남긴 자취는 『거화』의 문화사적 가치를 증명하고도 남을 것이다.

사진 14. (좌측 아래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백기만(1902~1969), 현진건(1900~1943), 이상화(1901~1943). 『거화』는 10대 학생들이 만든 얇고 소박한 습작 동인지에 불과했지만, 국내 근대문학의 주요 작가들로 성장한 이들이 대구에서 펴낸 동인지라는 점에서 대구 근현대문학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거화』 동인 중 맨 먼저 지면에 데뷔한 이는 1920년 『개벽』에 〈희생화〉와 1921년 〈빈처〉, 〈술 권하는 사회〉를 잇달아 발표하며 한국 사실주의 소설의 시대를 연 현진건이다. 이어 이상화는 『백조』에 〈나의 침실로〉(1923)를 발표하며 낭만주의적 시 세계를 선보였다. 그가 일본 유학에서 돌아와 1926년 『개벽』에 발표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항일 의식을 표출한 최고의 저항시로 손꼽히며, 그를 민족 시인이자 대구를 대표하는 최고의 시인으로 자리 잡게 했다. 백기만은 『금성』에 〈청개구리〉(1923)를 발표하는 등 시인으로서의 업적도 뛰어났지만, 지역문학의 자존심을 지키고 지역문단을 통합하는 역할을 해낸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화와 이장희의 작품을 정리한 『상화와 고월』(1951), 이인성을 비롯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생애를 엮은 『씨뿌린 사람들』(1959)과 같은 책을 펴냈을 뿐 아니라 '경북문학협회'를 창립하고 기관지 『문학계』(1958)를 창간했다.

이상화와 백기만의 친우였던 이장희는 『금성』에 대표작 〈봄은 고양이로다〉(1924), 〈불놀이〉(1924) 등의 시를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그가 펼쳐 보인 감각과 이미지는 뒤에 오는 정지용과 김기림에 앞서 모더니즘 시 정신을 발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까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1920년대를 대표하는 지역 종합잡지 『여명』 또한 주목해야 할 매체이다. 1925년 6월, 조선일보 대구지국을 맡고 있던 김승묵이 창간한 『여명』은 종합지를 표방했는데, 특히 진가를 발휘한 분야는 문학이었다. 시, 소설은 물론 번역, 수필 등 모든 문예 분야를 망라했고, 여기에는 이광수, 최남선, 염상섭, 나도향 등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참여했다. 창간호 첫머리를 장식한 것은 현진건의 '향토문학을 일으키자'는 에세이였다. 백기만, 이상화, 이원조 등 대구경북의 지역 문인들도 대거 필진으로 참여했다.

자금 조달과 검열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비록 4호 발간에 그치긴 했지만, 계몽을 넘어 성장하는 지역 지식인 사회를 보여주었다. 전국적으로 그 지평을 확대해가며 여러 계층의 목소리를 담고자 했던 잡지 『여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두고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대구에서 활동한 문인으로는 『중외일보』와 『조선일보』 대구지국 기자를 지내고 장진홍 의사의 조선은행 폭파 사건으로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이육사, 대구사범의 전신인 대구도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농촌운동을 펼친 백신애가 있다.

광복 이후 한국전쟁을 거치며 대구문단은 의미 있는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가장 으뜸은 역시 1946년, 시 동인지 『죽순』의 발간이다. 지역 시문학의 횃불이 되겠다는 다짐 아래 이윤수는 1945년 '죽순시인구락부'를 결성했다. 이호우, 유치환,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김달진, 구상 등 당대 시인들의 작품을 담은 동인지를 펴내는 한편, 달성공원에 상화시비를 건립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해방 이후 전국 최초의 시 동인지 발간과 시비 건립은 더할 수 없이 자랑스러운 것이거니와 김춘수, 천상병, 신동집, 김종길 같은 시인이 『죽순』을 통해 등단했다는 사실은 한국 시문학사에서 『죽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다. 또한, 한국전쟁기 대구 문단의 구심점이자 전국 문학인들에게 교류의 장 역할도 했다.

사진 15. 1946년 5월, 대구에서 시인 이윤수(1914~1997)에 의해 창간된 시 전문 동인지 『죽순』 창간호(대동서원). 향토문학의 자생적 발전에 기여했으며, 당대 유수의 젊은 시인들이 참여하며 해방 직후 국내 문단을 대표하며 시 전문지로 자리매김했다. 1949년 7월까지 총 12권이 발간되었으며, 종간 30년 후인 1979년 '죽순문학회'를 통해 『죽순문학』이라는 제호로 새롭게 복간되었다.

한국전쟁이 대구의 문화예술 발전에 미친 영향은 음악과 미술 분야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문학에서 그 영향은 다른 장르보다 훨씬 지대했다. 당시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이 모두 전쟁의 마지막 보루였던 대구에 집결하며 대구 문학계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5]*많은 문인들과 예술가들은 대구 향촌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교류했다. 그중 다방은 서로 만남과 영감을 주고받으며, 출판기념회 등 결실을 확인하는 곳으로 종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백조, 백록, 청포도, 호수, 모나미, 상록수, 살으리, 꽃자리 다방 등이 있었다.*

전시에는 육군본부와 공군본부가 대구에 주둔하게 되면서 그 산하에 각각 종군문인단이 결성되고, 『전선시첩』(1950, 문총구국대), 『전선문학』(1952, 육군종군작가단), 『창공』(1953, 창공구락부) 등의 정훈매체 출판물을 펴내게 된다. 그리고 서울에서 피란 온 출판사들이 합류하면서 활황을 띤 대구 출판계에는 신생 출판사와 잡지사들이 잇달아 출범하여 전성기를 맞이했다. 학원 문예의 금자탑을 이룬 『학원』(1952), 어린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소년세계』(1952) 같은 잡지는 모두 대구에서 탄생했다. 또한, 구상의 첫 시집인 『시집구상』(1951)과 조지훈의 첫 시집 『풀잎단장』(1952), 김소운의 『목근통신』(1952) 등이 모두 이때 나왔으니 포성 속에서도 문예물 출판은 찬란한 꽃을 피워낸 셈이다. 전쟁의 참상과 절망, 낭만이 뒤엉켜 전무후무한 피란 문단이 형성되었다.

사진 16. 1952년 대구에서 창간한 학생 교양지 『학원』. 기성작가들의 작품을 비롯해 다양한 연재 코너와 학생 독자들의 문예 투고 등이 큰 인기를 끌었다. 해당 잡지에서 이름을 알린 이른바 학생문단 출신들이 국내 주요 작가로 성장하는 등 창간 이후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학생 잡지로서 뿐만 아니라 국내 잡지 역사에서도 중요한 잡지로 평가받고 있다.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 시대를 맞아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면서 양적으로 빈곤을 면치 못한 대구 문학계에서 강세를 발휘한 것은 시문학이었다. 유치환과 김춘수 이후에도 1980년대까지 『자유시』와 같은 크고 작은 동인지 활동을 통해 시단이 이어졌고, 여기에 고교 문예반이 전성시대를 맞이하며 미래의 스타 시인들을 길러냈다. 또한, 1980년대 한국 소설계를 대표하는 거장 김원일, 김주영, 이문열은 대구에서 성장하거나 거주하며 작가적 역량을 키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사진 17. 『자유시』 동인지(1978). 시 동인 '자유시'는 대구의 젊은 시인 중심으로 자유로운 시 정신과 지역을 바탕으로 한 유대를 기치(旗幟)로 내걸며 1975년 결성되었다. 1976년 첫 번째 동인지를 시작으로 이후 83년까지 6권의 동인지를 발간하며 70년대 국내 문학계를 대표하는 동인으로 손꼽힌다.

대나무의 여린 '죽순'은 한참을 자라지 않다가 어느 순간 치솟듯 올라와 빽빽하고 울창한 숲을 이룬다. 비록 아무런 변화가 없는 땅처럼 보일지언정, 곧게 뻗어 올릴 영양분을 뿌리는 축적하고 있다. 그렇게 높이 자란 대나무는 맺고 이음을 계속하며 강직하되 부러지지 않는 근본을 지닌다. 대나무 숲과 같은 '거장을 키우는 땅'. 그 표현이 딱 맞는 곳, 그게 우리 고장 '대구'가 아닐까.

근대에서 20세기 중후반까지 음악과 미술, 문학의 세 분야를 간략하게 훑으면서 지역의 문화적 자산을 챙겨보았다. 한정된 지면과 식견으로 인해 연극과 영화 등 공연예술 분야를 다 언급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지방자치 시대라 하지만 경제는 물론 문화의 중앙 집중화는 날로 심해지고 사람들의 관심은 늘 서울로만 향한다. 지역에서 행해지는 이런저런 문화사업 또한 이벤트 위주로, 혹은 특정 인물 현창에 집중돼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앞에서도 말했거니와 문화적 자산은 시간의 축적물이다. 한 겹 한 겹 앞서간 이들의 성과가 쌓이고, 그것을 향유하고 지켜온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의지가 합쳐져 오랜 시간에 걸쳐 단단하게 층위를 형성해 온 것이다. 재테크의 기본은 먼저 내가 가진 자산의 크기와 현황을 파악하고 잘 활용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는 과연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짚어보고 싶다. 과거의 업적에만 매몰된 채 미래를 위한 인재를 키워내고 새롭게 창조해 가는 데는 소홀하지 않았는지도 차근차근 살펴보았으면 한다.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자산, 그 뿌리에 대한 탐구는 우리들의 든든한 배경인 동시에 자극제가 된다. 또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내가 가진 것의 깊이와 넓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 시대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참고자료

- 박덕규 외, 「대구의 산업사와 문화예술사를 통한 융복합 체험 교육 개발보고서」, 대구교육박물관, 2019
- 〈City of Music〉, 『향토와문화』 42호, DGB대구은행, 2007
- 〈아! 1950년〉, 『향토와문화』 46호, DGB대구은행, 2008
- 김영동, 『근대의 아틀리에』, 한티재, 2007
- 박태일, 「1925년 대구 지역매체 '여명(黎明)' 창간호」, 『근대서지』 3호, 2011

음악창의도시에 부쳐

이상만(작곡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안고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임인년(壬寅年), 검은 호랑이의 해라고 한다. 여느 해보다 더 힘찬 목소리로 포효하듯 기쁘게 새해 덕담을 나누고 싶다. 검은 호랑이의 비범한 기운으로 코로나19를 말끔하게 씻어 내고, 온 세상의 모든 이웃이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는 건강한 한 해가 되길 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3년째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빠르고 강력한 감염력으로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 떨게 함과 동시에, 의료대란이나 사회·경제 시스템 붕괴와 같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위기상황으로 우릴 몰아넣고 있다. 생존을 위협하는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추종하던 삶의 방식과 태도들이 얼마나 허약하고 부질없는지, 그것으로 얻어진 소유와 출세란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에 의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지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창궐하는 감염병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은 또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절절하게 목도하였다.

이 사태는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잊고 있었던 기존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밑바닥까지 되돌아보게 했다. 또 죽음의 경계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일깨워주었다. 개개인이 직접 마주한 공포스러운 경험은 참 낯설고 두려운 공황적 상황이다. 이런 생경한 자각이 무거운 철퇴가 되어 기존의 관념을 깨트리고, 우리의 삶을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 예감한다. 그것이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어디까지 바꾸어 놓을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제껏 우리가 욕망에 매몰되어 맹목적으로 추종해 오던 물질 만능주의, 소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하는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구가 유네스코(UNESCO) [1]*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로부터 '음악창의도시'로 지정받은 지가 벌써 4년이다. 코로나19 사태를 미리 알고 계획한 바는 아니겠지만, 감염병 사태 이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마치 예견이라도 한 듯이 창의도시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참 멋지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비록 우연이라고 해도 매우 시의적절했다.

우리 대구가 음악창의도시로 지정되고 난 뒤 겨우 1년 남짓 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시작되었다. 그 바람에 음악창의도시와 연관된 활동이나 사업은 대폭 축소되거나 취소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 사업의 성과는 아직 내세울 게 없어 볼품없지만, 그래도 문화와 예술의 창의적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에게 다시 생각하게 하고 일깨워준다는 점만으로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창의적 음악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이를 통해 우리 대구가 소통과 공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도시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모든 이들이 일상 속에서 자신을 한껏 드러내고, 살맛을 알알이 느끼며 살아가는 신명 나는 세상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이익이 없다고 해도, 자유로운 창의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음악창의도시의 지정은 엄청난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

우리 민족은 본디 음악과 노래와 춤(악가무, 樂歌舞)에 능한 민족이다. 이는 여러 역사서에서 우리 민족을 기술할 때마다 언제나 빠지지 않는 말이다. 특히 중국의 역사서에서 우리 민족을 지칭할 때 한결같이 음주가무에 능한 민족으로 기술하고 있다.

사진 1. 대구시는 지난 2017년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했다.(출처=대구광역시)

남조(南朝) 송(宋)의 범엽(范曄, 398~446)이 편찬한 『후한서(後漢書)』에는 '동이족들은 술 마시고 노래하며 춤추기를 좋아한다.(憙飮酒歌舞)', '길에 사람이 밤낮없이 다니는데,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는다.(好歌吟 音聲不絶)', '모두가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밤에는 남녀가 떼 지어 노래 부른다.(群聚爲倡樂)'라고 기술되어 있다. 또 '항상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밤낮으로 노래 부르고 춤추는데(晝夜飮酒歌舞), 이를 무천(舞天)이라고 한다.', '언제나 5월이면 농사일을 마치고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으로 술자리를 베풀고(晝夜酒會), 모여서 노래하고 춤춘다.(群聚歌舞) 10월에 농사를 끝낸 후에도 이같이 한다.'라고 기술하였다.

엽륭례(葉隆禮)가 편찬한 『거란국지(契丹國志)』에는 '발해는 매년 설날 때 모여 즐기는데 먼저 노래와 춤을 잘하는 몇 명이 앞서가면 사람들이 뒤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원을 그리며 도는데, 이것이 답추(踏鎚)이다.'라고 적었다.

청나라 때 편찬한 『만주원류고(滿洲源流考)』에도 '고대 동이족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놀던 흥(興)의 민족이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천오백 년 전 역사서에 그려진 우리 선조들의 일상은 멋과 흥이 넘치는 모습이다. 예술과 문화를 한껏 누리며 생활한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국시(國是)가 되면서 악가무를 즐기는 문화는 근엄하게 변화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도 선비의 당연한 덕목 중 시조와 가곡이 빠지지 않았고, 문인화에서 보듯 그림 그리기도 즐겨 했다. 이와 함께 거문고를 타고 춤을 추면서 마음을 닦았다고 한다. 조선의 선비들은 유교의 절제 속에서도 학문뿐 아니라 예술적 정서를 고취하는 서화악가무(書畫樂歌舞)를 수신(修身)의 필수 요소로 여겼다. 풍류방에 앉아 무릎장단에 얹어 시조나 가곡을 부르고, 거문고를 타면서 수신을 하고, 여럿이 어울리는 연회 자리에서조차 서로 시제(詩題)를 던지며 즉석에서 시를 지어 읊기를 겨루었다. 일필휘지로 글을 쓰고 그림 그리는 것이 조선시대 선조들의 풍류 넘치는 일상이었다.

사진 2. 『후한서집해(後漢書集解)』(출처=국립중앙박물관)

사진 3. 선비의 자취를 담은 단원 김홍도의 〈포의풍류도(布衣風流圖)〉, 18세기, 종이에 담채, 개인 소장

음악창의도시를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웬 민족 타령이고 악가무 타령인가. 그것도 1500년 전의 중국 역사서까지 들먹이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우리 선조들의 일상을 언급하는가. 이것에는 나름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첫째로 매우 아쉬워서이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풍류가 불과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겐 마땅한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쫓기듯 바삐 살아가는 사이 무수하게 작은 틈들이 생겨났고, 시리게 느껴지는 그 텅 빈 틈을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여 늘 허하고 아쉽다.

둘째, 너무 그리워서이다. 각박한 세상 메마른 삶을 하루하루 이어가다 보면 힘에 부쳐 문득 쉼이 간절해진다. 정서적 갈증과 질식에 빠져 꽉 막힌 숨을 트이게 하는 짧은 위로가 절실하다. 마음을 어루만져줄 촉촉한 그 무엇인가가 늘 그립다.

셋째, 부러워서이다. SNS라는 홍수 같은 군중 속에 휩쓸려 살아가지만, 공감 없이 공감을 받지도 못한 채 떠도는 자신이 먼지처럼 가벼이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자신의 삶 속 정서를 일필휘지하여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며 함께 소리하고 더불어 춤을 추는, 그 더운 입김과 살갗이 부러워지기도 한다.

우리 선조의 생활 모습은 마치 맑은 거울 같다. 그 거울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훤히 비춰준다. 그 속에 현대사회에 깊이 드리워진 그늘과 결핍이 보인다. 풍요에 겨운 호사스러운 시대를 살지만 메워지지 않는 정서적 허기와 갈증, 질식 등을 모두 애써 모른 척 감추고, 욕망에 붙잡혀 무한 경쟁에 시달리고 찌들어가는, 지친 이웃들이 보인다. 아울러 그 거울은 깊고 허한 그늘과 결핍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또 겉치레는 번쩍여 눈부시지만 속은 텅 비어 있는 욕망이라는 허깨비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마치 오래된 미래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서 서양의 고전음악을 전범(典範)으로 떠받드는 현재 우리의 엘리트 음악 [2]*이 용어는 이 글에서 주로 외래음악인 '서양 양식의 고전음악'을 지칭한다. 우리의 정서와 동화되어 '토착화된 음악'과 비록 주류의 지위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토착화되지 못하고 우리 일상과 유리된 '외래음악'을 구분하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쓴다. 일반적으로 '음악'이라 하면 당연히 자국의 음악을 지칭하고, 보통은 외래의 음악을 구분하여 지칭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우리는 외래음악인 서양음악을 '음악'이라 일반명사로 지칭하고 우리의 음악을 '한국음악' 혹은 '국악'이라 별도의 명칭으로 구분하여 쓴다. 음악문화에 있어서 우린 주권을 잃고 서양음악에 완전히 종속되어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은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 성과 또한 눈부셔서 국제적으로 이미 정상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도 지나침이 없다. 피아노, 성악, 기악 등 연주뿐만 아니라 작곡 같은 창작에 이르기까지, 서양 클래식 음악의 전 부문에 걸쳐 우리 젊은 음악가들이 국제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 최고의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유명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독차지해 온 것이 이미 한두 해의 일이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외국 유학이나 유럽 본고장의 경험을 거치지 않고, 오직 국내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젊은 연주자들이 메이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일들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 한편으로 참 자랑스럽고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참 어색한 일이기도 하다. 마치 가면을 쓰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남의 장단에 춤을 추는 것 같은 어색함이 아직 있다.

사진 4.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지난 2015년 17회 <국제쇼팽피아노콩쿠르> 에서 한국 최초로 우승을 했다.(출처=해외문화홍보원)

서양음악은 1784년에 천주교와 함께 이 땅에 처음 들어왔다. 전래 초기에는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 가혹해서 널리 퍼지지는 못했다. 이후 딱 한 세기가 지난 1884년에 기독교(개신교)가 들어왔다. 강화도조약 이후 쇄국정책이 끝나고 이어진 개화기와 맞물려 외국 선교사들의 적극적인 포교활동과 교육사업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다. 이를 통해 서양음악은 좀 더 수월하게 우리 땅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이후 갑오개혁을 지나 일제강점기와 해방 등 역사적 사건과 대변혁을 겪는 와중에, 우리 전통과 문화와는 상관없이, 선진적이라는 막연한 동경으로 마구 들여온 서양식 문물과 교육제도에 따라 외래음악인 서양음악은 음악의 주류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정서나 전통문화는 벌써 버렸어야 할 부끄럽고 낡은 구습(舊習) 정도로 여겨지며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어찌 되었든 그렇게 서양음악이 들어온 지 벌써 238년이다. 절대 짧지 않은 세월이다. 그 긴 세월 동안 우린 교육제도를 통해서 아주 어린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대학까지, 아니 어쩌면 태교란 이름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은퇴 후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대학에 이르기까지, 서양음악을 필수 교양으로 교육받았다. 또한 특별한 의도나 계획이 있어서는 아니었지만, 방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하여 서양음악을 모르는 것은 교양이 부족한 것이며 부끄러운 일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다. 바람직한 문화와 소양을 권장하는 양 아직도 무언의 강요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한 세금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어 서양음악의 특정 장르(예를 들어 오페라와 같은)를 위한 축제, 혹은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인물이 아니라 서양의 역사와 서양의 예술가들을 기리는 축제를 열고 있다. 심지어 이것이 마치 우리의 정서를 함양하고 문화적 역량을 높이는, 대단히 의미 있는 사업인 양 칭송한다. 거기에 '국제적'이라는 규모의 과장과 '도시 브랜드'와 '경제적 효과'라는 명분까지 씌워지면, 그 착오적이고 억지스러운 축제는 더욱 귀하고 거룩한 것이 되어 비판은커녕 의심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추임새로 공감을 적극 표시하고 함께 교감하며, 너 나 없이 주인이 되어 신명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전통 연희판이고 공연 방식이었다. 관객과 연희자는 경계 없이 서로 혼연일체가 되어 함께 울고 웃고 소리하고 춤추는 것이 우리 정서이고 우리 문화이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너무나 먼 옛이야기가 되었다.

지금의 우린 공연장에서 언제 손뼉 치고, 환호해야 하는지 주눅이 들어 머뭇대며 눈치를 보아야 한다. 영어인지 이태리어인지 아니면 독일어 혹은 불어인지 그도 아니면 러시아어인지도 모르는 외국말로 된 작품명을 읽어야 하고, 연주 후의 찬사조차도 어떤 경우에 어떤 말로 어떻게 남녀를 구분하여 외쳐야 하는지 고심한다. 딱히 교감하기 어려운 먼 문화권의 신화나 연애담에 내 이야기인 양 심취해야 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가사의 아리아를 들으며 좋은 시 한 편을 접한 듯 깊은 감동받아야 한다. 그런 척을 잘하지 못하면 교양 없고 음악적 소양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아야 하니 참 민망한 노릇이다. 그런 세월이 벌써 238년, 짧게 잡아도 138년이나 되었다.

서양음악이 도래한 지 긴 세월이 지났고, 많은 시도와 노력이 있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서양음악을 모방하거나 그저 흉내 내기에 급급한 것들이어서 자랑할만한 성취는 거의 없었다. 또한,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 일상 속에 뿌리내리지 못했다.

사진 5. 고산농악(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호). 대구에서는 고산·옥수농악, 날뫼북춤, 공산농요, 영제시조, 판소리 등 9개 음악 분야의 무형문화재 전수자들에 의해 전통음악이 계승 발전되고 있다.(출처=문화재청)

사진 6. 날뫼북춤(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출처=문화재청)

다행이라 해야 할지 최근 들어 엘리트 음악에서 눈에 띄는 성과들이 자주 뉴스를 장식한다. 대부분 천재적인 젊은 연주자들의 국제 콩쿠르 입상 소식들이다. 이것이 우리 문화 역량의 우수함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천재성에 기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가릴 순 없지만, 그래도 자랑거리가 생겨 다행이다. 그동안 그 큰 노력과 열망에도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의 음악인들만큼 몸에 착 감기듯 자연스럽게 잘할 수 없음에 늘 주눅이 들어있었고, 그래서 가졌던 막연한 좌절과 열등감도 부인할 수 없다. 오랜 동경과 열망을 나름 해소해주는 소식에 위안이 된다. 어쨌든 우리의 경제적 역량이 커지는 만큼 비례하여 이러한 성과들도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일 것이다.

현재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된 엘리트 음악의 눈부신 성장은 불과 20여 년 남짓의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가파른 성장과 변화가 우리의 정서에 기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참 기쁘고 자부심이 넘쳤을 것이다. 만약 작품이나 연주에 우리네 삶과 신명이 충분히 담겼더라면, 그 감흥에 흠뻑 젖어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었을 것이다. 당연히 우리 일상 속에도 음악적 감흥을 넘어 그만큼의 예술적 지평도 넓어졌을 것이고 살맛 또한 더해졌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취들이 남의 이야기를 듣는 듯 뉴스로만 머물 뿐 우리에게 별다른 감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일상 또한 별다른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비록 재능 넘치는 우리 음악가들의 개인적 성취는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큼 천재적이고 넘치게 눈부시지만, 안타깝게도 평범한 우리에겐 교감이나 공감을 일으키기는 커녕 오히려 정서적 괴리만을 키울 뿐이다. 엘리트 음악은 여전히 우리 일상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처럼 겉돌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 음악은 마치 신기루처럼 손이 닿지 않는 먼 허공에 아련히 떠 있는 느낌이다.

정서라는 것은 참 고집스럽고 질기다. 삶의 공동체를 이루어 민족으로 묶이고 긴 역사를 통해 다져질수록 더욱 그러하다. 지배계층의 의지나 제도를 통해 아무리 긴 세월 동안 길들이고 흐름을 바꾸려 해도 여간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앞에서 살펴본 엘리트 음악의 사례나 우리 전통 명절인 설날이 아주 좋은 예이다.

설날의 경우를 살펴보자. 개화기 이후 계몽적 분위기에 휩쓸려 음력 폐지와 함께 양력을 사용하도록 강요되었다. 따라서 설날은 당연히 양력 1월 1일이어야 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광복 후 1960년대를 지나 새마을운동까지, 사회계몽 차원을 넘어 법과 제도도 제정하고 정비하면서, 정부는 줄기차게 설날을 양력 1월 1일로 쇨 것을 강제하였다. 하지만 한 세기가 훌쩍 넘은 지금까지도 양력 설은 여전히 '까치설'이고 우리에겐 음력 설이 '진짜 설'이다. 사회 구성원들의 교감과 공감 없이 정서는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정서라는 것은 참 힘이 세다. 그 센 힘으로 우리를 울리고 웃기며 우리네 삶을 좌지우지하여 문화를 형성하고 사회의 살맛과 행복을 다스린다. 또한, 정서는 참 자상하고 섬세하다. 우리 하나하나의 감정을 일일이 헤아려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스하게 어루만진다. 그리고 나를 나답게 우리를 우리답게 하고 당당하게 키운다.

이렇듯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관하는 것은 바로 정서이다. 물질이나 조건 혹은 논리가 아니라 정서인 것이다. 문명이 고도화되고 물질이 넘칠수록 정서가 마르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편히 숨을 쉬고 사람다운 삶을 산다. 오늘 우리에게 예술과 문화가 더욱 절실한 이유이다.

어떤 사회든지 정서적 허기와 문화적 결핍을 메우지 못하면 그 사회는 궁극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다. 고도화된 사회일수록 구조적 문제는 더욱 커지고, 그 사이에 정서적 허기와 문화적 결핍 역시 점점 더 커지기 마련이다.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불평은 많아지고, 경제가 성장할수록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며, 그에 따라 계층의 벽 역시 더욱 높고 단단해진다. 구성원들은 생존과 계층 상승을 위해 필사적인 경쟁을 하고, 결국 그럴수록 서로 더욱 고립되고 자신의 소유와 영역을 지키기 위한 배타적 담장을 더욱 높이게 된다. 그 안에서의 삶은 소통과 교감이 점점 사라져서 더 각박해지고 피폐해진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수록 정서적으로는 더 고립되고 황폐해지는 모순 속에 현대인들은 살고 있다.

살맛 넘치는 세상, 어떻게 해야 가능할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이다. 우린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모습을 잃고 살았다. 굴곡이 많은 세월을 살아내느라 너무 크고 아픈 상처들과 그것이 아물며 남긴 깊고 짙은 흉터가 곳곳에 있다. 처절한 고난의 역사를 겪어내면서도 우린 사람다움을 잃지 않고 또 남부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용을 쓰며 살아왔다.

그 길고 모진 세월 동안 얽히고설킨 문제를 푸는 것은 그만큼 긴 노력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우선 가장 먼저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욕망의 실현을 위해 달려온 소유의 삶을 이제 멈추고 가치의 실현을 위한 존재의 삶으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리하여 물질보다 못한 삶이 아니라 우주보다 귀한 삶을 선택하자. 지금 우린 대전환의 시대적 요청 앞에 서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대구가 참여한 음악창의도시가 참 귀하다. '음악창의도시'라는 평범하고 단순한 이 슬로건이 우리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하나하나 해결하기 위한, 가치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작고 사소한 첫걸음이지만 이것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춤을 추며 신명 나게 살아가는, 아름답고 살맛 넘치는 세상을 향한 큰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에 꼭 지켜야 할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한다.

첫 번째는 바로 자율이다.

모든 창의적 행위, 즉 모든 예술과 문화 활동에 있어서 출발은 바로 자율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도달점 역시 자율이어야 한다. 예술이나 예술가는 물론이고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여 사회나 국가가 제일 먼저 갖춰야 할 것 역시 자율이다. 역사 속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린 한동안 자율을 잃고 살았다. 그 폐해는 우리의 삶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예술과 문화가 일상과 유리되어 겉도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정서적 결핍과 부조화의 모순을 낳았다.

나아가 예술을 그냥 예술이게 하자. 예술은 스스로의 가치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예술적 가치를 벗어나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예술을 동원하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물론 직관과 정서라는 예술의 극적인 힘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실용적이거나 경제적, 정치적인 사회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쓸 수 있다. 하지만 결코 그것이 예술의 본질인 양 쉽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 예술은 그냥 예술일 때 가장 큰 가치를 가진다.

아울러 예술지상주의도 경계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예술지상주의에 빠져 일반 시민들의 정서와 자율을 무시하고, 예술을 잘 모르면 계몽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한다. 아무리 훌륭한 예술이라 해도 청중이나 관객 등,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만용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

특히 전문가를 자처하는 기획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예술적 취향을 가지고 그것이 보편적인 절대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될 것이다. 기획자의 편향은 예술을 통해 개인의 자율을 침해하는 엄청난 왜곡과 억압이 될 수 있음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예술 행정은 더욱 그러하다. 그 영향과 폐해는 개인 기획자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예술과 문화의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할 때 개인의 정서는 물론 그 집단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문화까지 그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고 충분히 보장되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래야 사람이 살고 예술이 살고 사회가 산다.

두 번째는 성취다.

예술과 사람이 주체와 객체로 나뉘지 않아야 한다. 예술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을 충분히 담아야 하고, 그것을 통해 예술적 성취가 바로 구성원 개인의 성취가 되어야 한다. 엘리트 전문 예술가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전문성에만 치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럴 때 일반 시민들은 엘리트 예술을 위한 부수적 존재로 대상화되어, 무시 혹은 소외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인들에게도 예술이 자아실현의 훌륭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수동적인 예술 소비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예술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의 창의적 예술 활동이 주는 작은 성취를 통해 이웃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감정과 정서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자아실현과 동시에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사회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관계와 인정, 즉 공감이다.

다시 말해 소통이기도 하다. 예술은 직관을 통해 감정을 나누며 관계를 확인하고 소통한다. 이것은 어떤 지적인 논리나 힘찬 웅변의 설득보다 강하다. 내 심정을 설명하는 것, 말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것 또한 말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시 한 수를 읊고, 내 감정을 대신할 노래를 지어 같이 부르거나 내 심정에 와닿는 좋은 그림 한 점 함께 본다면, 혹은 연극이나 영화를 통해 이웃의 삶을 대신 살아본다면 이는 그 어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절절하게 서로의 처지와 삶을 마치 내 일처럼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삶을 공유할 때 직관을 통해 교감하여 공감을 이루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평등으로 불행하다고 한다. 계층 간의 성벽은 너무 단단하고 높다. 경제적 양극화의 그 격차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불평등의 폐해는 이제 그 한계를 넘은 지 오래다. 어떻게 이 간극을 줄이고 계층 간의 성벽을 허물어 통합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예술이다. 모두가 창의적 예술 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교감하고 소통하여, 양극에 있는 서로의 삶을 정서적으로 공감하게 된다면, 언젠가 그 높고 단단한 벽을 스스로 허물고 통합과 공존의 길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룰 수 없는 꿈 혹은 너무 난망(難望)한 상상이라고 느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라고 하지 않는가. 음악창의도시에서 우리 함께 큰 꿈을 꾸어보자. 그 큰 꿈이 예술을 통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보자. 너 나 없이 한데 어울려 노래하고 춤추며 더불어 살아가는 살맛 넘치는 세상. 상상만으로도 가슴 벅차오르지 않는가.

1-3

문화의 시대 4차 산업혁명과 대구문화

박종문(『영남일보』 편집국 부국장 겸 교육팀장)

21세기는 흔히 문화의 시대라고 한다. 또 한편으로는 문화전쟁의 시대이고 도시문화 경쟁의 시대이기도 하다. 20세기가 과학기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문화에 의해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이 판가름 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영토의 크기나 경제력보다 소위 문화영토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이다.

지난 100년 동안 근대문화를 발전시켜 온 대구는 문화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문화예술가를 배출했으며, 다양한 근대문화예술 장르가 골고루 발달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또한 많다.

하지만 그런 자부심 뒤에는 아쉬움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시대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고 역동성 또한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 대구가 문화도시임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문화의 시대를 맞아 부족함이 많은 것 역시 현실이다.

문화도시 대구를 논하면서 현시대 상황에서 꼭 고려해야 할 변수로 4차 산업혁명 [1]*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의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기술, 분야, 산업과 융합해 국가사회 전반이 혁신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출처=4차산업혁명위원회)*을 중심에 두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이 단순한 기술적 진보를 넘어 인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구가 문화도시로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가장 혁신적인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그 변화의 폭과 속도가 어디까지 뻗쳐 나갈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어느덧 우리 삶을 하나둘 바꾸어 놓고 있다.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문화도시 대구'는 어떤 모습을 그려야 할까?**

노동에서 해방된 인류,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다

4차 산업혁명의 도도한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 그전의 산업혁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센 물결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인류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항해를 시작했다.

4차 산업혁명의 초입에서 이것이 인류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변화의 물결이 기존 체제를 근본적이고 본질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알다시피 4차 산업혁명이 그리는 미래는 놀랍다. 여러 가지 전망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향후 10년 뒤에는 주 15시간 근무체제가 자리 잡는다고 한다. 주 15시간 근무체제는 인류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다. 인류가 노동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인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존을 위해 노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인류 탄생 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인류 문명사 대부분의 시기는 인류가 삶과 번영을 위해 노동에 얽매인 시간이었다. 존명(存命)과 부의 축적을 위해 잠자는 시간 외 대부분의 시간을 노동에 투입했다. 지금의 주 5일, 52시간 근무체계가 정착된 것이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노동은 인류에게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주 15시간 근무가 보편화된다면 인류 역사는 노동에서 해방되는 시기에 접어든다고 볼 수 있다. 주 5일 근무가 아닌 주 2일 근무 또는 하루 3~5시간만 일을 해도 되는 시기가 도래하는 것이다.

인류가 노동에서 해방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문화의 시대가 다가옴을 의미한다. 생존을 위한 노동은 최소한에 그치고 나머지는 취미, 자기 계발과 같은 자유로운 시간을 향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문화 향유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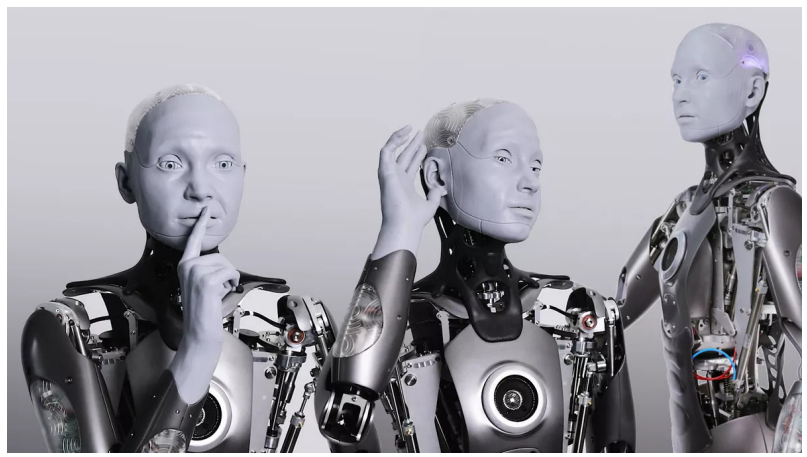


사진 1. 영국 로봇 기업 '엔지니어드 아츠'가 선보인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 사람 같은 표정과 동작을 하고 있다. (출처=엔지니어드 아츠)

다. 생존을 위한 노동의 부담에서 벗어난 인류가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게 되면서, 본격적 문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인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을 구할 때쯤에는 새로운 직업이 65% 정도 생겨난다고 한다. 20세기 산업화를 이끌어온 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현재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직업들이 새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또한, 10년 뒤에는 47%의 일자리가 자동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의 일자리 절반 정도가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결국 인류에게는 로봇과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자리만 남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많은 직업군은 비인간적, 비문화적, 몰환경적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타날 새로운 직업군은 로봇이나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적이고 문화적이며, 개성, 감성, 자연의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 미래학자들은 예측한다.

주체적으로 가꿔온 대구의 시간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는 단순히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 통신 및 과학기술은 물리적·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4시간 내내 전 세계 어디라도 실시간으로 통화나 연락이 가능한 세상이 열렸다. 미국 유학 중인 자녀, 유럽 여행 중인 부모님, 남미로 출장을 간 직장동료와도 언제든 소통이 가능하다. 직접 가보지 않은 미지의 땅도 마치 몇 번 가본 것처럼 느낄 수 있을만큼 제공되는 정보량은 차고 넘친다.

교통·통신수단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은 본질적으로 국가보다는 도시발전의 시대를 열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 간 경쟁의 시대였다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한 21세기는 도시 간 교류가 빈번해지고 활성화되는 시대다. 도시의 매력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도시의 문화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로 접어든 것이다. 그런 만큼 문화를 가꾸어 매력이 넘치는 도시는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도시의 매력, 도시의 문화가 곧 경쟁력이자 브랜드가 되는 시대인 것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변화는 대구가 가진 지리적·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대구문화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입지 여건의 불리함은 점차 사라질 것이다. 대구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위치해 있어 문화 활동에 장애가 많고 발전에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말은 변명이나 핑계로 여겨질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보면, **대구는 다시 한번 문화를 꽃피울 여건을 맞이한 것**으로 봐도 될 것 같다. 대구는 100년 전부터 근대문화 장르를 골고루 발전시킨 소중한 역사를 갖고 있다. 현대미술부터 문학, 서예, 음악, 연극, 뮤지컬, 현대무용 등이 든든한 지역적 기반을 가지고 성장해 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근대문화 장르를 골고루 발전시켜오고 있는 도시는 서울을 제외하면 대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 문화발전과 도시문화 발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시인 것이다. 여기에다 경북지역은 불교와 유교를 꽃피운 지역으로 대구 근대문화의 융성한 발전의 자양분이 되어 주었다.

그런 대구의 근현대 문화자산과 경북의 전통문화 보존은 대구가 주체적인 도시문화를 가꿀 수 있는 좋은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도시문화의 시대, 도시 간 문화 경쟁의 시대에서 비교우위에 설 수 있는 풍부한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 고무적인 것은 대구 근대문화의 발전과 융성이 자생적 기반 아래에서 이뤄졌다는 점이다.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나라를 잃기도 했고, 동족상잔의 비극도 겪었다. 그런 아픔 속에도 대구는 근대화 초기에는 내륙교통의 요충지로, 해방과 6.25 전쟁 시기에는 미점령 도시로서 문화적 자양분을 키워왔다. 근대화 초기 내륙거점도시로서 개방된 대구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젊은이들과 문화인들이 둥지를 튼 도시였고, 전란을 피해 낙동강 방어전선 아래로 서울에서 수많은 지식인이 내려오면서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를 쌓았다. 1980년대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고, 시립 예술단 체제를 구축하면서 수도권 일극주의(一極主義)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의 명맥을 유지해가고 있다.

젊은이들이 찾지 않는 도시

이런 환경만으로 대구가 다시 문화도시의 옛 영광을 재현하기는 어렵다. 냉정히 현실을 비판하면 오히려 문화도시의 위상이 뒷걸음질 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서울을 비롯한 많은 대도시들이 문화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문화 육성정책을 펴오고 있어, 대구가 과거의 영화에만 머물러 있다면 제2의 문화도시 위상도 위태로울 수 있는 게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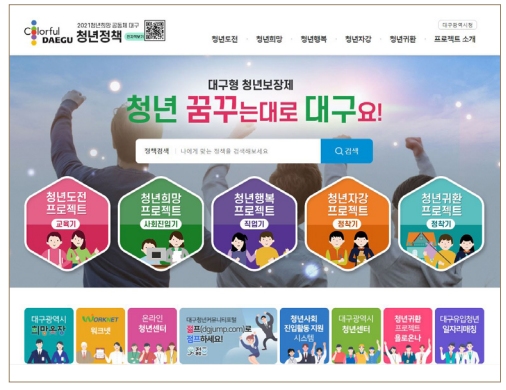


사진 2.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의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 대구시에서는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다.(출처=대구광역시 홈페이지 캡처)

이런 위기의식은 우선 대구의 폐쇄성에 기인한다. 대구는 도시산업 자체가 쇠퇴하면서 젊은이들의 유입 가능성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오히려 지역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기 위해 대구를 떠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특히 문화예술을 하는 젊은이들에게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도시가 돼 버린 것이다.

대구 도시경제의 침체, 수도권 중심발전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폐쇄적인 도시문화도 큰 몫을 했다고 본다. 국제적으로 문화도시라 불리는 지역 가운데 아마 대구만큼 폐쇄적인 도시는 보기 드문 듯하다. 근대도시 형성 초기 개방적이고 다양함이 공존했던 대구의 도시문화가 점차 지연 및 혈연 중심의 인맥 중심사회로 변화했다. 다양성보다는 집단성, 개성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더 우선적인 가치로 두면서 도시는 활력을 잃어 왔다. 그렇게 대구는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도시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세대인 20~30대가 주도하는 시대이다. 젊은이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은 문화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구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외지인과 외국인에게 너무 먼 도시

젊은이들이 대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구와 별반 연고가 없는 문화예술인들이 머물기 어렵다는 점도 대구의 문화도시 경쟁력 강화에 큰 걸림돌이다.

문화예술적 개성, 다양성, 혁신성보다는 지연과 학연이 인간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대구 밖 문화예술인들이 대구에 정착하거나 교류하는 데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근대문화 발전의 중심 도시라는 자부심이 너무 강하다 보니 오히려 외지 문화예술인에 대한 수용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한다. 대구에서 수십 년을 산 교수나 문화인들이 아직도 자신을 대구사람 취급을 안 해준다는 외지에서 온 문화예술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구의 폐쇄성이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

문화도시 융성은 자생적 발전과정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흐름, 다양한 시각을 가진 국내외 문화예술인들이 대구에서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에 머물러선 안 된다

젊은이들과 외지 문화예술인들이 대구를 외면하는 것은 대구가 미래지향적이라기보다는 과거 지향적, 현실 안주적 성향이 강한 도시이기 때문이다. 대구의 근대문화역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정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기에 자랑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지나쳐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재단하고 미래의 가치관을 고착화하려는 의식이 있다면 지역문화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화예술의 풍토는 얼마나 다양한 가치관을 존중하고 수용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대구지역은 다양한 문화 수용성이 약화되면서, 점점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된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국내 다른 도시들도 문화적 토대를 쌓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주된 관심과 시각이 우리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글로벌 시대 대구문화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4차 산업혁명으로 촉발된 기술적 진보는 21세기 문화융성의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가 지금과 같은 환경에 머문다면 국제적인 문화도시로의 성장 기회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구 문화예술계는 인류가 현재 처한 상황, 문화적 가치관, 타 도시들의 문화적 움직이 국제적인 문화 흐름에 별반 관심이 없어 보인다. 늘 그래왔듯이 현재의 역할과 임무에 충실한 모습이다.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시대 (Digital Trasformation)

지금은 모든 것이 바뀌는 시대고 문화 또한 예외일 수는 없다. 하나의 예로 미술계는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 토큰)라는 전혀 낯선 환경을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인 문화 관념으로는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방식이지만, 오히려 기존 미술 작품보다 더 큰 대중적 관심을 받고 있다. NFT 뿐만이 아니다. 문화예술계는 이미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 디지털 기반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산업화·상업화 움직임도 활발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공간에서의 문화예술의 창작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환경변화는 문화예술계 또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진행 중이다. 디지털 전환은 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변화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문화예술계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물론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창작 및 소비방식이 사라지거나 홀대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문화예술 행위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디지털 전환 또한 문화예술계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전통적인 예술 활동의 가치와 더불어 문화예술계도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수용하고 활발히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할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물결 속에서 문화예술계 또한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ICT, NFT, 메타버스 등 새로운 환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는 마인드가 중요하다. 이들 4차 산업혁명 핵심 영역들은 인류의 미래와 함께한다는 점에서 문화예술계와의 동행은 불가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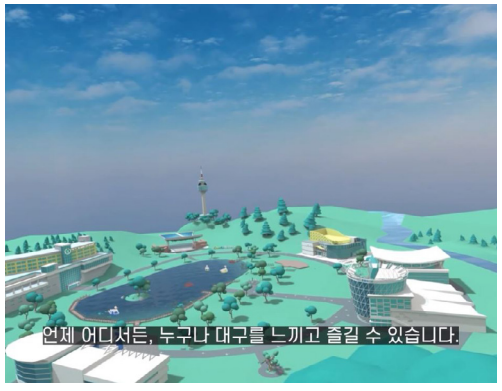


사진 3. 대구시가 구축한 메타버스 '대구 버추얼 MICE 타운', 대구의 주요 랜드마크를 담아 국제회의 뿐만 아니라 각종 이벤트를 원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는 전용 가상공간이다.(출처=대구 버추얼 MICE 타운 홍보영상 캡처, 대구컨벤션뷰로)

융합과 협업 (Convergence and Collaboration)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융합과 협업이다. 문화예술계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융합과 협업은 다소 거리가 멀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을 살펴보면 기존의 제도, 관습, 체계, 시스템 등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서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

현대미술, 현대무용, 클래식,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문화예술 장르는 그 나름의 성격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오랜 인류의 역사만큼 문화예술 장르별 역사 또한 길다.

그러나 현시대는 다양한 문화예술 장르 간의 융합(Convergence)을 요구하고 있다. 고정된 장르와 콘셉트도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장르 간 융합, 수용, 변형 등 기존의 틀을 깨는 작업이 중요해졌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온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려면 문화예술계가 융합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장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수적이다. 이런 관심은 과거 한때 유행했던 크로스오버(Crossover)보다 본질적으로 심화된 융합을 의미한다. 자기만의 문화예술 세계에 머무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시대정신은 그동안 별반 관계가 없어 보였던 장르에 대한 호기심과 이해, 수용 등을 통해 새로운 창작활동을 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문화예술 장르의 융합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협업(Collaboration)이다. 관습적으로 문화예술 영역에서 협업은 매우 어려운 과제다. 개성 강한 예술가들은 자신의 예술성에 변형을 가하거나 외부의 영향을 받는 것을 생래적(生來的)으로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화예술인 간의 협업은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진행됐다.

하지만 지금의 시대 상황은 좀 더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창작물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협업은 불가피하다. 자신의 예술세계를 고수하기보다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협업을 강화해야 하는 환경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문화와 예술의 영역을 탈피하고, 시간과 관념의 벽도 허물어야 한다. 문화예술 장르뿐만 아니라 디지털로 대표되는 과학과 기술, IT산업과도 융합하고 소통하는 새로운 문화 생산 방식을 창조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기존의 기존 장르를 뛰어넘고, 첨단 과학을 접목해 혁신적인 문화예술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창작물을 만들어 가는 거대한 융합과 협업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

사진 4. <Melting Memories> (Refik Alado, 2018). 샌프란시스코 뇌 연구소와의 협업으로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작품화. 관객들에게 기억을 시각화한 이미지를 제공한다.(출처 =Refik Alado 홈페이지)

공론의 장 펼쳐야

그런데도 대구지역 문화예술계는 이런 새로운 담론에 대한 논의가 없거나 남의 일 보듯 하는 느낌이다.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어온 폐쇄성, 자기중심주의 사상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속에서도 별다른 의식의 변화와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젊은 예술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다른 지역 문화예술인들로부터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도 내부에 갇혀 시대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구·경북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대구가 가진 문화 예술적 자산은 무엇인지, 세계의 문화도시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4차 산업혁명이 문화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과학과 문화예술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공론화해야 할 담론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대구시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여전히 예년에 해오던 사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느낌이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을 읽지 못하고 과거 지향적·현실 안주적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깝다.

거듭 말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답이 있는 변화가 아니다. 아직 얼마나 어떻게 될 지 모른다. 다만 문제를 자각하여야 해답을 찾아갈 수 있다.

그 때문에 시대변화에 맞는 담론형성과 공론의 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뿌리박힌 고정관념을 과감히 탈피하고, 대구문화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열린 마음으로 문화의 시대를 맞이하자. 대구에 혁신의 바람이 불기를 기대한다.

1-4

색감色感을 살렸다면 질감質感도 살려라

김정학(대구교육박물관장)

절대로 가만히 있을 대구가 아니다.

대구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높은 가치의 지속성을 지닌 도시다. 더 넓게, 더 깊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이 받쳐만 준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문화예술적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도시다. **출발의 도시, 시작의 도시이기 때문이다.** 서기 757년 신라 경덕왕 때 지금의 이름이 붙여진 '대구', 이 분지(盆地)가 품은 그간의 역사는 그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달성 비슬산에서 득도한 일연선사가 본리 인흥사(仁興寺)에서 『삼국유사』의 왕력(王歷)편을 쓰고, 100년 만에 해금된, 실학의 효시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을 옻골마을 보본당(報本堂)에서 최초로 교정한 도시. 서슬 퍼런 시절, 상상하기조차도 쉽지 않았던 국채보상을 기치(旗幟)로 항일정신을 요원(燎原)의 불길 마냥 퍼트렸던 도시. 눈빛 맑은 교복 차림의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위해 2·28 민주학생운동을 시작한 도시. 전쟁 때도 바흐의 선율이 들렸다는 도시, 우리나라 최초의 시 동인지 『죽순』을 내고, 최초의 시비인 '상화시비'를 세운 웅숭깊은 도시가 바로 대구이다. 대구는 어떤 시간이 다가와도 절대로 가만히 있을 도시가 아니다.

사진 1. 2·28민주학생운동(출처=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사진 2. 이상화 시비(출처=공공누리)

대구사람이 대구의 미래를 이끈다.

예전부터 '대구사람'이라는 편협한 정의에 많은 이들의 의견이 분분했었다. 누가, 무엇 때문에 대구 분지의 사람들에 대한 '변별력'을 요구하는가. '미래는 공생인류의 시대'라고들 말한다. 이해-소통-공감이 바탕이 되는 미래를 생각하면 편협한 편 가르기는 옳지 않다.

석재 서병오(石齋 徐丙五, 1862~1936)는 대구사람을 이렇게 평했다.

"대구사람은 험준한 산을 뜻하는 교(嶠),
그 산의 남쪽 남(南)을 써서 교남.
교남 사람이지. 한마디로 기개가 있고,
시원시원하지."

태어난 대구를 고향이라고 하는 이, 대구에서 자란 이, 대구에서 생을 마친 이는 물론 대구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에서 나름 깊은 의미를 남긴 곳이 '대구'라면 그 역시 '대구사람'이다. 대구로 인생의 터전을 옮긴 이, 대구에 머물렀다 떠났지만 대구를 향한 그리움을 간직한 이도 '대구사람'이다. '출향 인사'만 잘 챙겨도 '대구의 힘'은 엄청나게 커진다는 의미를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쯤에서 '대구사람은 대구사람이 만든다.'라는 말도 수긍하리라 생각한다. 그건 '대구사람은 이해와 소통, 공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대구사람 융·복합'이 이루어지면, 이 지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예술의 변경은 더욱 넓어지리라. 그간의 어이없었던 갈등도 모두 사라지리라, 모든 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 더 흥겹고 더 풍성하여 아름다워지리라. **대구의 미래는 '의미가 확장된 대구의 문화예술인'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 시대의 뉴노멀은 회복이다.

우리는 문화예술의 감동을 간직하기 위해, 기술은 디지털이되 감동은 아날로그로 지키고 싶어 한다. 노멀은 가고 뉴노멀의 시대가 왔다. 디지털 시대의 뉴노멀은 회복이다. 그것이 바람직한 문화예술의 미래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디지털 기술로 이루어질 대구의 문화예술을 위한 협업은 '줄탁동시(啐啄同時)'로 나타날 것이다.

어미 닭이 알을 품고 있다가 때가 되면 병아리가 안에서 껍질을 쪼게 되는데 이것을 '줄(啐)'이라 하고, 어미 닭이 그 소리에 반응해서 바깥에서 껍질을 쪼는 것을 '탁(啄)'이라고 한다. 이것은 어느 한쪽의 힘이 아니라 동시에 일어나야만 세상 밖으로 새 생명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의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놀랍기 짝이 없을 미래에도 서로 통해야 바라던 바가 이뤄진다는 뜻이다.

수사(修辭)는 사라지고, 은유(隱喩)도 엷어진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문화예술의 열매가 나눠질 것이다. 그래서 결국,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네트워크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믿어본다. 이제 새로운 변화는 문화와 예술의 오랜 관습과도 헤어지게 할 것이다. 수고로움조차 문화요, 번거로움조차 예술이라 생각하는가. 그런 만용으로는 다가올 변화의 도도한 물살에 오를 수 없다.

생활예술은 '정신승리'가 아니다.

문화와 예술에 생활예술, 생활문화의 이름이 덧붙여지고서는 어느새 엘리트 예술, 엘리트 문화와 갈라섰다. 많은 사람이 프로와 아마추어의 벽이 이렇게 빨리 허물어짐에 허탈해했다. 그렇지만 생활예술, 생활문화도 '정신승리'만으로는 이루어지지는 않는 법. 대구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될 것이다.

아트(Art)는 기술인가, 예술인가. 단순하게 말해서 나무를 키우는 것은 기술, 목조각은 예술이다. 자기 투자 없는 생활예술은 자리 잡기 어렵다. 더구나 스스로 책임지지 않는 생활예술과 취미에 머물러 경쟁력 없는 생활예술은 더욱 어렵다. 장르, 주제, 소재의 굴레는 열린 마음으로 해체되어야 한다. '예술'과 '예술적(的)'인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정말 예상하고 싶지 않지만, 자생력이 부족한 프로가 생활예술인들의 스승 노릇을 하면서, 그들과의 감정적 규합으로 프로의 세계와 추하게 대치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면 이건 생활예술 정책 최악의 시나리오다.

미국 역사학자 톰 니콜스(Tom Nichols)의 최근작 『전문가와 강적들(Death of Expertise)』은 *"교육은 일평생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 목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약간의 배움이 교육의 시작이 아니라 종착점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말한다. 경종(警鐘)처럼 들리지 않는가.

사진 3. 톰 니콜스(Tom Nichols)의 최근작 『전문가와 강적들(Death of Expertise)』(출처=오르마)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마음들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대두된 문화 콘텐츠 시장은 바야흐로 전쟁터다. 이름하여 '문화전쟁'이다. 먼저 연구하고, 찾아내고, 만들어서 최상의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런데, 케케묵은 잡학들이 쏟아져 나오고, 안목 없는 사람들의 선택으로 문화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콘텐츠는 잇속을 차리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좌지우지되어 향유를 강요당하는 경우를 오랜 시간 보아왔다.

진정한 스토리텔링은 솥발(鼎)처럼 받쳐져야 든든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생산자, 문화소비자, 문화중개자의 살가운 애정이 필요하다. 문화생산자(아티스트)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작품의 생명력은 문화소비자가 결정한다는 준엄한 진리를 거역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든 우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기 바란다.

문화소비자(시민, 애호가)는 호사 취미를 버리고, 편애하지 말며, 자신도 문화 창조의 일원이라고 크게 생각하라. 문화중개자(거버넌스, 언론)는 양팔이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닿아있다는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된다. 부드럽게 개입하라. 그리고 다른 나라의 멋진 사례들을 철저히 모으라. 이러한 마음들이 잘 어울리는 동안, 몰염치와 해바라기 형 복제만 경계하면 '또 하나의 문화'가 분명 태어날 것이다.

블루오션의 중심에 서다.

최근 대구는 행정적 결정으로 지역이 통폐합되는 경우를 겪게 되었다. 1995년 3월 1일 달성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되었으니, 이번 군위군의 대구 편입은 27년 만의 일이다. 이제 대구로 하나가 되어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공을 들이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지키고 선양하는 측면에서 어떤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생각해 볼 일이다. 그저 시너지(Synergy)라는 긍정적 효과만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진 4, 5. 『삼국유사』 규장각 소장본. 국보306-2호로 지정되어 있다. (출처=문화재청)

사진 6. 군위 인각사. 일연이 충렬왕 10년(1284)부터 5년간 머물며 『삼국유사』를 지은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다.(출처=군위군)

'군위의 대구편입'으로 『삼국유사』와 일연선사의 퍼즐이 드디어 맞춰진 것 같다. 이제, 오랫동안 『삼국유사』와 일연선사에 얹힌 오류, 왜곡, 과장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삼국유사』라는 거대한 아이템에는 판단의 오류가 머무르기 쉽다. 더 열린 생각이 모여야 한다. 지나치게 지역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말고 추진되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 12개 지자체가 『삼국유사』로 뭔가를 도모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대구가 비슬산(포산), 인흥사에다 인각사를 품은 '맏형'으로서 지역 간의 유대감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원탁에 둘러앉아 콘텐츠의 블루오션이라는 『삼국유사』와 위대한 이야기꾼, 일연선사의 풀리지 않는 숱한 의문점을 이야기하면서 정답을 찾아보자. 스토리텔링-콘텐츠-문화산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K-콘텐츠의 성공을 위해 대구가 백방으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기획자 양성은 중요한 과제

지역 콘텐츠 개발의 바른 방법을 찾으라면, 그건 유능한 기획자의 양성이 정답이다. 기획자는 콘텐츠를 둘러싼 개체들(생산자-중개자-소비자) 사이에서 판을 키우는 존재다. 분명한 존재감을 지니고, 이기지는 않아도, 지지도 않는 그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 네트워킹, 장르의 분리와 통합 등에도 견해가 분명해야 하고, 외국의 사례분석도 열심이었으면 한다. 콘텐츠 사업이 이루어지는 절차와 속사정도 미리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문, 과업 지시, 발주, 입찰, 심사, 턴키 [1]*턴키는 열쇠(Key)를 돌리면(Turn) 모든 설비가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한다는 뜻으로, 업체가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지고 다 마친 후 발주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방식을 말한다.(출처=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감리 등의 용어를 숙지하고, 그것들이 취지에 무색하게 얼마나 오용되고 있는가도 미리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콘텐츠 관련 전문공무원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콘텐츠보다는 경제가, 경제보다는 정치가 먼저라는 생각으로 인해 자칫하면 콘텐츠 판이 초토화될 수도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두기 바란다. 그 무지막지함이 '슬픈 개그 같다'는 생각도 든다.

대구의 콘텐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지역의 역사, 문화의 왜곡과 방관에 관한 보고서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현상에 대한 통찰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역 토종 콘텐츠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와 실패한 사례를 꼼꼼하게 짚어 봐야한다. 아집 때문인지, 공감 부족 때문인지, 왜곡 때문인지를 고민해 보기 바란다.

지역언론의 제 역할이 필요하다.

곰곰이 생각해 보자. 언제나 A 방송은 B사, C 방송은 D사와 함께 대형 무대를 마련한다. 양대 방송 외에, 양대 신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흥행만을 전제로 하다 보니 지역민의 취향이나 정서는 아랑곳없다. '소리 없는 문화 전쟁',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현상'이라고 말하지만, 죽지만 않는다면 전쟁만큼 재미있는 구경거리가 어디 있겠는가.

양심 있고 장래성 있는 유명 쇼핑몰은 입주자 보호를 위해 동일 업종에 중복 분양을 하지 않는 법. 경쟁이 발전을 견인한다지만, 흥행을 전제로 하는 '꾼'들은 문화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주는 대로 잘 받아먹는 소비자'로 길들일 심산이다. 특히 공연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은 지방에서야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아닌 것도 알고 있다. 또 경쟁이 문화판을 키운다지만, 리뷰(Review) 없이 프리뷰(Preview)만 난무하는 지역의 공연문화는 언론이 조장하는 아귀다툼이나 최소한 진흙판 개싸움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문화시장은 대중독재(Mass Dictatorship)의 지배 형태를 띤다. 독재의 일방적인 희생자로 그려졌던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들의 국민이 사실은 체제의 공범이라는 이론인데, 대중매체가 대중독재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듯한 현실이 서글프기 그지없다. 나쁜 소수도 문제지만 방관과 침묵이라는 암묵적 지지를 보내는 다수의 문화소비자에게도 문제가 없진 않을 것이다.

대구의 문화예술을 위한 제안

디지털 시대, 이 시대의 현실인식은 언제나처럼 '시작의 도시'인 대구의 문화예술계에서 가장 먼저 깨치게 될 것이므로 '대구문화와 예술'을 위한 여러 제안을 계명(誡命)처럼 던져본다. 모든 걸 지켜낼 그 날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

① 문화예술 감상의 외연(外延)이 더 넓어져야 한다.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추구해야 한다는 말이다.

② 장르, 작가, 표현기법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과의 연관성 연구를 통해 미래의 관객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③ 구성원의 전문성이 결여되었거나, 프리뷰와 리뷰의 균형을 지키는 못하는 미디어(일부 신문, 방송, 잡지 등)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④ 문화예술 성장의 걸림돌인 왜곡·오류·표절·억지·편견·방관·뒷북의 사례를 많은 사람에게 알림으로써 문화예술을 이끄는 거버넌스의 공적(公的) 존재감을 한없이 높여야 한다.

⑤ 디지털 시대에 맞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교양과 인문학에 쉽게 빗댄 문화예술로는 결코 본연의 가치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⑥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한 바른 이해도 필요하다. 대중성(Popularity)과 공공성(Publicity)은 동전의 양면일 수 있으며, 서로 폄훼하지 않고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⑦ 지역문화의 발전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균형감처럼 작가와 향유자의 관계도 바르게 정립하면서 정해져야 한다.

⑧ 인접학문과 배경지식의 융·복합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박물관이 고고학(考古學)과 고현학(考現學), 미술관이 사조(思潮)와 장르(Genre) 간의 융복합에 정답이 있는 듯 변화해야 한다.

⑨ 다양한 교육을 통해 공조와 협력의 프로그램을 고민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세계적 보편성'에 대해 고민하는 특별한 기구나 조직이 만들어져야 한다.

⑩ 경계심 없는 유대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의 타파를 위해서는 종교적 논쟁, 사조의 수용, 이념의 해석에 대해서도 서로가 자유로워져야 한다.

사진 7. 컬러풀 대구 로고(출처=대구광역시)

사진 8. 앞산전망대에서 본 대구전경(출처=대구광역시)

우리가 비빌 언덕은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문화소비자는 현실의 냉정한 인식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이제는 상식이 되었다.

돌아보자. 주변에는 장르를 넘어 얽혀진 '문화'가 기능을 잃은 조형물로 침묵 속에 남아 있고, 문화발전소인 대학들은 고유의 의무를 잊고, 미디어들은 한없이 편식을 부추긴다. 지자체들은 문화에다 산업이라는 말만 달면 변별력 없이 퍼주기만 하는 듯하다. 문화소비자들은 더 이상 사육문화, 온실문화, 앞잡이문화, 반촌문화를 구분하기 쉽지 않다.

게다가 역사를 날조한 문화상품은 문화소비자의 가슴을 멍들게 할 뿐이다. 아마추어와 프로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연예술의 경우라면 레퍼토리 시스템을 통해 발군의 '명품'으로 조탁 되어야 마땅하다.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문화전쟁을 위해 당당해지자. 그 누구에게도 지지 말자. 그리고 이해득실을 따지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라는 사실도 명심하자.

이제 대구의 문화예술은 '회복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먼저, 왜곡과 오류를 제자리로 돌려야 한다.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결정이었다면 스스럼없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관련 업체의 무리한 해석과 제안을 경계하고, 지역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도움말을 바탕으로 한 빠른 해체와 완벽한 복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생각한다.

두 번째는 효과를 배가하는 문화예술정책을 세워야 한다.

정책을 입안하는 담당자들이 결과보다 과정의 홍보 효과가 부족함을 실감하는지 모르겠다. 관광효과의 환상에서 벗어나고, 거품을 걷어내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것은 시뮬레이션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의 팩트들을 연결하여, 지금의 좌표를 확인해야 한다.

1,3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대구를 지나치게 근대 중심의 도시로 인식시키는 것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대구는 '보편화'의 오류에 지나치게 매몰되어버린 것은 아닐까. 글로컬(Glocalization)의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략적으로 도심을 재생함으로써 '컬러풀 대구'를 그야말로 찬연하게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색(色)뿐 아니라 마티에르(Matière) [2]*재질감(Texture [영]). 표현된 대상 고유의 재질감을 가리키는 경우와, 작품 자체 표면의 평활(平滑)함과 울퉁불퉁한 질감 등 소재의 선택, 용법에 따라 창출한 표면 효과. 그림의 경우에는 화면의 질감을 의미할 때가 많다.(출처 = 한국사전연구사 편집부, 『미술대사전(용어편)』)* 도 살리는 도시, '디테일'과 '비트(Beat)'가 체화되어 마침내 '바른 역사'가 오롯이 회복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대구는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가만있지 않고, 모두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을 것이다. 감동적인 역사, 가슴 벅찬 창의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크게 비빌 언덕(대구, 大邱)'이 있기 때문이다.

2

대구에서 문화예술 합니다.

대구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을 바라봅니다.
그 속에서 상호 호혜적 이해와 『함지』가 담아낼 또 다른 담론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앞산전망대에서 본 대구전경(출처=대구광역시)

2-1

최병소 작가를 만나다.

Interviewee 최병소(작가) / Interviewer 남인숙(미술평론가, 미학박사)

최병소는 1943년 인천에서 태어나 계룡산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신도안'에서 자랐다. '신도안'은 태조 이성계가 도읍으로 염두에 두었던 곳이라 하니, 풍수가 남달랐을 것이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대구 남산초등학교로 전학하여 계성중학교에 진학했다. 직물공장(백부)과 재봉틀 부품 조립을 하는 미싱상회(부친)를 운영하던 가업(家業)을 배경으로 유복하게 성장했다.

한국전쟁 당시 '신도안'은 퇴각하는 북한군의 퇴로였고, 이때 북한군에게 밥을 지어준 사건으로 최병소 집안은 부역자로 오해받아 고향을 떠나게 된다. 부친은 일본으로, 가족은 대구로 와 각기 정착하였다. 어머니는 경남여고를 졸업한 재색(才色)을 겸비한 재원이었으며, 실질적으로 집안의 가업을 이끌었다고 한다. 최병소는 계성중학교를 거쳐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라벌예대에 진학한다. 이후 중앙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하고 졸업 후, 대학 강의를 통해 후학 양성에 이바지하며 자신의 창작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최병소 작업 활동의 출발선에는 '신도안'에서 자신에게 연필로 그리라던 할머니의 음성이 자리 잡고 있다. 최병소는 자신이 연필로 작업을 하게 된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할머니의 영향 때문이었다고 강조한다.

최병소와 신문지의 만남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되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1950년은 최병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인쇄소와 제본사 등이 전쟁으로 인해 폐허가 되면서 교과서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이에 신문사에서 신문처럼 교과서를 공급했다고 한다. 주머니에 접어 넣어 다니던 신문지 교과서는 온갖 낙서로 너덜거렸다.

사진 1. 최병소(1943~)

신문지로 된 교과서 위에 긁적거렸던 낙서는 '지우는 작업'의 무의식이 되었을지 모른다. 신문지에 낙서하는 행위나, 무심결에 교과서의 글을 지우는 행위는 '지우기 작업'의 기원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최병소에게 신문과의 만남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이후로도 계속 최병소에게 신문은 세상과 만나는 창문 역할을 했다. TV가 없던 시절, 신문은 TV 이상의 재밋거리와 첨단의 유행, 온갖 이야기와 사건 등이 펼쳐지는 또 하나의 장소였다. 신문은 자본주의 도시 소비문화의 생생한 증인이었다. 이 신문을 읽고 보는 것이 최병소의 주된 일과였다. 대구로 전학하여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과정에서 최병소는 공부를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신문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워준 것이다. 신문을 통해 최병소는 호기심을 채우는 데 머문 것이 아니라, 시대의 매너를 익히고, 대중문화의 현장에 흠뻑 젖어 모더니즘으로 깊숙이 나아가게 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은 최병소가 어떻게 영화광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일부 설명해준다. 샤를 보들레르(Charles-Pierre Baudelaire)가 대중 속에 비틀거리며 시(詩)를 지었다면, 진정한 도시의 대중(大衆)으로서 최병소는 신문 속으로 들어가 도시를 보고 읽은 것이다.

사진 2. 『미술수첩』, 1977 10월호

사진 3. 1997년 <FIAC> 리플릿

신문을 지우는 최병소의 작품은 1975년 제2회 <대구현대미술제>에 소개되었다. 신문작업이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계기는 1977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한국현대미술의 단면전>이다. 이 전시를 통해 최병소는 한국 실험미술의 대표적인 작가로 자리 잡았다. 최병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현대미술을 축제로 기획한 <대구현대미술제>(1974~1979)에 연속 출품하며 한국 실험미술의 주요 일원으로서 활동하지만, 1980년대 작업을 중단하고 화단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작가는 1970년대 현대미술의 맥을 잇는다는 방향 아래 대구 시공 갤러리를 중심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다시 미술현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최병소는 1997년, 2002년 피악(FIAC)에 출품하여, 다시 한번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며 '1970년대 한국 실험미술'의 중심에 놓인다.

그는 위와 같은 공적을 인정받아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했으며, 한국 실험미술을 대표하는 주요 작가이자 한국 현대미술의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병소 등이 참여한 현대미술제의 의의는 당시의 신문 기사를 통해 그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

"지난 1973년 <한국실험작가전>, <현대작가초대전> 등을 통해 대구현대미술제의 기틀을 마련했던 대구 작가들은 그 이듬해인 1974년 미술제를 처음 만들어 대부분 서울에서만 이뤄졌던 현대미술운동을 지방에도 확산할 것을 선언했다."

(『경향신문』 1970년 7월 10일)

당시 현대미술가들의 실험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새로운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로 현대미술의 저변을 확산시켰으며, 대규모 단체 전시를 통해 신인들을 배출하였다. 또한, 축제 형식으로 시민 누구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였다. 최병소의 신문지 〈무제〉 연작은 1970년대 한국 현대실험미술의 동시대성을 이끌었으며, 오늘날 현대미술의 자산으로서 고유성과 보편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무제〉는 신문지가 주된 재료이다. 최병소는 연필이나 볼펜으로 신문지 위에 선을 그어 내용을 지운다. 선을 긋는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제작된 〈무제〉는 1970년대 당대 대표적인 실험미술로 평가된다. 1990년대 후반 다시 소환된 〈무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개념미술로 평가되고 있다. 창작을 위해 특별히 작가가 정해놓은 연필은 없지만, 쓰다 남은 굵은 몽당연필 무더기를 보면 〈무제〉가 탄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짐작할 수 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고, 선을 긋는 신체 행위를 통해 제작된 〈무제〉는 간단하고 분명한 미술로 한국의 대표적인 아방가르드(Avant-garde) 작품이다. 작가는 미술인지 미술이 아닌지 그 경계를 탐색하면서 기존의 의미를 지우고 다른 의미의 가능성을 찾는다. 아예 미술을 버리고 그 자리를 비워두는 식으로 의미를 뛰어넘는 작가는 '비(非)의미' 혹은 '무(無)의미의 가능성'을 실험해보는 것이다.

〈무제〉는 세계 미술사에서 '가난한 미술'의 흐름으로 볼 수도 있다. '가난한 미술'은 1960년대 이탈리아 북부에서 전개된 현대미술운동으로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를 번역한 말이다. 청빈함과

소박함을 추구하며 그에 걸맞게 표현과 장식을 절제함으로써 별 가공 없이 사용된 재료를 날 것 그대로 드러낸다. 〈무제〉와 최병소 작가의 작품세계 역시 이러한 '가난한 미술'의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작가 스스로는 간단하고, 간편하며, 군더더기 없는 미술을 지향한다. 노동집약적인 공정과 완벽한 마무리를 추구하기보다 '과정을 이끌고 가는 신체의 충실성'을 더 지향한다. 최병소의 작품은 '실험'이라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를 드러내는데, 작가는 미술을 버린,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한다.

〈무제〉를 형성해가는 반복적인 행위는 지우는 행위다. 동시에 그것은 그리는 행위이며, 모순이 공존하는 아이러니한 공간을 만든다. 모순이 공존하기에 의미를 특정하기 어렵고, 아직 결정될 수 없는 공간은 '지우기-그리기'의 '결정 불가능한' 부조리의 공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무제〉를 형성해가는 신체 행위는 아이러니한 공간, 부조리한 공간의 창조로 이어진다. 아이러니나 부조리는 무의식적으로 쫓게 되는 관습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이탈시켜 비의미나 무의미와 마주하게 한다. 〈무제〉에서 비의미나 무의미는 신문지의 찢김, 긁힘, 울렁거림, 흑연의 예기치 못한 반짝임 등의 감각적인 파열음으로 드러난다. 재료의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찢김, 긁힘, 울렁이는 표면, 번들거리는 빛 등은 아직 결정되지 못한 다른 의미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무제〉는 이렇게 무의미의 지평을 드러냄으로써 '아무것도 아닌 것의 가능성'을 감각의 장면으로 만들어 인식을 확장한 실험이자 개념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무제(Untitled)>, 2005, 신문지에 펜, 볼펜, 연필, 54x82x1cm(출처=최병소 작가 제공)

남인숙 • 현대미술가로 대구는 물론 한국 미술사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 오셨다. 1997년 피악(FIAC)에 참가함으로써 대구에서 처음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2002년 피악은 시공화랑을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참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궁금하다.

최병소 • 당시 내 그림은 가장 끝에 좋지 않은 자리에 걸렸다. 다른 작품을 지나 끝까지 가야 겨우 내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앞에서 본 것은 다 거짓말이고 진짜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들 했다(웃음). 파리에 유학 중이던 지인이나 갤러리스트가 많이 다녀갔다. 그런데 내 작품을 마주한 사람들은 대부분 감탄했다. 피악에서 마지막에 와야 볼 것을 봤다는 거다(미소). 이우환 선생께서도 내 작품을 상당히 잘 보셨다. 내 작품은 디스플레이가 힘들다. 아주 설치를 잘했는데, 작품이 팔리면 새로 설치해야 해서 그게 참 안 좋다(웃음). 벨기에에서 오신 분이 있었다. 그분이 늦게 도착했는데, 작품을 보여달라 간청해서 불가피하게 이배 선생 작업실에 작품을 걸어 보여주기도 했다. 그분이 작품을 사 갔다. 그 다음 피악에 갔을 때는 한국 작가 작품이 확- 돌았다. 권오봉 작품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또 거기 이부(EBU) 갤러리가 있다. 그 갤러리는 내 작품을 위해 만들어졌다. 내 작품이 마음에 들어 대표가 500점 정도를 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그 대표는 액세서리, 공예 디자이너로 파리 패션계에 영향력이 있는 분이다. 유명한 빵집 주인이기도 하고. 그분이 오로지 최병소 작품을 걸기 위해 갤러리를 만든다고 했다. 그런데 그 부부가 비행기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그 참… 그래서 갤러리는 생겼지만 내 작품 이야기는 사라져 버렸다. 피악 거기에서는 분위기가 참 좋았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경우하고는 많이 달랐다. 한국의 중년 부인들은 내 작품을 거들떠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는 나이 지긋한 부인들이 와서 내 작품을 자세히 보고 또 같이 온 사람들끼리 한참 이야기했다. 모두 열심히 작품을 보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고 부러웠다. 시공 갤러리 이태 선생이 주선해서, 당시 파리에 거주하시던 김애령 선생께서 평을 써주셨다. (격을 갖추어) 전시를 하게 되었고, 다들 내 작품을 좋아해 주었다.

선생님께서는 김애령 선생께서 평문을 쓰기까지의 과정을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하셨다. 전시를 위해서는 여러 격을 갖추어야 좋은데, 이 중 중요한 것이 바로 작품에 대한 평론이다. 이 점을 인식해서인지, 이 과정과 상황을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하셨다. 또한, 지식이나 학력과 무관하게 예술작품을 대하는 분위기를 부러워하신 것 같다.

남인숙 • 미술은 독자적이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보편적인 가치를 갖게 된다. 예술이야말로 로컬리즘(Localism)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인으로서 대구에서 활동하시면서, 대구 미술의 국제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다. 미흡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상당하다면 어떤 측면이 상당한 것인지?

최병소 • 대구 <35/128> 전시 당시, 황현욱은 내 작품 앞에서 그냥 아무 말도 못 하고 띵-, 멍- 했다. 돌에 고무줄 묶어서 작업한 작가, 그 작가가 내게 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고, 이강소가 내게 와서 같이 개인전 하자고 해서 함께 전시도 하게 됐다. (내가) 현대미술을 하기 때문에, 현대미술에서 이 강소와 나 두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서, 그다음에는 작가들이 나오지 않았다. 미술을 하려면 미술을 버려야 된다! 미술을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현대미술을 하느냐. 현대미술이 무엇인지 묻지를 않는 거다.

'작가'가 등장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대구 미술계의 현재와 국제적인 위상에 대해 아쉬운 여운을 남기시며 답을 대신하셨다.

남인숙 • 미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시가 개최되어야 하고, 좋은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작품에 대한 전문적인 평론과 홍보의 조직력이 따라야 한다. 선생님의 전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와 아쉬웠던 전시는 언제였는지? 그 이유도 궁금하다.

최병소 • 1990년대는 작업을 많이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그런대로 시공 갤러리를 통해 전시를 했다. 시공 갤러리 이태 선생이 작품을 가져갔다. 전시 관련해서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 뉴욕의 드로잉센터에서 내 전시를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과 상의를 했다. 그 사람은 시시하게 여기더라. 후일 뉴욕에서 활동하시는 이상남 선생한테 드로잉센터에 작품을 보내는 것에 대해 물었다. 과거에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이상남 선생이 바로 뉴욕 같이 가자고 했다. (웃음과 탄식)

남인숙 • 신문지와 행위(신체)가 선생님의 작업 재료다. 이는 일상적인 재료인데, 재료 면에서 볼 때 선생님의 작업은 대중사회, 산업사회의 한복판에서 태어난 '시대의 산물'이다.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어 빠르게 확산, 성장하는 오늘날에는 '신문지' 자체가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선생님 작업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

최병소 • … (시대가) 바뀔 때가 됐다. (침묵의 잔상). 김영진 선생이 사진 찍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김 선생은 언제 찍는지도 모르게 사진을 찍는데, 그게 아주 좋다. 작품이 좀 지워지면 어떤가. 그게 좋은 거다. 박두영 작품 좋다. 박기원, 이강소도 좋고, 김구림도 좋다.

작가가 계속 거명되다 이야기는 샛길로 샌다. 작업 전망에 대한 질문이 애초에 우문(愚問)이었기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좋아하는 점을 현답(賢答)으로 대신한다.

남인숙 • 미술관, 갤러리, 미술 시장 등 많은 제도가 정착되어 어느 때보다 미술계가 활기를 띠고 있다. 미술계의 호황을 작업 환경이 좋아진 것이라 평가할 수 있을까? 2022년은 영국 아트페어인 프리즈(Freeze)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프리즈와 같은 국제행사가 대구 미술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선생님의 전망을 듣고 싶다.

최병소 • (미술은) 그냥 하는 거다. 작업은 그냥 꾸준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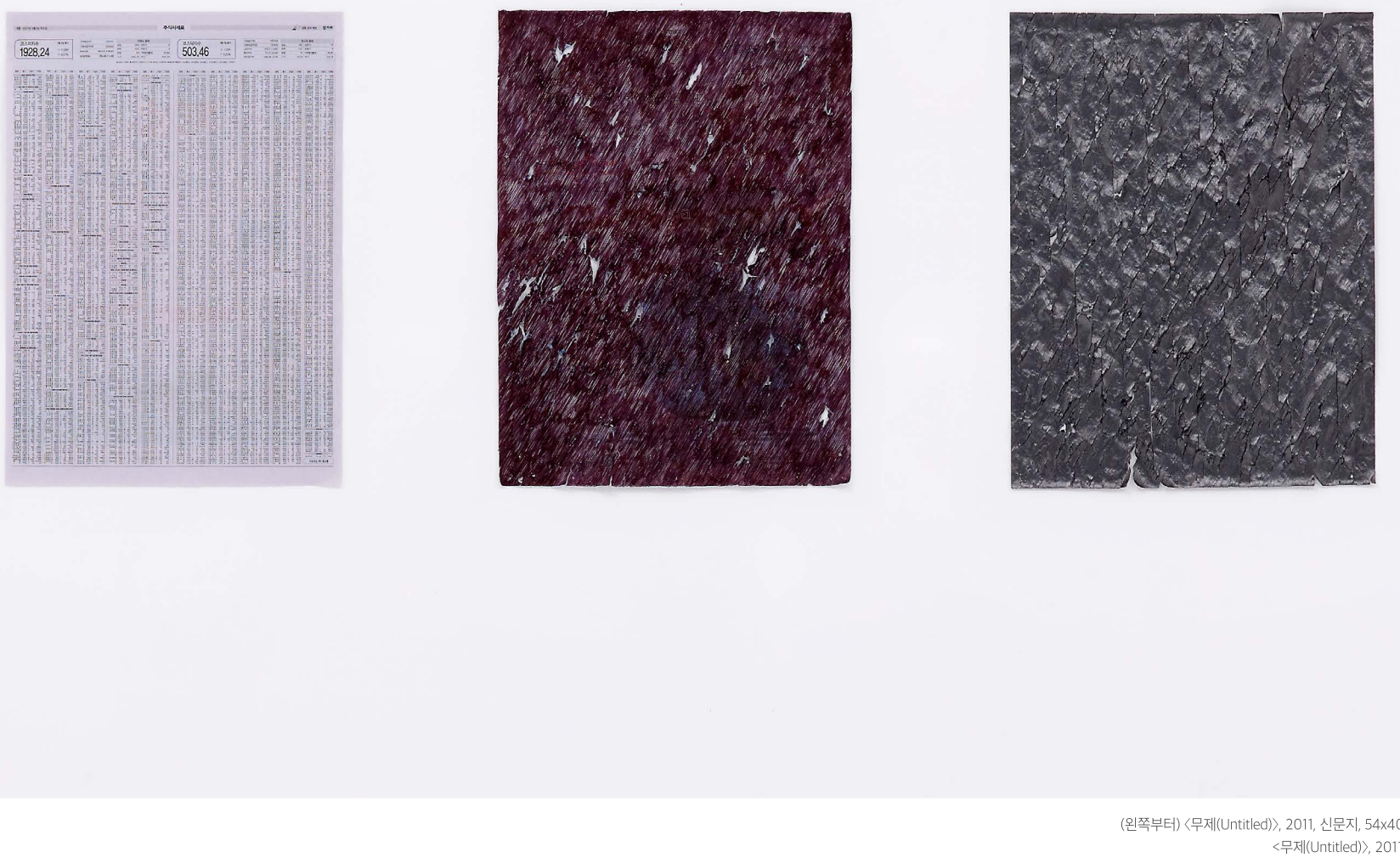
남인숙 • 2022년 전시 계획은? 변화된 환경이나 태도에 대해, 작가의 길을 걷게 될 후배들, 제자들에게 한 말씀 해달라. 작품을 감상하거나 소장할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

최병소 • 올해 3월에 우손 갤러리에서 전시가 있다. 현대미술을 하는 것은 미술을 버려야 한다.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다. 이 시인은 시를 쓰고 싶어서 쓴 것이라기보다 시를 쓸 수밖에 없어서 시를 쓴다. 한하운처럼 작가는 작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뭐가 있어야 한다. 되든지 안 되든지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작업하는 것이다.

끝나갈 무렵 작업실로 화제가 옮겨갔다. 선생님의 작업실을 이야기로 이렇게도 지어보고 저렇게도 지어보다 보니, 선생님은 하나하나 소품까지 직접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신다. 도널드 저드(Donald Clarence Judd)의 '소호 101 스프링 스트리트(101 Spring Street)'처럼 선생님 작품 같은 건물에서 작품도 보고 한담도 하는 상상을 한다. 그냥 꾸준히 작업하는 일, 작가가 되려는 결단, 미술이 무엇인지 묻는 일 등의 기본기가 언제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작업실을 나왔다. 선생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주십사 여쭈니, 남선생이 꿈을 실현해달라고 하시며 웃으신다. 다음에는 구겐하임(Guggenheim)이나 테이트모던(Tate Modern)에서 선생님의 전시를 보고 싶다.

사진 4. 최병소 작가, 류향하(최병소 부인) 여사와 함께(출처=필자 제공)

이 글은 대구미술관 소장 작가 아카이빙 관련
필자의 졸고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왼쪽부터) <무제(Untitled)>, 2011, 신문지, 54x40cm / <무제(Untitled)>, 2011, 신문지에 볼펜, 54x40cm / <무제(Untitled)>, 2011, 신문지에 볼펜, 연필, 54x40cm(출처=최병소 작가 제공)

2-2

누군가 부르는 당신의 이름 앞에

대구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

장현희(장댄스프로젝트 대표)

 # 이름

사람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

시간이 지나며 이름이 갖는 무게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삶을 대하고 살아왔는지를 증명한다. **예술을 하고 예술가라 말하는 사람에게 이름은 시간을 거듭하며 숭고하게 지켜낸 '가치' 그 자체이다.**

예술가의 가치 있는 이름은 갖고 싶다고 절로 가져지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의 사유는 정직한 시간의 흐름에서 얼마나 예술에 진솔했는지에 따라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이 또한 모든 예술가에 해당하는 건 아닌 듯하다. 그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의 설정과 인과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밝혀야 한다. 그걸 이뤄낸 사람만이 사회 속에서 '예술가'의 이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 예술가의 삶은 놓이고 그 연속선상에 예술가의 작업이 있다.

'장현희'라는 이름으로 '장댄스프로젝트' 단체를 이끌기 시작한 것은 2002년 초이다. 대구시립무용단 무용수로 활동하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전문사 과정에 진학하면서부터였다. 초기 작업의 무대는 서울과 해외가 중심이었다. 2003년 제5회 <한국안무가페스티벌>에서 작품 <때로는(Sometimes)...>으로 '은상'을 수상하면서 안무에 대한 자신감과 무게를 동시에 얻게 될 즈음 스위스에서 지원하는 국제 안무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다. 6회 <스위스 국제 코칭프로젝트(SIWIC)>에서 '파이널 한국 안무가'로 선정되었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졸업 후에는 대구로 옮겨왔다. 2004년 사회구조 속 인간관계로부터 형성된 인간의 내적 세계를 담아낸 작품 <피할 수 없는...>으로 제14회 <대구무용제>와 제13회 <전국무용제>에서 각각 '대상'과 '은상'을 수상하였다. 그렇게 대구를 중심으로 스스로의 한계를 넘으면서 또 다른 개념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고, 지난 2015년에는 '대구예술상' 수상이라는 영광도 주어졌다.

사회, 예술, 인간, 구조, 분열, 심리 등에 관한 나의 시선들을 계속해서 연결하고 결합하며 본질적인 질문을 무대 위에서 계속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 이름으로 대변된 일상의 익숙함을 환기하는 작품 <Your Name>, 나와 내 아버지의 이야기 속에서 탄생한 <Boys, don't cry! - 아버지의 이름으로>를 통해 실체보다는 껍데기만 가득한 현실 그리고 이 현실이 강요하는 기준들을 말했다.

인간 존엄과 삶에 대한 고민을 기저로 사회의 단편들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닭:쳐 - 소음>, 진실의 왜곡, 침묵과 외면이 낳은 사회 부조리를 그린 <이것에 대하여> 등 끊임없이 춤의 기능과 역할을 고민했다. 그리고 춤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상들을 들여다보고자 했다. 현대사회 속 모든 이면의 경계를 허물어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사진 1. 〈Boys, don't cry! -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간의 삶 앞에 놓인 많은 기준들이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작품. 아버지의 큰 외투를 활용한 다채로운 움직임이 특징이다. 공연 평론지 『공연과 리뷰』가 주최한 2016 <PAF 예술상>에서 '안무상'을 수상했다.(출처=필자 제공)

장현희

예술세계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는 제한이 없다. 한국 전통 움직임을 소재로 풀어낸 컨템퍼러리(Contemporary) 댄스를 통해 상충하는 의미의 모호함을 깨뜨리고자 했다. 사회구조와 현상에 대한 인간 감정과 표출되지 않은 내적 감정의 승화를 보여준 <곡(哭)-선>, 시대를 마주하고 살아가는 존재의 내적 갈등을 따라가며 풀어낸 <이윽고(In time), 시간 속)>과 갈등의 질문 너머 그 속에서 존재를 증명하는 <이윽고(In time), 존재하는>까지 작품에서 파생된 조각들은 내면세계를 유영하며 새로운 '몸의 언어'를 계속 끌어냈다. 움직임을 해체하고 여러 장르, 사고들과 융합을 거듭하며 정형화된 것들로부터 탈피해 그 이상의 춤적 의미를 만들어 왔다.

'장현희'라는 이름 앞에 '예술가'라는 이름의 숭고한 가치를 증명하고자 20년 넘게 **내적 갈등을 되풀이하며 예술의 미적 의의를 넘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예술 그 깊은 곳에서부터 또 다른 갈증이 생겨났다. 그 갈증은 지금까지 예술과 관련된 학업의 길로 나를 이끌고 있다. 예술대학 박사 과정 후 현재 문화예술 정책과 행정을 공부하며 급변하는 사회에서 예술의 긍정적 가능성에 대한 대답을 찾고 있다.

사진 2. 한국적 움직임과 음악 등을 해체하며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 〈곡(哭)-선〉. 내적 감정으로부터의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 그 고찰을 담았다. '곡'은 애도와 슬픔, 인간의 표출되지 않은 감정 세계를 의미하고 '선'은 삶의 여정을 의미한다.(출처=필자 제공)

누군가 부르는 당신의 이름 앞에
대구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

 # 언어

춤은 몸의 언어이고 예술가란 이름의 여정이다. 앞서 말했듯 오로지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지키고 살아가는 예술가는 긴 시간 성찰을 거듭나며 고귀한 가치를 지닌 채,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삶의 답을 끊임없이 찾는다. 춤은 그런 숭고한 예술가의 여정을 고스란히 몸의 언어로 말한다. 춤은 춤을 추는 몸의 근원, 정신에서 비롯되어 몸짓으로서 보이지 않는 내적 세계를 마주하는 것이다. 말이 아닌 몸의 언어로 소통을 끌어내는 건 참 어렵다. 관점과 이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것이 춤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춤의 핵심이 된다.

이런 문제는 현실에서 예술 환경의 대화와도 닮아있다.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예술 장르 간의 관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그들의 대화법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몸의 언어에 대한 이해 가능성이 달라지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때로는 예술가와 그들의 작업세계는 현실세계의 이해관계 속에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기술들을 요구받는다. 사회적 유대관계의 정도가 예술의 가치로 증명되기도 한다.

예술가가 예술작업과 결과물만으로 그 가치를 증명받기는 어려운 것일까. 온전히 버텨낸 예술가의 성찰이 그 예술가의 이름을 증명할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으로 몸의 언어를 지켜내고 싶다.

 # 환경

예술 환경의 현실에 대해 바라본다.

국가 정권교체 시기마다 예술 환경개선을 위한 대안과 정책들은 무수히 들린다. 그러나 막상 새 정부가 수립되면 뒷전으로 밀렸다가, 한 예술가의 죽음과 같은 일련의 사건사고가 발생해야 수면 위로 드러난다. 그 순간에도 지역의 문화예술계에선 실질적인 논의를 체감하기 어렵다. 아주 먼 이야기 같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의 약점과 민낯을 드러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의 현실이 공론화되면서 「예술인고용보험법」 시행으로 이어졌다. 1년이 지난 지금 피보험자격 취득자 수가 9만 5천 명(12월 2일 기준)을 넘었다고 한다. 지역은 어떠한가. 지역의 예술인들은 얼마나 예술인고용보험제도를 인지하고 있을까. 주위만 하더라도 아직인 듯하다. 대부분 예술인은 예술만 배운 채 현장에 투입되기에 이런 법 제도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행으로 급히 시행되다 보니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많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용보험에 관해 알아보고자 했을 때다. 대구문화재단에서 받은 책자의 전문 상담 연락처로 전화했으나 없는 번호였다. 사무실 이전으로 번호가 바뀌었는데 안내가 안 된 것이다. 수소문 끝에 통화가 연결됐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고, 돌고 돌아 결국 지역 상담사와 연결되었다.

장현희

누군가 부르는 당신의 이름 앞에
대구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

지역에는 대구예술인지원센터가 있다. 예술창작 지원을 비롯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법이나 복지, 권익 문제에 대해 상담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예술가들과 얼마나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는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오는 9월에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관계부처 그리고 예술계의 면밀한 연구와 실효적 역할을 기대해본다.

법률 제정도 좋지만 예술인 대상의 법이나 정책은 예술인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제도적 변화에 예술인 스스로도 관심을 기울이고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예술인을 위한 사회제도는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린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예술인의 '인식'이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예술인은 오랜 시간 준비과정을 거치고 예술계에 데뷔한다. [1]*'예술인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설문조사 결과'에서 무용 분야만 봤을 때 대략 19%가 넘는 인원이 10대에 예술 활동을 시작하여 전문교육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34%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수학했다. 전체 응답한 예술인의 93.4%가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 예술 분야의 교육 수학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1)* 그러나 전문성에 비해 보상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아직도 많은 신진예술가에게 무대 경험이란 이유로 무보수 혹은 차비 정도로 창작의 대가가 책정된다. 무대가 불확실한 프리랜서 활동은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속이 강한 예술계에서는 더욱더 어렵다.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감내하기 어려워 다른 길을 찾거나 그만두면서 신진 예술가들이 사라지고 있다. 고된 예술계를 이끌고 지탱하는 중견 예술가 역시 같은 이유로 그 수가 줄어들고 있다. 이대로라면 예술계는 고령화가 가속화될 뿐이다.

지속적인 인재발굴이 필요하다. 예술계로 진입하는 이들의 성장을 격려하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다각화해야 한다. 그들과 같은 현실 속에서 고민을 들어 줄 무대 위의 어른이 되어주어야 한다. 더욱이 춤은 타 예술 장르에 비해 보다 어린 나이에 입문한다. 확고한 위계질서가 관행적 예의로 자리하며 다소 경직되어 있는 편이다. 우리가 서로 존경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탕으로 세대를 넘어 유연하게 교류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본다.

사회는 계속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당연시되었던 것들도 이제는 의문으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시대의 위기를 인식해야만 한다.

'지금의 예술 환경의 위기는 무엇인가? 특히 대구의 예술 환경은 어떠한가.'

누군가의 인식은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이슈화시킬 수도 있다. 또 올바른 방향으로의 이끄는 힘이 있다. 예술가는 무엇을 해야 하고 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그것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예술 언어로 인식하고 세상 밖으로 꺼내놓자.

지역 커뮤니티일수록 문제는 더 드러나게 된다. 그렇기에 지자체, 각 예술기관과 예술단체는 물론 학계 그리고 예술인들은 커뮤니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노력해야 한다. 현장을 똑바로 바라보고 서로 협의와 논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드러난 인식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선순환의 동력이 될 것이다.

사진 3. 〈이윽고, 시간 속〉. 2020년 <한국춤비평가상>의 '베스트 6 작품'에 선정됐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의 내적 갈등을 개인이 지닌 기억의 깊이를 따라가며 모노톤으로 건조하게 풀어낸 이 작품은 자신을 들여다보았던 자리가 또 하나의 춤의 자리가 되는 춤 증명의 철저함과 검은빛의 감각으로 배치한 구성력이 돋보였다는 평을 받았다.(출처=필자 제공)

사진 4. <이윽고, 존재하는>. 한국춤과 현대춤의 장르 간 춤적 경계와 한국음악과 현대음악의 구분을 넘어 새로운 질감의 움직임으로 인간 내적 세계의 깊이를 마주한 울림의 몸짓을 보여준다.

장현희

누군가 부르는 당신의 이름 앞에
대구에서 예술을 한다는 것

 # 성숙

나의 모든 삶 속에 예술이 스며 있다. 자라며 배운 게 예술이고 그래서 잘하고 싶은 것도, 잘할 수 있는 것도 예술이라 난 아직도 예술을 한다.

'예술을 하고자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과 '먹고 살고자 예술을 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방향에서라도 결국 예술가에게 예술은 '밥'이 된다. 예술은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하는 게 예술이라 결국 먹고사는 수단이 되는 즉, 이상이자 현실이다. 예술가가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예술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한스 애빙(Hans Abbing)의 말처럼 하고자 하는 강한 내적 동기에 의해 예술을 하며, 예술가에게 돈은 목적보다는 단지 생계수단이기 때문이다.

결국, 예술가로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것과 같다. 또한, 그것은 누구도 아닌 예술가 스스로가 인식하고 사회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예측 이전에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넓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큰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지역 예술이 정체되지 않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의 예술가들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예술가라는 이름에 걸맞은 존중과 배려가 있고, 책임 의식을 지닌 성숙한 인간의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보다 나은 예술 환경을 꿈꾼다. 누군가의 예술세계가 어림짐작으로 평가되지 않기를 바라고,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치기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또 예술의 복잡성과 특수성을 무시하거나 예술가의 독창성마저 왜곡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누군가 부르는 당신의 이름 앞에', 이 글은 예술가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숙한 인간의 자세를 갖추고자 하는 나 스스로의 다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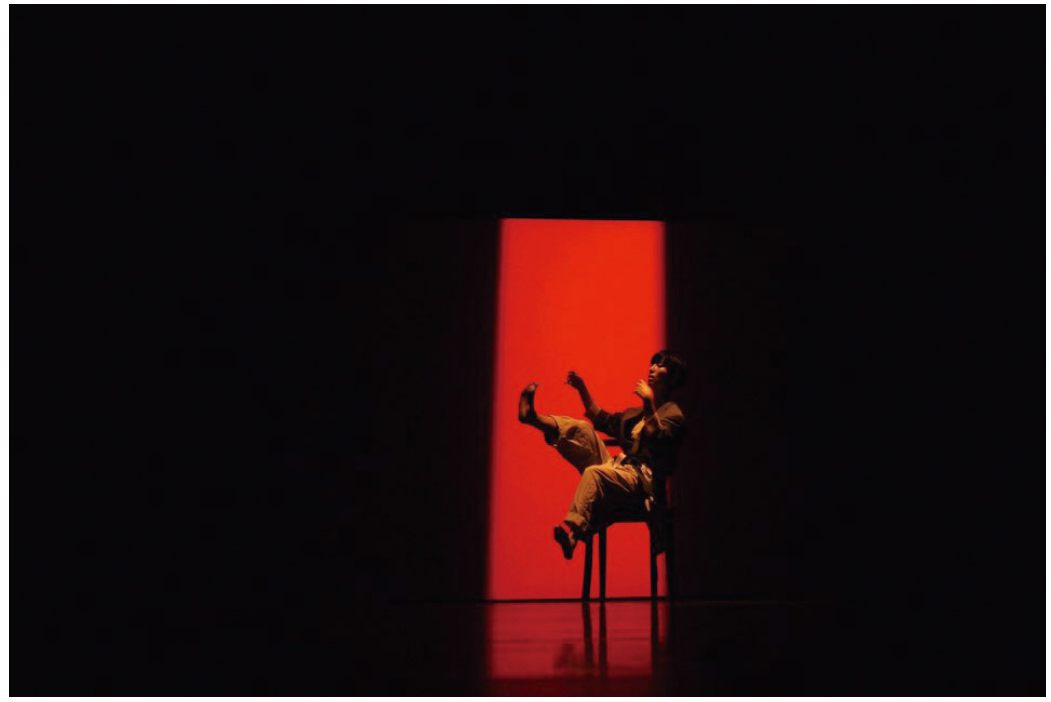


사진 5. 〈낯달〉(2017) (출처=필자 제공)

2-3

대구에서 한국 연극인이라는 시대정신

안민열(연극저항집단 백치들 예술감독·상임연출가)

내년이면 대구에서 연극을 한 지 15년이 되어간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글을 읽고 쓰는 재미만 알던 한 소년이 지금은 관객과 함께 대화를 주고받으며 살고 있다. 나의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이 작업과 만남으로써 갖게 되었다. 그것도 극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말이다. 시간이 흐르고 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이 글을 통해 연극을 하며 살아 온 나의 시간을 사람들에게 공유하고자 한다.

나는 2012년 남구 대명동에서 '백치들'이라는 연극집단을 창단하였다. 대학동문이 동인제(同人制) [1]*모든 단원이 극단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는 운영방식(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집단이 되어 세상의 변방이 아닌 중심, 주체가 되자는 의지로 시작된 연극집단이었다.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하였다.

"대구에서 연극을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반신반의. 당시에도 꿈을 이루기 위해선 수도권(특히 서울)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다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잘한 선택이라는 대답도 거의 없었다.

왜 우리는 지역에서 연극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걱정과 우려를 받아야 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

사진 1. 공연 전 최종 리허설을 점검하는 안민열 연출(출처=필자 제공)

연극을 사랑하고 원하는 이들이 삶을 멋지게 살기 위해 한 선택에 왜 다시 생각하라는 조언을 들어야 하는지. 그것이 과연 현실이라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차마 간과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를 심도 깊게 들여다보게 된 계기가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몇 가지 생각으로 정리되었다.

첫 번째, 그것은 현실이 맞았다.

대부분의 20대 연극인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서울에서 활동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신인 배우, 연출, 극작가들을 보기가 어려웠고 늘 소수의 남아있는 연극인들이 자리를 메우기 바빴다.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곳은 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일까?

두 번째, 무대에 오르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젊은 연극인들은 전문 예술인으로서 훈련받을 수 있는 시간을 얻길 원한다. 연기, 극작, 연출, 기술 등 자신이 원하는 영역의 테크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 말이다. 이른바, '인큐베이팅 시스템'은 사회에 갓 진입하는 이들이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귀한 경험이 된다.

다음은 고전, 창작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양식의 무대 제작이다. 이는 앞서 말한 경험의 연장선에 있는데, 국내외 희곡 중심의 작업을 포함해 비언어적 연극, 서사성이 강한 다큐멘터리, 시를 기반으로 한 시극과 같은 무대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공연 문법을 직접 소화하는 순간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가

'실험'이라 부르는, 새로운 스타일의 무대를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젊은 연극인들 간의 네트워킹 구축의 부재이다.

현장에서 만난 동료 연극인들은 서로의 행위를 보고 자극받길 원한다. 단순히 일상에서 만나 이야기할 순 있어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 이상이 될 순 없다. 그들에게 만남의 본질은 현장에 있다. 타인의 연기나 글, 색깔, 빛들을 극장에서 목격하고, 공연이 끝난 뒤 우리가 겪은 시간에 관해 토론하며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런 시간은 우리의 존재를 발전시킬 창조적인 담론의 장이 되고, 나아가 지역 발전의 도화선이 된다. 그러나 젊은 연극인의 출현과 수요가 적은 당시는 이런 네트워크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소수의 연극인이 움직임을 갖고 만남을 도모했지만(극단 플레이리스트가 개최한 연극제 '격'과 같은) 민간에서 주도하기란 어려움이 많았다.

위의 문제의식을 발견한 뒤, 결정을 내렸다.

"대구에서 연극을 하자."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방안은 무엇일까?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나름의 해결책을 정리했다.

젊은 연극인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하면 된다. 인큐베이팅이 부족하다면 환경을 개선하고 신설하면 된다. 네트워킹이 없다면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해 씬(Scene)을 풍성하게 만들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위험하다면 위험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2012년 여름. "연극으로 세상을 저항한다."라는 가치관을 갖고 6명의 동료연극인과 함께 '백치들'은 극단을 창단하게 된다. 여기에서 '저항'은 특수한 대상이 있지 않다. 사회 속의 인간으로서 내 존재를 타인에게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 마주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모든 타자 앞에 당당히 주체가 되기 위해선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이는 정신적인 가치관과 태도, 의식을 포함하고 자신의 꿈과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강인한 마음을 의미한다. 그렇게 정(正)의 반대인 반(反)에서 출발해 정을 만나 합(合)에 이르는 조화로움을 상징한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보다 나은 세상에 참여하기 위한 여정'을 이루기 위해 연극을 수단으로 사용한 인간들 즉, '연극하는 인간'이 바로 백치들인 것이다.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백치들이 백치들 다우려면 어떤 연극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했다. 그래서 다양한 양식의 공연을 제작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번역극에서 극작의 현대성을 공부하고, 표현의 확장을 실험적 형태로 꾸며보고, 경험이 쌓일 때마다 국내 작가와의 협업을 기획해 창작극을 선보였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타 장르 아티스트를 만나 무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색을 칠해보았다. 현대음악, 현대미술, 마임, 시 등이 우리 무대에 주요한 역할을 해주었다. 이렇게 하나씩 방식을 찾아가면서 비로소 우리만의 고유한 스타일을 구축하였다.

작품이 무르익어갈 때 즈음, 더 많은 관객을 만나고 싶어졌다. 예전부터 줄곧 품었던 다짐은 '한곳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서 젊은 연극인들이 참가할 수 있는 경연부문에 출품하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 존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백치들 연극의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론이었다. 많은 부족함이 있음에도, 우리의 절박함이 객석에 닿았는지 조금씩 소정의 결실을 맺는 데 성공했다. 2016년 <밀양여름공연예술축제> 젊은 연출가전 '작품상', 2017년 <대한민국연극대상> '한국연극 베스트작품상'을 수상해 백치들이라는 연극집단이 대구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프란츠 카프카의 대표작 「변신」을 현대화한 <변신:호모 그레고리아> [2]*이 작품은 2018년 행복북구문화재단 어울아트센터에서 초연을 발표했다. 그래서 이 글을 쓰는 지금 그 의미가 더욱 각별히 다가온다.*로 <밀양공연예술축제>와 <대한민국연극제 네트워킹페스티벌>에서 '대상'과 '연출상'을 수상하는 감격스런 순간을 맞이했다.

백치들은 2022년, 올해로 창단 10주년이 되었다. 지역에서 연극을 하고자 선택한 이후, 우리가 걸어온 시간이 참 쉽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럼에도 여전히 지금 이곳에서 관객을 만나는 이유는 처음과 다르지 않다. 우리의 연극으로 인해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나아가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재인식하며 이왕이면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해서다. 이 생각이 변치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최근 몇 년이 무척이나 안타깝다. 많은 분이 마스크를 낀 채 살아가야 하는 현실말이다. 거리와 극장에서 관객을 만날 수가 없는 시대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타인을 의심하고, 나와 가족, 친구의 안전을 걱정하며

사진 2. 2020년 지역최초로 밀양공연예술축제 차세대연출가전에서 신진상(대상)을 수상했다. (출처=필자 제공)

사진 3. 공연 중인 <변신:호모 그레고리아> (김세한 극본, 안민열 연출)(출처=필자 제공)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이 예술가라는 내 존재가 이러한 세상에 유효한지 잣대를 드리운다.

최근 연극계 거장이신 배우 오영수 선생님의 골든 글로브 [3]*할리우드외신기자협회(Hollywood Foreign Press Association)가 주관하여 영화와 TV분야의 작품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 남우조연상 수상 소식이 들려왔다. 나는 오 선생님의 수상소감이 참 인상 깊었다.

"수상소식을 듣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괜찮은 놈이야라고 말하고 싶어."

참 선생님다운 말씀인 듯하다. 한국사회에서 연극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아버지 세대의 선배 연극인 시절은 더했을 것이다. 시대가 발전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대한민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다. 하지만, 연극 예술가들은 여전히 아날로그 형식과 정서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 보니 '시대에 뒤떨어진', '퇴보한' 등의 이미지가 따라붙기 십상이다. 그런 와중에 격변의 시간을 보낸 한 연극인의 한마디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놈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위로가 갑자기 내면에 들어왔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닌 우리 속의 세계이다."

바로 이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쫓기보다 우리 자체가 그것이 되는 것. 무언가에 휘둘리거나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방식으로 조용히 또 견고히 행동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처음 연극을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이었고, 앞으로도 가져야 할 가치관이었다. 연극은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행위이다. 디지털과 첨단 과학의 포화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유일무이한 무기이자 본질로 여겨야 한다. 연극이 기술의 양적 확대 속에서도 이천 년간 실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 말하고, 노래하며, 감정과 느낌을 드러내 한 공간에 있는 모든 이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과 비판을 반복하며, 현재의 나를 재발견해 미래의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술이며, '연극'인 것이다. 우리는 결코 이 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정신을 고민해야 한다. 어떠한 특정 세계나 직업을 전제하지 않는, 인간 그 자체로서 사유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수단이 중요하다. 나에게는 그것이 바로 '연극'이다. 우리는 존재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결국 하나의 관통선에 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놓여 있는가?"

나는 연극을 통해 계속 질문과 답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대를 고민할 수 있다면 좋겠다. 내가 속한 공동체 즉, 사회 속에 놓인 인간으로서의 나. 나로 인해 시대의 변혁이 낙관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자기 선택의 확신은 커지게 된다. 지난 15년간 연극 작업을 하며 얻은 경험을 볼 때 나의 선택에는 확신이 있다. 현존하는 시대, 내가 있는 곳이 대구인 동시에 한국이며 나아가 동시대의 지구촌에 대해 한 걸음 한 걸음 진실을 추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모두 예술가가 될 수 있고, 정치가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연극인이기 이전에 시민이자 인간으로서 가질 책무가 아닐까.

그래서 나와 백치들에게 대구는 특별하다. 우리가 연극하는 터전이자, 기지(基地)가 있는 곳이다. 동시에 우리의 연극이 처음으로 탄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부족한 모습이지만 날 것 그대로의 순간을 관객에게 선사하고, 그들에게 받은 인상과 비판을 수렴해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해 나아간다. 내가 연극을 시작한 15년 전과 지금은 젊은 연극인의 출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나의 기지인 '창작스튜디오 쿤스트'가 있는 대명공연거리가 존재하며, 젊은 대구 연극인들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대구젊은연극동력회'가 있다. 이 밖에도 수도권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창작벨트와 하드웨어가 있는 곳이 이곳, '대구'다.

15년이 지난 지금의 이곳은 15년 전의 내가 믿었던 변화가 실현된 곳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할 수가 없다. 한 명의 관객이라도 더 만나기 위한 도전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 신진, 기성 연극인의 구분 없이 지역 연극계의 부흥을 위한 유연한 응집력이 요구되는 때이기도 하다.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협력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창작과 기획, 후원의 교두보는 늘 연결되어야 공연예술은 순환될 수 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 없겠지만 그렇기에 지금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한다.

연극은 극장에서 한순간에 펼쳐지는 시간이다.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순간, 찬란한 순간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시간을 기억해주길 바란다. 그때는 자연스레 지역 연극인이 아닌 한국 연극인으로서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사진 4. <030218대구지하철화재참사를 위한 서곡>이 끝난 후 동료들과 단체촬영(출처=필자 제공)

2-4

젊은 소리꾼의 짧은 회고

권가연(소리꾼)

"저는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전수 장학생 권가연입니다."

누군가에게 나 자신을 소개할 때 하는 말이다. 어릴 적에 피아노 선생님께서 동요를 가르쳐 주셨고 나는 그것이 좋았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친구와 함께 노래 부르는 것이 행복했다. 그리고 누구나 겪는 진로 문제로 고민할 때도 나의 답은 '노래'였다. 중학생이었을 때 접한 '진도아리랑'은 나를 국악으로 이끌었고, 자연스럽게 한국 전통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판소리'라는 장르를 나의 미래로 선택하게 되었다.

사진 1. 꿈꾸는씨어터 국악상설기획 풍류열전 선정작 <흥보歌 좋~다!>, 젊은 소리패 도화 팀원들과 (왼쪽 세 번째)(출처=필자 제공)

대구의 소리판에 대하여

대구에서 판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1992년으로(故 모정 이명희 명창)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다. 우리나라에서 판소리가 무형문화재로 인정을 받고 처음 등록된 것이 1964년이므로, 대구의 소리꾼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치를 인정받은 셈이다. 전국에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명예 보유자를 포함해서 12명, 시도무형문화재는 20명이 있다. 그중 현재 대구의 판소리 무형문화재는 1명으로 나의 스승이신 주운숙 선생이다. [1]*문화재청 홈페이지 2022년 1월 기준*

판소리는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전승되어왔다. 영화 제목이기도 한 서편제 소리는 동명의 소설이나 미디어를 통해 그나마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졌다. 그러나 대구에서 판소리는 아직도 생소한 장르다. 나의 스승님께서는 판소리의 고장이라 불리는 남원에서 태어났지만, 대구에서 판소리 일가를 이루셨다. 당신의 동료들은 다른 지역에서 먼저 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충분히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명창임에도 동료들보다 늦게 실력을 인정받았다. 20년도 더 된 기억이지만, 선생께서는 "전라도를 갔더라면..."이라고 말씀하셨었다. 전통음악과 전공자를 인정해주는 지역문화 속에서 안정적으로 판소리를 하실 기회가 여럿 있었지만, 그때마다 대구에 남아 있을 제자들 생각에 떠나지 못하셨다고 한다.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대구의 소리판에 대한 아쉬움을 종종 느낄 때가 많다. 홀로 대구에서 판소리를 전하고자 고군분투했을 선생님은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고독한 길을 걸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대구가 전혀 국악의 불모지였던 것은 아니다. 대구는 조선 말기 경상감영에서 나라님 앞에서 소리를 하는 '어전명창'을 뽑는 전국경연대회를 열었을 만큼 판소리가 흥행했던 도시다. 하지만 현재의 대구는 판소리를 꽃피우던 그 시절만큼 소리판이 잘 열리지 않는다. 판소리 공연문화가 정체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지역에서 활동하는 소리꾼의 수가 적다. 그러다 보니 판소리 공연은 부족하고, 당연히 지역의 관객들은 판소리를 접하는 경험이 드물 수밖에 없다. 이런 정체가 반복되면서 지역 판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게 된 것이다.

판소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해가 2003년으로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다. 대구에도 대구시립국악단, 대구학생국악단을 비롯하여 지역 주요 대학인 경북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국악과, 또 수

많은 국악학원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대구에는 국악이라는 우리 음악의 가치를 간과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나에게 대구는 지금의 선생을 만나게 해주었고 본격적으로 판소리를 배울 수 있게 해준 곳이다. 소리를 가볍게 시작했었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선생을 만나며 좀 더 깊은 소리의 세계에 빠져들 수 있었다.

작은 방 한 칸에서 대구시무형문화재 제8호 호은 주운숙 판소리보존회는 시작했다. 세월이 쌓여 많은 제자들이 뒤를 잇고 제자가 또 제자를 양성하면서 판소리보존회의 규모도 점점 커져 영향력을 넓게 펼치고 있다. 대구의 젊은 소리패 '도화'는 나를 포함한 주운숙 선생의 제자들이 결성하였다. 옛 소리판을 그대로 재현해 보자는 취지로 만든 판소리 버스킹 <4인 4색>을 비롯하여 다양한 무대를 열어 판소리로 대구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려 힘쓰고 있다. 무엇보다 판소리에서는 추임새가 중요한 부분인데, 현장의 참여도에 따라 공연 분위기가 좌우될 만큼 관객의 역할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관객과 진솔하게 호흡을 나누는 무대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층계가 쌓이고 꾸준한 공연 활동을 이어오면서 대구에서도 판소리 마니아층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지금도 선생과 제자들은 대구에서 판소리를 알리는 길에 함께 서 있다.

기회의 도시, 대구

국악의 불모지로 여겨지는 대구는 오히려 나에게 특별한 기회들을 내어 주었다. 어릴 적 마산에 살던 나는 영남대학교 국악과로 진학하며 대구에서 공부하고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대구는 판소리를 전공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젊은 소리꾼'이라는 이미지를 선물해 준 도시이다.

판소리가 우리의 옛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소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다.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싶어서 지원했던 해외 자원봉사는 나의 첫 해외 방문 기회가 되었고, 롯데리아 글로벌 원정대로 활동하며 우수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전국에서 단 64명만 선발하는 김좌진 장군 기념회 역사대장정에서 최종합격하기도 했다. (비록 일정상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또한, 전공학문 연계 사회봉사 프로그램 공모에도 선정되는 등 대학생으로 누릴 수 있는 대외활동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졸업 후에도 대구예술발전소 입주 작가로서 활동 공간을 지원받고, 지난 2015년에는 구미시립무용단 정기 공연에 도창(導唱) [2]*노래를 바르게 이끌어 나가도록 인도하는 일을 맡은 악인(樂人)* 소리꾼으로 참여하였으며 프랑스 <K-vox 한국 소리 페스티벌>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무대에 오르는 벅찬 경험의 순간들도 있었다.

아마 내가 판소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매 순간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리를 하고 있다.

사진 2. 2017년 여름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 파리에서 판소리 강습 수강생들과 함께(출처=필자 제공)

예술과 현실 사이

얼마 전 대학 후배를 만났다. 후배는 내가 그의 나이 때 했던 고민과 같은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청년들의 가장 큰 걱정은 '취업'일 것이다. 그렇기에 4학년쯤 되면 그동안 관심 없었던 선배들의 행보가 궁금해지곤 한다. 이 후배가 나를 찾아온 것처럼 말이다.

내가 졸업할 당시 대부분의 선배들은 국악 예술강사로 진로를 정했고, 몇몇은 대학원에 진학해 학업을 이어가거나, 예술단체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 당시 나는 학사와 석사를 5년 동안 이어 공부하는 연계과정을 밟고 있었다. 다만 아래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동생들이 둘이나 있어 온전히 혼자 힘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학교 조교와 예술 강사, 그리고 학업을 병행했다. 녹록지 않았던 시간이었다. 여기저기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수업을 위해 수 시간을 버스를 갈아타며 오가다 보면 풀죽은 시금치처럼 녹다운되곤 했다. 그렇다고 공부를 미룬다면 더욱 뒤처질 수밖에 없기에 차마 놓을 순 없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수료했지만, 결국 내가 공부했던 바를 정리하는 논문은 쓰지 못했다. 아마도 그때가 기로의 선 순간이었던 것 같다. 힘에 겨운 나날에다 당장 전공을 살려 업을 삼기엔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했다. 더욱이 '대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항상 따랐다. 남들보다 늦게 소릿길에 입문하여 수련이 부족하단 생각에 박사과정까지 진학하긴 했지만, 단시간에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분야가 아니기에 중도 포기를 다짐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끝까지 나를 잡아준 선생과 선배들이 있어 이 길

을 이어올 수 있었다. 그렇게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고서는 판소리를 가르치고 간간이 무대에 서면서 지냈다. 분명 사회활동도 공연도 모두 다녔지만 스스로를 '예술가'라 차마 정의하지 못했다. 나의 모든 주된 행위가 예술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순수한 예술적 사유에 더 집중하고 싶은 마음과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은 아마 예술을 전공하는 대부분의 청년들이 갖는 고민일 것이다.

사진 3. <권가연의 첫 번째 소리판> 완창 판소리 '동초제 심청가' 1부 중 (출처=필자 제공)

사진 4. <권가연의 첫 번째 소리판> 완창 판소리 '동초제 심청가' 2부 중 (출처=필자 제공)

나와 같은 프리랜서들은 무언가를 시작하고 끝을 내는 과정을 반복한다. 작품을 시작하면 그곳에 푹 빠져 살다가 끝이 나면 다시 빠져들 곳을 찾아 헤맨다. 매년 겨울만 돌아오면 내년에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을까? 밥벌이는 할 수 있을까? 불확실의 물음표가 따른다. 더욱이 지난해는 코로나19까지 가세하여 예술계는 꽁꽁 얼어붙었다. 세상이 야속했다. 공연은 계속하고 싶고, 그렇다고 공부를 그만둘 수도 없고, 더욱이 수입도 충분하지 못했다. 이 쳇바퀴 같은 굴레를 평생 못 벗어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들이 나를 감쌌다. 이맘때 다른 이들보다 더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이 우리 예술인들이 아닐까 싶다.

예술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인정'이다.

대구문화재단에서는 지역의 차세대 예술 인력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 현장 진입을 독려하는 '청년예술가 육성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지난 2020년, 지원사업의 5기에 선정되었다. 매월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모니터링과 컨설팅 등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홍보자료집을 발간하고 활발한 언론홍보 등을 통해 개개인을 알리는 데 힘써주었다. 이처럼 창작의 고민으로 혼자 끙끙대던 청년들이 체계화된 관리와 지원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나름의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구문화재단 대회의실에서 수료식을 가졌다. 처음 인증서를 받던 2년 전과 지금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딱 떨어지는 지수로 표현할 수 없겠지만 공통된 소감은 있었다.

"기간 동안 어디에서든 청년 예술가로서 당당히 말할 수 있었고, 망망하던 미래를 향해 예술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이다.

혹여나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소리꾼 권가연'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상은 청년 예술가로 지원을 받은 기간이 팬데믹과 맞물리며 더욱 크게 다가왔다. 아직은 덜 단단하고 미숙한 청년들의 예술은, 아마도 현실의 벽을 넘지 못한 채 일상의 안정을 위해 쉽게 무너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회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포기하지 않도록 잡아주고, 끝없는 정체성의 혼란에 용기를 주었다. 앞서 소감이라 했지만, 어쩌면 안도였을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힘이 되었던 것은 공연을 올릴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내가 해냈다는 사실이었다.

청년 예술가로서의 인정받음은 그간의 고민과 갈등을 씻어주고 더욱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사랑, 관심, 응원 모두 다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 예술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인정'이 아닐까. 과거 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인가, 무대에 서는 예술가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지원사업 후로 나는 명확해졌다. 요즘은 강의를 하러 가더라도 나는 소리꾼이고, 미래의 관객과 제자를 만나러 간다고 이야기한다. 나의 직업은 누가 뭐래도 소리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대되는 2022년

나이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서인지 아니면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은 것인지 몰라도 올해는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최근까지만 해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다면, 현재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수입이 많아진 것도, 공부를 그만둔 것도 아니고 안정적인 직장이 생긴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 나는 평온한 상태이다. 쳇바퀴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달리다 보면 마치 무슨 수가 날 것만 같다. 과거의 내가 현재의 나를 상상할 수 없듯이, 미래의 내가 어떨지 모르기에 지금에 충실하고자 한다. 이미 나는 많은 변화의 시간을 지나왔고 그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그로 인해 앞으로 나의 모습이 더 기대되고 설레는 중이다.

생각해보면 수와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너무 욕심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다. 인생은 나 자신의 것이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데 남들과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힘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완벽한 예술가가 되려고 애쓰거나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충분히 멋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말해주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나를 다독인다. 내가 만족하고 즐길 수 있어야 듣는 이들 역시 편하게 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인정하고 나의 중심을 잡은 채 내는 소리야말로 기쁨이든 슬픔이든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을 테니. 그런 뜻에서 (스스로) '마음을 노래하는 소리꾼 권가연'이라는 표현이 참 좋다.

나의 목표는 판소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준 이곳, 대구에서 대구광역시 무형문화재 제8호 판소리 심청가 전 바탕, 5시간 완창 발표회를 하는 것이다. 대구 시민들의 추임새로 꽉 채워져 울리는 극장의 그날이 그려진다. 반드시 그러기 위해 나는 이수자에서 전승자로 가기 위한 길을 게을리하지 않고, 판소리의 매력을 전하는 데 힘쓰겠다고 다짐한다.

요즘 국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가 부쩍 높아지고 있다. 상상치 못한 매력으로 국악인들은 다채롭게 활동을 펼쳐가고, 한국적인 것을 찾고자 하는 예술계의 움직임으로 국악과의 합작에 관심을 두는 이들이 많아졌다. 오랜 시간 우리의 것을 지켜온 선배님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 같다. 다시금 국악 황금기를 맞이하기 위해선 지금 우리 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대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과거의 나에게 대답을 남긴다. 갈팡질팡하던 나의 발끝에 찰랑거리던 빛은 선배님들이 남긴 것이며, 나 또한 후배들의 길을 비추어 대구에서 국악을 하는 것은 외로운 길이 아님을 알려주겠다고. 그리고 지금의 판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들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주겠다고. 그렇게 나는 이곳에서 판소리, 우리 국악의 황금기를 맞이하고자 한다.

사진 5. 2018 <전통하는 요즘 사람들 트래덜반> 정기공연 중(출처=필자 제공)

2-5

‘찬란한 예술의 기억’이 이어지길

임언미(대구광역시 문화예술 아카이브 팀장, 『대구문화』 편집장)

“계속 『대구문화』 만들어요?”
“예술 아카이브에서 어떤 일을 하나요?”
“『대구문화』와 예술 아카이브를 왜 같이 하죠?”

최근 필자가 지역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에게 종종 듣고 있는 질문이다. 이번 『함지』 원고 청탁도 그 질문과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하고 있는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지면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사진 1. 1985년 12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단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간되어 온 『대구문화』. 지역 문화예술의 흔적을 잘 담아낸 아카이브라 할 수 있다.(출처=필자 제공)

기본에 충실하며 전문 분야를 확장하다.

필자가 대구 문화예술계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2000년이다. 공채 시험에 합격해서 발령을 받은 곳이 대구문화예술회관이었다. 당시 대구문화예술회관은 대구지역에서 하나뿐인 종합문화예술 기관으로, 7개 시립예술단체의 상주처이자, 타 시도 시립미술관 규모의 전시실을 운영하는 곳이었다. 당시는 대구문화예술회관이 오페라하우스이자, 콘서트하우스, 미술관이었다. 문화재단도 없던 시절이었으니, 대구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때였다.

그곳에서 필자에게 주어진 임무는 월간 문화예술 소식지 『대구문화』의 편집 및 발간이었다. 『대구문화』는 문화예술회관뿐만 아니라, 시립예술단, 그리고 시민회관(현 대구콘서트하우스)을 중심으로 지역 내 공연·전시 행사를 취재하거나 소개하고 예술인들의 활동 동향을 소개하는 잡지였다.

막상 현장에 투입되고 나니, 전공(국문학)과 직접 관련 있는 것은 글을 쓴다는 것뿐 기자와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계 현장을 누비며 예술인과 교류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그동안 다 만들어진 무대나 전시를 지켜보는 관객이었다면, 그때부터는 예술가들의 연습 현장과 작업실 가까이에서 호흡하며 그들의 정서를 익혀야 했다. 개인의 이름으로는 들어가기 힘들었을 공간들, 만날 수 없었을 예술인들을 만나고 예술이 펼쳐지는 현장을 다니며, ‘예술’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에 감사하며 참 열심히 다녔다.

때마침 지역 언론사 주필 출신이 대구문화예술회관 관장을 잇달아 맡았던 터라, 만 7년간 매체와 현장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다지며 훈련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었다. 언론인 출신 두 관장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김정길 전 관장님께는 문화잡지를 만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화현장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과 늘 긴장을 놓치지 않고 시대적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홍종흠 전 관장님께는 대구 문화예술 전체를 폭넓고 깊게 바라보는 법을 훈련받았다. 원로 예술인들의 삶과 예술을 심층 취재하는 기획을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다. 1985년 12월 창간호부터 2005년 발행분까지 디지털로 변환시켜서 검색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도 홍 관장님의 제안으로 진행했던 일이었다. 관장님은 『대구문화』가 담아온 콘텐츠가 지역 예술사를 증명할 수 있는 내용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셨던 것 같다.

그 시기 대부분의 결정을 필자에게 맡겨두되, 큰 흐름을 짚어주시는 과정 속에서 개인적으로도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분들의 가르침만큼 큰 사람이 되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갈 힘을 주셨다는 사실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

『대구문화』와 함께 긴 시간 지역 문화예술 현장 속에서 호흡

그리고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역 문화계는 크게 팽창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미술관 등 굵직한 문화시설들이 들어섰고, 대구문화재단을 비롯해 구립 문화재단들도 속속 설립됐다. 지금은 곳곳에 크고 작은 문화공간들이 운영되고 있다. 연간 펼쳐지는 문화행사의 숫자도 서울 다음으로 기록될 정도다.

『대구문화』가 다뤄야 하는 콘텐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문화예술행사 정보’를 안내하는 기본 기능 외에 매호 지역 예술계 현안을 돌아보는 특집을 기획했었는데, 언젠가부터 정보만으로도 지면이 모자랄 지경이 됐다. 새롭게 모든 네트워크를 세팅해야 했다면 쉽지 않았을 작업이었겠지만, 기존의 지면에 새로 생기는 기관들이 하나씩 추가되다 보니 현재의 방대한 지면이 완성될 수 있었다.

현재 『대구문화』는 전체적으로 대구시에서 펼쳐지는 문화예술행사 정보를 게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문화예술정책 환경이 바뀔 때마다 특색 있는 기획으로 지면을 꾸미고 있다. 지역 문화계가 팽창하면서 크고 작은 문화공간·단체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독립영화, 인디, 특화된 문화공간 등 8~9개소는 해당 공간의 전문가를 활용해 통신원으로 두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다.

매해 분야를 달리한 연재코너도 운영하고 있는데, 편집 담당자들이 해낼 수 없는 부분 위주로 원고를 부탁드리고 있다. 『대구문화』 필진은 지역 내 전문가를 우선으로 하되, 내부 전문가를 찾을 수 없거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타지역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있다. 지역 내 현안에 대해서 지역 내 전문가만큼 고민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펼쳐진 여러 사업들, 그리고 다양한 생활문화 관련 정책들이 펼쳐지는 현장을 지켜보면 ‘예술’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넓어지고 다양해졌다는 것을 느낀다. 특정 예술인들이 펼치는 예술행위의 결과물보다 불특정 다수의 경험과 과정에 의미를 둔 여러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공연무대나 전시장이 예술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곳으로 해석되고 있기도 하다. 『대구문화』가 그 영역까지 소화해내기엔 지면 등 여러 여건이 허락하지 않지만, 그런 다양한 흐름도 지켜보고 적절히 지면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대구문화』는 발행처가 ‘대구광역시’이며 ‘대구문화예술행사 정보와 예술인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발간 취지가 분명한 잡지이다. 이 취지를 이어서 오늘을 기록하는 효용성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예술 아카이브 사업의 시작

국가의 문화정책이 바뀔 때마다 대구의 문화예술 현장도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필자는 그 현장의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봐 왔고 또 지켜보고 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지역문화 현장 속에서 생활하며 인맥과 콘텐츠를 쌓을 수 있었다.

2019년에는 대구시의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필자도 개인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기회가 생겼다. 대구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음악 분야로 가입(2017년)하고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입증할 일이 많아졌다. 예술 자료 수집과 보존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대구시 차원에서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2019년 여름, 필자는 오랜 현장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문화예술 아카이브 준비를 위한 조직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 문화예술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다. 막상 시작은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이어지면서 인력과 예산 확보부터 난항을 겪었다. ‘예술 아카이브’라는 용어부터가 막연하고 낯설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시를 비롯해 여러 문화예술 기관과 단체에서 반복해서 비슷한 사업을 시도했던 터라 현장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았다.

아카이브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들이 바로 원로 예술인들과 작고(作故) 예술인들의 유족들이었다. 원로 예술인들에게서 ‘원로’가 함부로 붙일 수 있는 수식어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우리나라의 격동기 현대사를 몸소 겪으며 맨땅에 문화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나간 분들의 감각은 남달랐다. 청년기와 장년기의 활동을 지나 수많은 역경을 지나면서도 예술 활동을 이어온 분들이 다다를 수 있는 지점이 ‘원로’ 예술인이다. 선뜻 도와주시고 자료를 내주신 원로 예술인들이 안 계셨다면, 지금의 예술 아카이브는 존재할 수 없었다.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클래식 음악 운동을 했던 음악가들의 자료, 해방 이후 연극·무용인들의 활동 자료 등 중요한 자료들을 기증받았다. 그 과정에서 이상화 시인이 1930년대 초 독립운동을 함께 한 독립운동가에게 선물한 병풍도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을 수 있었다. 서울에서 컬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대구 출신 기업가의 6·25 전쟁기 문화예술 관련 컬렉션 자료들도 대거 기증받았다.

원로 예술인들의 지지가 큰 힘

일반 기증 자료의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이나 작고 예술인들의 자료는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동차로 자료를 가득가득 직접 싣고 와서 일일이 분류하고 정리해야 했다. 서울 아르코 예술자료원과 국립극장 공연예술박물관 자료관리 시스템을 참고해서 진행했다. 수십 년 운영해 오면서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이미 갖춰진 곳과는 당장 비교할 수 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발 맞추어 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30년대생 원로예술가들의 구술영상 기록화 사업을 마무리했고, 1940년대생 분야별 원로 예술인들의 생애를 영상으로 기록하면서 그들의 소장 자료를 기증받고 있다. 수집한 자료들은 대구예술발전소 3층에 수장고를 마련해서 보존처리 후 수장하고 있다.

지난해 봄에는 대구예술발전소 3층에 '문화예술 아카이브 열린 수장고'도 개관했다. 162㎡의 작은 공간이지만, '예술가의 방', '영상실', '기획전시대', '자료 열람 공간' 등으로 알차게 꾸몄다. 기증받은 자료들을 기획 전시대에서 선보이고 있고, 원로 예술인들의 구술 영상과 과거 예술인들의 공연 영상들을 만날 수 있다.

많은 예술인들이 조성되길 희망하는 '예술 박물관' 혹은 '예술 아카이브 센터'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공간이라 보면 될 것 같다. 현재 예술 아카이브 사업은 '자료 수집과 보존', '문화기관단체 생산 자료 납본 및 통합관리', '원로 예술인 구술 기록화', '수장고와 열린 수장고 운영', '기획전시'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구문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확장된 '대구문화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대구문화』와 대구예총이 발간해 온 『대구예술』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 기관·단체의 활동이 담긴 잡지 위주로 열람 가능한 이북(e-book)형 디지털 아카이브로 운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국가기관 디지털 아카이브 사이트와 연계할 수 있는 형태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구문화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웹사이트

사진 2. 대구 문화예술 아카이브 열린 수장고. 원로 예술인들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로 당시를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는 예술가의 방을 구성해놓았다.(출처=필자 제공)

사진 3. 대구 문화예술 아카이브 열린 수장고(출처=필자 제공)

그 과정에서 문화예술 아카이브 팀은 정식 조직으로 출범했고 필자도 『대구문화』 편집장'에서 '문화예술 아카이브 팀장'으로 직함을 바꿔 달았다.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이라, 학예 전문 인력 확보에서부터 제대로 된 전시 공간 마련까지 풀어가야 할 숙제가 많다.

'찬란한 예술의 기억'이 이어지길

끝으로 왜 『대구문화』와 예술 아카이브를 같이 하느냐에 대한 답이다. 1985년 12월호 창간호를 시작으로 대구광역시, 대구시민회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다시 대구광역시로 발간처를 옮겨오면서 단 한 호의 결호도 없이 발간되어 온 『대구문화』가 담아온 콘텐츠는 대구 예술의 흔적을 잘 담아낸 '아카이브'라 할 수 있다. 실물이나 기관 단체의 기록 자료로 확인할 수 없는 인물 사진이나 예술 활동기록이 『대구문화』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필자도 『대구문화』를 발간하면서 익힌 현장감과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빠른 속도로 예술 아카이브 작업을 해낼 수 있었다.

예술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과거의' 예술기록을 수집하면서, 『대구문화』를 통해 '오늘과 내일의' 아카이브를 축적해 나가고 있다. 현재는 인력 사정상 『대구문화』 발간과 예술 아카이브 작업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조만간 업무분장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는 그동안 지역 예술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저서를 두 권 발간했다. 2012년 펴낸 『대구, 찬란한 예술의 기억』(한티재)은 그간 인터뷰로 만났던 원로 예술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지금 보면 부족한 점이 많은 책이지만, 책에 소개한 예술인 중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 그렇게라도 기록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2021년 초 펴낸 『기억과 공감』(학이사)은 그동안 신문 등 매체에 기고한 글을 묶은 책이다.

첫 번째 책 제목인 '대구, 찬란한 예술의 기억'은 오랜 친구가 작명해 준 것인데, 최근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기고의 타이틀로도 활용하고 있다. 아마 필자가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즐겨 쓰게 될 것 같다. '찬란하다'라는 어휘가 주는 느낌이 꽤 매력적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의 기억을 '찬란하게' 돌아본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가. 대구의 '찬란한 예술의 기억'이, 이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오래오래 빛날 수 있길 기대한다.

사진 4. 『대구문화』 창간호(출처=필자 제공)

2-6

시민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지는 도시 '대구'

이창원 ((사)인디053 대표)

1. 시작하기 :
대구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이창원입니다.

나의 직업은 문화기획자이다. 문화기획이란 일로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변이 없는 한 이 직업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나는 대구에서 나고 자라 지금껏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평생 대구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다.

그렇기에 나의 정체성은 '대구에서 활동하는 문화기획자'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나 자신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정확한 말은 없을 것이다.

문화기획자는 상상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다. 자신의 예술적 상상을 시민들과 나누고 그것을 도시에서 문화적으로 실험하는 것이 주 업무이다. 그런데 상상을 실현할 때 혼자서는 잘 되는 법이 없다. 기획자들이 아무리 무엇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함께 손잡아 주는 예술인과 시민들이 없다면 헛방이다. 이처럼 '문화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그분들 덕분이다.

처음, 원고청탁을 받고선 고민을 많이 했다. 대구에서 문화예술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지. 그러다 이런 결론을 냈다. **'그냥 내가 시민들과 함께했던 것을 쓰자!'** 이 글에서는 그간 진행한 몇몇 일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일들은 모두 시민들이 함께해주지 않았다면 내 머릿속에만 있었을 일이다.

2.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했나?

인디053

내가 일하고 있는 '사단법인 인디053'은 Independent의 약자 'INDIE'와 대구의 지역번호 '053'을 합쳐 만든 이름으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전방위적인 독립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원래는 대구에서 인디음악을 하는 친구들끼리 재밌자고 만든 계모임 같은 곳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붙기도 빠지기도 하더니 어느덧 15년이 흘렀다.

당시에는 동네에서 음악만을 하는 것은 배곯기 딱 좋았다. 그래서 소사 [1]*관청이나 회사, 학교,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하여 고용한 사람.(출처=표준국어대사전)* 처럼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활동하다 보니 하는 일이 잡다하게 많아졌다. 그렇게 여러 독립 문화예술인과 함께 음반 제작부터 공연, 전시, 축제를 비롯하여 공공문화 프로젝트, 마을 만들기, 문화예술 네트워크, 지역문화 정책개발 등 '동네'에서 할 수 있는 문화와 관련된 일은 닥치는 대로 했다. 이렇게 시작한 단체가 꾸역꾸역 버티다 보니 이제는 제법 조직의 꼴도 갖춰나가고 있고, 밥벌이도 되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직도 문화기획이란 것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다. 그래도 굶지는 않겠다는 확신은 생겼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직원들 4대 보험도 들어주고, 주 52시간을 지키면서 제때에 월급 주고 보너스까지 챙겨주는 '일반적인 직장'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거리

(사)인디053에게 거리는 출발이자 끝이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만나고 행복해 하고 싸우고 토라지고 다시 만난다. 거리는 있는 그대로 축제이자 소통의 공간이다.

우리는 거리에서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한다. 거리에서 무언가 하는 것 자체가 실험이기에 도전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나가는 대중들의 시선을 한 번에 사로잡아야 한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거리는 매력적이다.

사진 1. 밴드 '초콜릿팩토리' 공연 사진, 2007년 대구 동성로에서 펼쳐진 <대구독립문화제> 중(출처=필자 제공)

사진 2. 마임이스트 이정훈, 2012년 대구 동성로에서 펼쳐진 <대구독립문화제> 중(출처=필자 제공)

사진 3. 2017년 대구 중앙로 차 없는 거리에서 펼쳐진 <동아시아락페스티벌>(출처=필자 제공)

하지만 거리는 낭만적이지 않다. 대구의 거리는 유럽의 거리가 아니다. 위정자들은 해외 출장 가서 슥 한 번 훑어본 뒤 거리문화를 만들어보겠다고 한다. 가당치도 않은 소리다. 그곳은 물건 하나 더 팔아보겠다고 고함을 치는 상인들과 구걸하는 거지들과 무심히 지나가는 시민들을 힘없이 쳐다보는 시위대들의 공간이다. 치열한 삶의 터전이고 매 순간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공간이다.

(사)인디053은 대구의 거리 곳곳에서 참 다양한 일들을 펼쳤다.

매년 4월 22일 지구의 날에 진행되는 ‘지구를 위한 차없는 거리’ <대구시민생명축제>는 반월당 네거리에서 대구역 네거리까지 1.2km 구간에 24시간 동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웠다.

청년 예술인들의 무대 ‘청춘 마이크’는 상대적으로 기회가 적은 34세 이하의 청년 예술가들이 대중을 가까운 곳에서 직접 만날 수 있도록 거리를 무대로 활용한다. 이외에도 많은 프로젝트가 거리에서 펼쳐지고 있다.

거리에서 예술은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가? 시민들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답도 없는 그 길 위에 예술가와 기획자는 오늘도 서 있다.

김광석다시그리기길

故 김광석은 1964년 대구 대봉동에서 태어나 잠시 살다가 서울로 상경했다.

지난 2010년, 나는 이 사실을 모티브로 대봉동에 있는 방천시장 둑길에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을 기획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문전성시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사)인디053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방천시장에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을 조성했다.

90m로 시작한 벽화길은 400m로 점점 길어졌다. 하루 10명이 채 지나지 않던 거리에는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들었다. 술집이 생기고 카페가 생겨났다. ‘김광석다시그리기길’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가 됐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지난 세월 동안 좋은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기심과 욕심도 함께 몰려들었다. 이 길이 유명해진 만큼 나도, 그리고 (사)인디053도 성장했다. 그만큼 이제 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도 깊어진다.

그럴 때마다 故 김광석 그가 살아 있었다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질문해본다. 그가 만약 살아있었다면 이제 환갑을 목전에 앞둔 원숙한 예술인이 됐을 나이다. 그런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신의 이름을 딴 거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가장 행복할까?

아마 이런 장면이 펼쳐진다면 어떨까? 어느 날 예술인 후배가 그를 찾아와서 “선생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이 길에서 영감을 받고 활동했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예술가로서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예술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기회가 될 수 있는 곳. 시민들이 언제든지 도전하는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그렇게 기능해야 하지 않을까?

해야 할 일이 많다.

故 김광석의 음악이 시대가 변해도 감동을 주듯, ‘김광석다시그리기길’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사진 4, 5. 김광석다시그리길 벽화 작업 모습(출처=필자 제공)

뜻밖의 건물

몇 년 전, (사)인디053은 큰 결심을 했다. 독립적이고 반영구적인 활동공간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부동산 자산 취득’이라는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 만나본 적도 없는 부동산과 금융권 관련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이 도통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던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하나 둘씩 배워가며 만든 공간의 이름이 ‘뜻밖의 건물’이다. 글자 그대로 뜻밖에 생기기도 했으며, 예측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항상 생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

계명대 대명동 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이 건물은 1990년대 후반, 지하에 라이브클럽 ‘소호 락스페이스’가 문을 열면서 지역 음악인들의 아지트 역할을 했다. 이후 1996년부터 남산동에서 시작한 ‘클럽헤비’가 2003년 11월부터 이곳에 자리 잡으면서 대구 인디음악의 핵심 공간으로 성장했다.

현재는 (사)인디053의 사무실을 비롯해 ‘클럽헤비’, 뮤지컬 제작사 ‘브리즈뮤지컬컴퍼니’, 외국인 관광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찹스틱스 와이드’, 대구경북 독립언론 ‘뉴스민’ 등이 함께 입주해 일하고 있다. 아울러 회의실과 녹음 스튜디오를 갖춘 ‘소통공간 뜻밖에’와 옥상정원 등은 공유공간으로 지역주민과 예술인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뜻밖의 건물’은 인디음악, 문화예술, 사회경제, 시민운동, 언론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함께 어우러져 실험적 창작활동이 펼쳐지는 곳이다. 앞으로 시민소통의 장이자 건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3. 끝내기 :
도시는 시민들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이제껏 해왔던 몇몇 일들을 소개했다. 써놓고 보니 그래도 뭐라도 해놓은 것 같아 뿌듯하기도 하다. 그런데 해놓은 일이란 것이 모두 많은 사람의 상상이 더해진 결과다.

“도시는 시민들의 상상력의 산물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도시에 대해서 정의하라 한다면 위와 같은 문장으로 대답할 것이다. 문장에 조사 ‘~의’가 두 번 반복되어 어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멋있는 말 같다. 이 말이 맞다면, **당연히 대구는 대구시민들의 상상력의 산물이어야 한다.** 시민들은 대구란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상상하며 뛰어놀아야 한다. 그리고 대구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상상이 발현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시민들의 상상력이 넘쳐나는 대구, 시민들의 상상력을 품어주고 실현하는 대구.

이런 대구를 꿈꿔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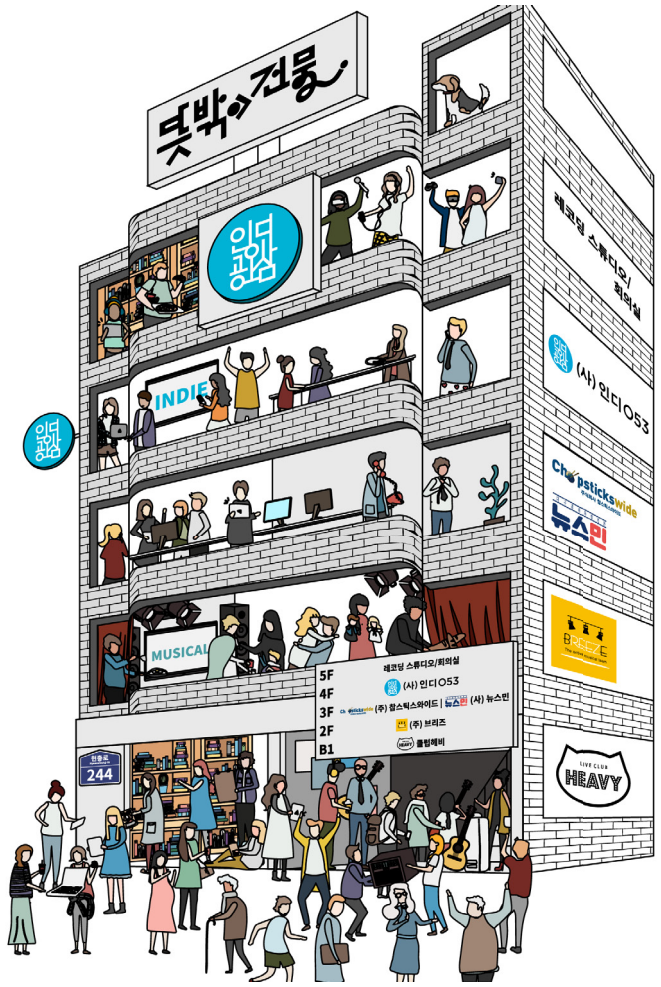


그림 1. (사)인디053이 운영하는 공간, ‘뜻밖의 건물’은 인디음악, 문화예술, 사회경제, 시민운동, 언론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가 함께 어우러져 실험적 창작활동이 펼쳐지는 곳이다.

2-7

대구 현대미술과 함께, 가슴 뛰는 삶...

이우석(대구현대미술가협회 회장)

아이들이 기대하는 초등학교 운동회 날. 그러나 이런 날은 내가 가장 학교 가기 싫었던 날이다. 지금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 내향적인 나는 어린아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소풍조차 부담스러웠고 운동을 정말 멀리했다. 그렇다 보니 누군가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하는 경쟁 자체가 싫었다. 달리기 출발선에 나란히 줄 맞춰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 사이 나는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저 그림 그리는 것이 너무 좋았던 나는 다른 친구들이 뛰든 말든 바닥에 작은 작대기로 그린 나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21년의 끝자락, 북구의 이태원문학관 광장에서 나는 여전히 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현대미술 작가 40명이 모여 바닥에 펼쳐진 기다란 흰 천 위에서 붓질을 하고 있었고, 떠들썩한 그 자리에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다. 50년이 지나 작대기가 붓으로 바뀌었고, 어린 나에게는 정말 괴로웠던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 대신 전자 바이올린의 흥겨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나는 나만의 예술을 하고 있었다. 지나던 행인은 잠시 발길을 멈추고 신기한 듯 예술가들의 행위를 구경하기도 했고 작가들도 조금은 상기된 얼굴로 각자의 작업을 해내고 있었다. 작업하다 고개를 들고 본 광경에 어린아이처럼 가슴이 뜀을 느꼈다.

'아! 내가 살아 있구나. 내가 멋진 동료들과 함께 멋진 일을 하고 있구나.'

가슴이 실로 벅찼다. 이런 벅참을 느낀 것이 얼마 만이던가?

미술은 여러 명이 함께 작업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음악은 합주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이해와 양보가 이루어진다. 화가들은 대부분이 개인 작업실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그렇게 스스로에 빠져들어 집중하다 보면 때론 외로움에 사무치기도 한다. **혹시, 함께하는 것에서 폭발할 것 같은 희열을 느껴본 적 있는가. 나는 작가들과 함께 만나 소통하고 또 협업을 통해 대중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사진 1. 지난 12월에 문화예술거리 이태원길에서 펼쳐진 '범 내려온다' 페인팅 퍼포먼스. 임인년(壬寅年)을 맞이하여 현대미술작가 40여 명이 모여 각자의 예술 관점으로 호랑이를 재해석해 선보였다.(출처=필자 제공)

지난 2021년 11월에는 협회 소속작가들과 대구의 동성로에서 '페인팅 플래시 몹(Flash mob) [1)]*불특정 다수가 정해진 날짜, 시간, 장소에 집결한 뒤 모버레이터(Moberator)의 지시서에 따라 특정행동을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흩어지는 모임이나 행위를 일컫는 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코로나19로 활기를 잃은 대표적 번화가에 찾아온 미술과의 조우는 흥미로운 풍경을 그려냈고, 함께하는 내내 흥분된 작업이었다. 더욱이 참여 작가들이 십시일반 비용을 모으고, 협회원인 영화감독의 협조로 그날의 생생함을 영상으로 남길 수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었다.

최근 들어 영상작업에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영상은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공감을 끌어내기에 탁월하다. 향후 메타버스, NFT와 만나 더더욱 날개를 달 것이라 예상한다. 그런 점에서 기획자이자 예술가로서 영상은 충분히 매력적인 매체이다. 그래서 도전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씩 해보려 한다. 협회원의 이해를 구하는 일 역시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일단 시작하고 본다.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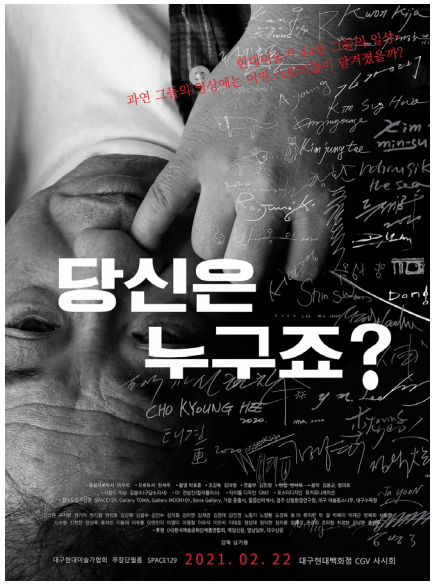


사진 2. 영화 <당신은 누구죠?> 포스터(출처=필자 제공)

영상 이야기를 하나 더 하자면 지난 2021년 2월 선보인 실험적인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영화 <당신은 누구죠?>를 빼놓을 수 없다. 오랜 기획과 준비 끝에 2020년 11월 촬영을 시작하여 기록한 현대미술가 44인의 영화이다. 기획자들과 참여 작가들은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통해 현대미술의 세계를 보여주고 싶었다.

또한, 2021년 12월에도 <4인의 화가들(가칭)>을 크랭크인하여 원로 화가들의 이야기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다큐멘터리로 예술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싶어 두 번째 영화 제작을 결정하였다. 물론 영화를 제작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 모든 것이 난관이다. 제작비 문제부터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지만 그런데도 지금이 아니면 앞으로도 어렵겠단 생각에 하나하나씩 풀어가며 두 번째 작품도 해냈다. 이 기획들의 목표가 가지는 공통분모는 대구 현대미술을 대중에게 알리고 전시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를 조금씩 해나간다는 것이다. 대중들에게 '아! 현대미술이 어렵지만은 않구나.'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더 나아가 '현대미술은 재미있구나.'라고 말한다면 금상첨화다.

미술 단체가 가지는 의미는 시간이 흐르며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예전에는 전시를 지금처럼 할 곳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전시를 위해서나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협회에 가입하고 활동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굳이 협회를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 길이 많이 열린 것이다. 청년작가들이 협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렇기에 협회가 예전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더이상 살아남을 수 없는, 변곡점에 이른 것이다. 나는 미술협회가 단순히 작가들의 산술적, 혹은 기계적 집합이 아니라 협회 그 자체가 바로 독특한 생명체라고 생각한다. 그런 협회가 생명력을 지니고 매력을 발산하려면, 우리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꾸준히 규격화나 규정화된 미술이 아닌 시대와 본질을 탐구하는 진정성 있는 작업을 통해 우리를 드러냈다. 다행히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알려졌는지 신진들의 유입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과 함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비전을 제시하는 협회로, 지역사회 혹은 세계로의 발걸음도 재촉하고 싶다.

나는 가장 활동이 힘든 시기인 팬데믹과 함께 협회장을 맡았다. 하지만 아무리 시국이 하 수상하더라도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언제나 그랬듯,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왔다. 그리고 뒤돌아보니 지난 일들의 발자국이 진하게 남아있다.

주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던 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중장년 작가들과 함께 추진하였다. 2018년에는 벨기에, 2019년에는 프랑스를 찾았으며 2020년에도 독일 레지던시 사업을 진행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중지되었다. 그러나 하늘 길이 막힌 상황에서도 벨기에 브리쉘(Brussels)과 프랑스 끌레르 몽페랑(Clermont-Ferrand)의 전시에 협회원들의 작품을 보내어 교류를 이어왔다. 올해도 대구시에 신청을 한 상태로, 상황이 나아져 다시 활발한 만남이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다. 굳이 협회가 계속해서 해외 교류를 꾀하려는 이유는, 우리 작가들의 작품을 끊임없이 해외에 선보이고 그들의 작품 또한 대구에 선보이면서 마주한 낯섦과 닮음 속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세계에 대구 현대미술의 우수성을 알리겠다는 사명감에 기인한다. 물론 단순히 일과성(一過性)으로 바라는 바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다가가 대구 미술의 가능성을 키워갈 것이다.

지난 2020년 여름, 수창청춘맨숀에서 열렸던 아트페어 <안팔불태_안 팔리면 불태운다>는 당시 대프리카 [2]*기온이 높은 대구의 여름철 날씨를 빗대는 대구와 아프리카를 합성한 신조어*의 여름을 뜨겁게 달궜다. 코로나19로 삶이 더욱 힘들어진 작가들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고자 기획하였다. 시대를 대하는 작가정신과 우리의 비장함이 전해졌는지 새로운 시도에 여타 전시보다 관심도가 높았고, 작품소장을 통한 응원도 이어졌다.(안타깝지만 118점 중 7점은 실제로 불태우기도 했다.)

사진 3. 2020년 수창청춘맨숀에서 열렸던 아트페어 <안팔불태>. 안 팔리면 작품을 불태운다는 비장한 각오와 절박한 예술가들의 현실을 담아 기획했었다. 실제로 작품 7점을 불태우기도 했다.

또한, 성(性)에 관한 현대미술 작가의 시선과 생각을 말하는 전시도 두 차례 개최했다. <about happy SEX>(2019)와 <동방예의지섹>(2021)이 바로 그것. 이런 경험을 토대로 세 번째 전시는 공공예술장소에서 진행해보고 싶다. 해외에선 쉽게 볼 수 있는 방식의 전시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성의 존재를 금기시하다 보니 그런 전시들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숨겨지고 터부시되어 오히려 왜곡되고 있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주제로 삼는 것은 마치 현대미술 작가로서 시대적 책임처럼 느껴진다.

또한, 현대미술이라 하면 무조건 어렵다고 여기는 대중들의 고정관념을 해소해 나가고자 한다. 지금 추진하는 대부분의 기획은 대중과 함께 예술의 공기를 호흡하고자 함이다. 다소 실험적인 영상이든 퍼포먼스든 방법이야 어찌 됐건, 재미있게 해나가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는 '영화는 재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나 역시 현대미술을 재미있게 풀어내고 싶다. 무겁거나 어둡지는 않고,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게 또는 좀 독특하고 엉뚱하게 표현되면 어떨까? 하지만 그 중심에는 묵직한 의미가 내포된 그런 현대미술이었으면 좋겠다. 예술이 오로지 대중의 관심만 끌기 위한 일은 아니겠지만 대중이 외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폐적 세계이자 낭패 아닌가.

나는 대구가 가진 특징이나 인적자원이 단언컨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음을 자신한다. 비단 개인의 생각이 아닌 그간의 해외 교류를 통해 들은 객관적 평에 의한 판단이다. 그들은 우리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에 대해서도 찬사를 표했는데, 남의 떡이 커 보여서 그런 것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까닭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나는 협회와 같은 단체의 역할에 대해 고민한다. **그중 하나가 정책의 방향과 필요를 스스로 증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전하는 의무가 아닐까. 안일하게 현재를 향유하기보다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질문을 통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지역의 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현대미술가협회가 부단히 색다른 시도를 하고 움직이는 것도 이 맥락에서다.**

대구에 관해 좀 더 말하자면, 6·25 전쟁 시 많은 피란 예술가들이 모여들었고, 중구 향촌동을 중심으로 이중섭을 비롯해 많은 문인의 안식처가 된 도시이다. 흙빛의 전장 속에서도 그들이 그려낸 예술로 찬란히 설색(設色)되고 그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 어려운 상황에도 꽃피웠던 70년 전 대구는 파리의 몽파르나스(Montparnasse) [3]*파리 14구에 속하는 센 강 왼쪽 지역. 1차 세계대전 후 모딜리아니를 비롯한 파리로 모여든 외국인 예술가 집단인 에콜 드 파리(École de Paris)의 중심지로, 이후에도 계속해서 화가, 문인들이 모여들어 예술과 인생에 관한 열띤 토론이 열리며 많은 예술 트렌드가 창조되었다. 여전히 많은 예술가들이 이 근처에 머무르고 있으며 미술학교와 화랑이 많아 유서 깊은 분위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출처=지식백과)* 같은 곳이었다. 또한,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구가 미술대학이 가장 많이 설립되어 있다. 당연히 배출되는 예술가 역시 많다. 더욱이 1970년대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난 실험적인 현대미술 운동 속에서 미술사적 지위는 가히 자부할 만하다. 지형적으로도 택시비 만 원이면 어디서나 쉽게 작가들이 모일 수 있는 대구는 함께 무언가를 해내기에도 제격인 도시다.

타지역 현대미술협회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데 반해, 대구현대미술가협회는 25년간 꾸준히 활동을 이어왔다. **이러한 문화도시 대구의 바탕 위에 거듭된 시간으로 쌓인 노하우는 우리의 큰 힘이자 매력이 된다.** 사람으로 치면 아직 청년의 나이인 대구현대미술가협회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더라도 함께 호흡하며 우리만의 색을 유지할 것이다. 앞으로 대구를 넘어 세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내 나이 올해 환갑이다. 벌써 그렇게 세월은 흘러갔나 보다. 나는 새롭고 실험적이며 재미있는 일을 할 때 가슴이 뛰을 느낀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보고 싶다. 그 길 위에서는 마치 첫사랑을 만났을 때 마냥 가슴이 요동친다. 시간의 속도는 유동적이다. 신선하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할 때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라면 시간이 눈 깜짝할 새 흘러가지만,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불편한 사람과 있을 때면 1분이 1년 같은, 그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한다고 본다. 나는 늙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늙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다소 엉뚱하거나 별난 기획들은 늙은 생각으로부터는 나올 수 없다. 그렇다고 청년의 것을 흉내 내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말이다. 단지 벅차오르는 무언가를 발견할 뿐이다. 만약 시간이 허락한다면 나를 위해서 또한 동료 작가들을 위해 가슴 뛰는 일을 찾고 또 찾아 해내고 싶다. 행여 터져버릴 듯한 기분에 상기된 어린아이를 동료의 눈에서 만나고 싶다. '스스로 살아 있음을 느끼고 진정 멋진 일을 하고 있다' 자각하는 순간, 어찌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이가 60이 아니라 70, 80이라도 말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가슴 뛰는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8

예술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가

이미경(한국파룻하우스 대표)

나는 대구에서 장애인들과 21년째 춤을 추고 있다. 그 시작은 내가 특수교육학이나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가 아니라 아는 어른의 부탁 때문이었다.

"일본에서는 장애인들이 춤을 추더라. 우리나라 장애인들도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다면 좋겠다. 2년만 도와 달라."

나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지체(척수)장애인들과 함께 춤을 추게 되었다. 단순히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장애에 대한 무지와 낯섦이 점차 설렘으로 바뀌었고, 장애의 개념과 접근 방법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졌다. 이렇게 그들과 춤으로 만나게 되었다.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

나의 새로운 춤 이야기가 전해져 수업 요청이 이어졌다. 학교나 복지관에서 학령기 [1]*어떤 등급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자격이 있는 연령층에 있는 아동으로 통상 초등교육을 받을 의무가 발생하는 연령에 속한 아이들을 말한다. 이 시기는 대체로 6~12세에 해당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함께 춤을 추는 활동이었다. 대부분 지원사업 형태의 일회적 프로젝트로 진행되어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울 수 없어 아쉬웠다. 함께 춤을 추는 기억이 쌓여갈수록 아이들이 졸업 후에도 계속 춤을 출 수 있고, 같이 몸을 맞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어렵고 어색했던 장애인들과 만남은 더 오래 같이 있고 싶다는 씨앗이 되었고, 그 위에서 '파릇'한 새싹이 돋았다.

같이 놀고(Play) 예술(Art)을 재창조(Recreation)하면서 관계(Relationship)를 맺고, 우리(Own)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각자의 재능(Talent)을 개발하자는 생각으로 우리는 '파릇(PAROT)'이 되었다. 2009년, 파릇은 장애예술가를 성장시키는 교수법과 학습방법을 연구하는 '파릇연구소'와 춤을 매개로 우리의 말을 전하는 '파릇무용단'으로 시작했다.

장애, 춤으로 세상을 만나러 가다!

그해 말부터 우리의 현실과 생각을 춤으로 그려왔다. 제약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장애 무용수의 이야기 <페르소나>와 장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 <Why me> 그리고 <왕자와 거지> 속에서 우리의 사랑을 말하기도 했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삶과 애환을 담은 <어머니의 하루> 시리즈, 가족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풀어낸 <달, 너를 품으며> 시리즈와 작품 <Loop> 등을 통해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무대 위에 만들었다. 동료이자 사제 지간으로 만난 우리는 점차 안무가와 무용수로, 결국 예술가와 예술가로 마주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KIADA)>, <장애인문화예술축제 A+ Festival After>, <전국장애인무용축제 Fun Dance Festival>, <라라美 댄스 페

사진 1. 〈달, 너를 품으며〉 가족의 사랑에서 벗어나 세상과의 또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무용수들과 비장애인 무용수들이 함께했다.(출처=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사진 2. 〈달, 너를 품으며 II〉 2021 장애인 특성화 축제 '라라美 댄스 페스티벌' 중에서(출처=한국파릇하우스)

스티벌> 등 무용제와 축제를 비롯해 우리만의 정기 공연과 크고 작은 무대에서 작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만나왔다. 지난 2020년 <대구장애인문화예술경연대회>와 2021년 제9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본선에서 파릇의 작품이 각각 '대상'과 무용 부문 '금상'을 받아 감격스러웠다.

파릇의 무용수들은 신체적 조건, 사물과 관계하는 방법이 각자 다르다. 그렇기에 서로 자신의 언어로 풀어내며 맞춰나간다. 가령 장애 무용수들이 휠체어를 타고 있다고 해서 모두의 움직임이 같지 않다.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 경우 상체 가동범위나 흔들림이 다르고 신체의 경직과 이완 정도가 차이가 난다. 또한, 사회정서와 인지발달 정도에 따라 움직임을 받아들이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다. 장애와 비장애가 공존하는 춤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개별적 특성을 파악하고 최선의 움직임을 끌어내야 한다. 장애 무용수들은 스스로 신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비장애 무용수와 함께 자신의 움직임을 디자인하기도 한다.

보통의 무용창작과는 다른 우리만의 과정을 구성해가며 파릇의 안무가와 무용수는 서로가 경험하지 못한 움직임과 신체적 조건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다. 처음의 생경함을 넘어 어느덧 다른 삶을 투영하는 예술가로서 무대에 서게 되는 것이다.

모든 무대가 그렇겠지만, 작품을 위해 달리다 보면 어느덧 연습실은 열기로 가득 메워진다. 파릇의

예술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가

무대는 반복이 필수이다.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단순한 동작이라도 무한 반복하여 모델링 [2]*획득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의 실제적, 상징적, 본보기를 제공함으로써 모방 및 관찰을 통해 소기의 목표행동(사회 및 인지적 행동)을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이다.(출처=사회복지학사전)*한다. 마치 시계가 고장 난 듯 장면이 되풀이된다. 그럴수록 장애 무용수의 손끝이나 시선 처리가 섬세해지고 박자가 정밀해지면서 비로소 하나의 움직임이 된다.

장애 무용수들은 체계적인 예술이론과 실기의 지도를 받아본 경우가 드물다. 그들을 위한 교육체제도 아직 불완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대를 함께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 예술세계의 선생이자 파트너가 된다.

이때 포용의 태도가 가장 중요해진다. 포용 속에서 장애 무용수들의 부족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특별함이 자리한다. 느림, 어색함, 떨림, 무대장치에 대한 두려움. 그들에게 익숙한 휠체어나 지팡이 또는 수어도 무대에서 특별한 요소가 된다. 그들이 내뱉는 감정과 표현을 부각하거나 덜어내면서 무대를 다채롭게 만들어 간다. 그렇게 함께 올라선 무대 위에서 장애 예술인 스스로의 의식상 장벽마저 허물어진다.

특별한 다름이다.

우리는 각자의 속도와 빛깔의 다름을 예술로 이어가고 있다. 파릇의 무대는 추운 긴 겨울을 버티어 땅을 뚫고 돋아난 여린 새싹처럼 강인함과 생명력, 그리고 어떤 꽃이 피어날지 모르는 가능성이 가득하다.

사진 3, 4. 〈LOOP〉, 제9회 <대한민국장애인예술경연대회 스페셜K> 본선에서 무용 부분 '금상'을 수상했다.(출처=한국파릇하우스)

사회적 기업.
전문직업인으로 살아가다.

일시적이고 간헐적인 만남이 아닌, 춤을 추고 싶을 때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생긴 후 더욱 자유롭게 창작에 몰두했다. 그런데 문득 '우리 춤이 직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새로운 고민이 생겨났다. 단순히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아가 우리는 조금씩 무대에 진지해졌고 다음을 그리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했다.

장애 예술가의 성장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요구된다. 파릇과 함께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비장애 예술인들의 참여도 늘어났다. 그러면서 내가 처음에 느꼈던 아쉬움이 다시 드러났다. 일정한 레슨시간만으로는 반복적인 연습량을 채우기도, 서로의 라포 [3]*신뢰와 친근감으로 이루어진 인간관계(출처=특수교육학용어사전)*가 형성되기에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직업인으로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임의단체로 시작한 '한국파릇하우스'는 지난 2019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2021년에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현재 20여 명의 장애, 비장애 예술가들이 춤과 예술을 그리며 단단한 기반에서 함께 성장 중이다.

예술을 기반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 예술가 육성과 직업 예술학교 과정으로 사회와 문화예술 현장의 당연한 구성원으로 자립을 도우며, 장애인의 노동 가치에 대한 의문에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증명한다. 파릇이 만드는 예술상품은 심미성과 실용성뿐만 아니라 공존의 가치도 담겨 있다. 그렇게 장애와 비장애가 함께 공존하며 다름을 이어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더 이상 장애예술이 어색하지 않다.

대구에는 12만 6천여 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다. [4]*<2020년 장애인 등록 현황> 기준(보건복지부, 2021년 4월)* 대구사람 중 5%가 넘는 숫자다.

지금껏 우리사회는 장애 여부를 기준으로 정해 인위적으로 영역을 분리해왔다. 문화예술은 비장애 창작자와 향유자를 전제하여 이루어졌고, 그저 장애인들에게 치료나 복지 차원으로 인식되었다. 파릇으로 함께하는 21년 동안 세상은 변해왔다. 경계를 넘어 장애인 예술을 개인의 예술 서사가 존재하는 주체적인 예술 활동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문화 다양성의 가능성이 5% 더 확장된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 무대 위 동등한 예술가로 공감하는 이것을 '공존예술'이라 말한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서울을 중심으로 불기 시작해 대구에서도 조금씩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9년 대구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주관하는 '지역장애인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사업'과 '수어 도슨트 파견 지원' 등이 추진되면서 장애 예술가를 연구와 교육 그리고 창작의 파트너로 수용하고 있다. 무용을 비롯하여 음악, 문학, 미술, 연극 같이 다양한 장르에서 여러 유형의 장애 예술가들과 협업도 이뤄진다. 그리고 2021년 국내 첫 문화예술 중점 공립특수학교 '예아람 학교'가 대구에 문을 열었다. 예술 감각이 뛰어난 장애 어린이, 청소년들이 체계적 시설과 과정 속에서 꿈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진 5. 〈어머니의 하루 Ⅲ〉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들과 그들의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어머니의 사랑과 걱정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현실들을 진정성 있게 담아냈다.(출처=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예술은 기존 장애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예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장애에 대한 경계가 유연해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여전히 각박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예술인의 평균 활동 기간은 6~7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았으며 62%가 예술 활동 관련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또한, 창작에 있어 60% 이상이 온라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5]*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2019. 5.*,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 활동이 온라인으로 옮겨가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여전히 그들의 홀로서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예술의 이름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는가

지난 2020년 5월 「장애 예술인 지원법」[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020. 6. 9. 제정, 2020. 12. 10. 시행)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장애 예술인의 지원 확대와 장애인의 문화접근성 제고가 주요 요지이다.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 장애 예술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까? 장애인 예술 활동에 대한 실질적 논의와 적극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2019년 대구 달서구, 수성구 그리고 최근 중구까지 대구의 각 구에서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고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을 지원하고자 했지만 실제로 사업 시행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의 영향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따른다. 지역사회의 일시적 관심이 아닌 제도 위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애 예술이 확장되었으면 한다. 지역 장애 예술인 현황 파악부터 장애의 특성에 따른 예술교육 연구 등이 뒷받침되고, 장애-장애, 장애-비장애 간의 창작을 위한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조성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7]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출처=시사상식사전)* 환경에서 세상과 예술 그리고 사람 사이 틈과 차가 없어지기를 바란다.

예술 앞에 장벽은 없다. 단, 장애 예술인이라 부르는 건, 틀리고 맞음의 분리가 아닌 다름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시각장애인이 보이지 않음보다 뛰어난 감각과 창의성에 집중하고, 발달장애인이 인지나 관계의 어려움 대신 그들의 단순함과 자유로움을 마음껏 표현한다면, 우리는 예술의 또 다른 가능성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예술은 장애와 비장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 예술가 개인의 특성과 맥락으로부터 다양해지는 것이다.

그간의 나와 파릇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니 많은 장면들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러면서 스스로 반성도 했고, 또 다른 기대도 해보았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사회적 제도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파릇한 새싹과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것이 공존하는 세상을 위한 또 다른 씨앗이 되어 번져 나가기를, 그래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길 바란다.

우리가 예술가로 함께 무대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다는 점이 참 행복하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같은 감정을 공유할 때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느낀다. 이는 곧 우리의 행복이고 인류의 행복을 이끈다. 앞으로도 많은 장애 예술인들이 무대 위에서 박수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좋겠다.

오랫동안 그들과 춤추고 싶다.

사진 6. 2021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국립재활원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 함께 휠체어 현대무용 퍼포먼스를 선보였다.(출처=한국파릇하우스)

2-9

저는 대구에서 [b]racket이라는 시각예술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정세용(『[b]racket』 발행인, B커뮤니케이션 대표)

정세용

저는 대구에서 [b]racket이라는
시각예술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필자는 대구에서 활동하는 조각가다. 작업실이 필요했던 2009년, 우연찮게 예술 프로젝트 '방천시장 문전성시'로 시장과 인연을 맺고, 'B커뮤니케이션'이라는 시각예술단체를 시작했다. 전시공간을 직접 리모델링하여 공간이 필요한 젊은 작가들의 개인전을 열어주는 기획을 하면서 100여 명의 작가들과 함께했다.

안타깝게도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1]*도심 인근의 낙후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외부인과 돈이 유입되고, 임대료 상승 등으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출처=위키백과)*으로 인해 방천시장에서 함께했던 예술가들은 뿔뿔이 흩어져, 지금은 자취를 감췄다. B커뮤니케이션도 방천시장에서 밀려나는 듯했다. 그러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시장 주변 유휴공간을 예술공간으로 바꾸며 지역작가들의 예술품을 자유로이 거래하는 아트마켓과 예술교육을 진행했다. 또 <방천골목오페라축제>를 함께 기획하며 그 명맥을 이어왔다. 다시 예술가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방천시장을 꿈꾸면서 말이다.

사진 1. 첫 번째 『브라켓』 이슈. 2012년 대구의 외국인 3명이 지역작가를 소개하는 시각예술잡지 『브라켓』을 창간했다.

방천시장이 재밌는 예술시장이라는 입소문이 조금씩 돌자 관광객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예술가들도 모여들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들과 함께 '[b]racket(『브라켓』)'이라는 시각예술잡지를 발행하고 있다.

『브라켓』, 시작과 복간

처음 이 잡지를 알게 된 것은 2013년 가을이었다. 우연히 대구의 대형 문구점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브라켓』을 보았는데 온통 영어로 되어있어 어디 외국에서 만든 잡지인가 싶었다. 그러나 『브라켓』은 2012년 대구에서 원어민 교사였던 외국인 3명이 창간한 지역작가를 소개하는 예술잡지였다. 사람들이 커피와 잡지 중 무엇을 살지 고민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직접 후원과 광고를 받으면서 만드는 무가지였다.

신기하기도 했고, 지역작가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들에게 고맙기도 한 마음에 작가로 참여하고 싶어 응모했다. 그해 10월 잡지 표지에 작품이 실렸다. 자연스럽게 잡지를 만들던 외국인들과도 교류를 이어나갔다. 2014년에는 본격적으로 팀에 합류하여 신진작가를 소개하는 기사를 썼다. 광고주들을 만나면서 후원을 받는 등 편집장 역할과 함께 외국인에게는 어려운 사업자등록과 같은 행정업무도 맡았다. 그러나 그해 12월, 발행인이 미국으로 떠나며 『브라켓』은 폐간이라는 아쉬운 결정을 내리게 된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수많은 독립잡지들이 도시마다 발행되어 지역의 문화 커뮤니티를 풍성하게 한다. 그러나 중앙 집중적 구조의 한국은 지역에서 이러한 독립잡지가 발행되거나 유지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물론 많은 상업 잡지들이 있지만, 지역의 정서를 담은 작가 중심적 시각예술잡지는 드물다. 필자는 외국인 필진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 있는 시각을 소개했던 『브라켓』이 지역사회를 알차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2015년 7월, 폐간된 잡지를 되살리자는 결정을 했다.

『브라켓』이 만들어지기까지

『브라켓』은 10여 명의 내외국인 필진과 디자이너, 번역가, 편집인이 함께 만들며 분기별로 발간되는 잡지다. 여타 잡지사처럼 매번 한 장소에 모여 만들지 않고, 각자의 생활 속에서 발견한 작가들의 자료나 시각을 공유하고 편집자가 검토 및 선별을 하여 각자에게 배당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폐간의 어려움을 겪으며 얻은 노하우로 만든 효율적인 과정이다. 덧붙여 경비 절감의 효과도 있다.

사진 2. 『브라켓』 편집회의(출처=필자 제공)

정세용

세상에는 많은 작가가 있고 그들의 작품을 보여줄 공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부터 『브라켓』은 시작했다. 그래서 메이저 화랑이나 미술관에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작업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세상에 소개하고 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시각예술 작가들이 『브라켓』 지면의 대상이다.

시각예술 평론은 사회적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대부분 생각한다. 그러나 『브라켓』은 지역, 국가, 인종, 성별, 언어 등을 뛰어넘는 다양한 시선으로 예술가, 개인의 작품세계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그들이 지닌 예술가이자 인간으로서의 보편성에 주목한다.

대부분 한국작가는 외국인 필진이 외국작가는 한국인 필진이 소개하는 방식을 택한다. 영어와 한국어로 편집된 인터뷰나 비평에선 두 언어의 거리감이 보일 수 있으나, 독자들은 해당 작품에 집중하게 하고 문화적 시각 차이로 인해 드러나는 흥미로운 요소를 발견할 수도 있다.

『브라켓』을 만드는 사람들

Publisher

정세용

Editor

John Shrader

Writer

Meryl Booth

Digital Editor

이윤경

정세용 • 시각예술잡지 『브라켓』을 만드는 의미는 무엇인가.

John Shrader • 나는 미국에서 미술과 철학을 전공했다. 그 후 서울로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업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예술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이다. 나는 예술을 경험적 현상이라 생각한다.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블로그에 좋아하는 작가와 전시에 대해 글을 썼었다. 그러던 중 대구에서 발간되는 시각예술잡지 『브라켓』을 소개받아서 에디터로 활동하게 되었다. 『브라켓』에 글을 쓰면서 내가 잘 몰랐던 예술 장르까지 폭넓게 고민하게 되었고, 작품을 감상하면서 무언가를 창작하는 인간의 노력에 감탄하기도 했다. 그렇게 『브라켓』은 예술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켰다.

Meryl Booth • 나는 남아프리카 출신으로 늘 여행하듯 사는 것이 꿈이었기에 해외에서 일하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만났다. 2014년 당시 남아공은 '한류' 붐이 일어나기 전이라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알려진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한국행을 택했고, 생경한 한국의 문화가 무척이나 흥미로웠다.

어느 날 친구로부터 『브라켓』이라는 잡지 한 권을 받았다. 일러스트레이션과 디자인을 전공한 나는 영어로 된 시각예술 잡지에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이 잡지는 나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나는 이런 잡지를 만드는 멋진 일을 하고 싶어서 『브라켓』에 합류했다. 잡지에 글을 쓴다는 것은 나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이자, 계속해서 창의력을 발휘할 좋은 기회를 갖는 것이다. 잡지에 기고한 이후로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예술작품에 대해 좀 더 비판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놀라운 예술가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이윤경 • 계명대학교에서 언론영상학과 사진영상디자인학을 전공하고 오스트리아에서 비주얼커뮤니케이션(Visual Communication) 석사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오스트리아에서 프리랜서 사진 작업을 하고 있다. 외국인 친구가 한국어 통역을 부탁하여 『브라켓』을 알게 되었고, 작가들과 작품을 다채로운 시선으로 소개하는 『브라켓』의 취지에 공감하여 계속해서 인연을 맺어왔다. 지금은 해외에 있지만 『브라켓』 홈페이지 관리를 하며 디지털 에디터로서 『브라켓』의 일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예술가에게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공간이 소중하다. 그러기에 『브라켓』을 만드는 건 뜻깊은 일이었다. 지면을 통해 만난 작품들과 작가의 생각들은 나의 작업 중에 고민으로 되돌아오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브라켓』이 그리던 선순환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런 잡지가 대구에서 만들어진다니, 지역을 알리는 데도 힘을 발휘할 것이다.

정세용 • 『브라켓』이 시작한 도시, 대구는 어떤 도시 같은가.

John Shrader • 처음에는 대구를 보수적인 도시로만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러나 『브라켓』 작업을 통해 만난 대구는 멋진 도시였다. 먼저 『브라켓』이 탄생한 곳이 대구가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은 대구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럴수록 멋진 작업을 조명하고, 창작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대구의 훌륭한 예술인들과 크고 작은 시각예술 현장들의 흥미로운 소식은 더 많은 노출이 필요하다. 그래서 『브라켓』과 같은 매체의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Meryl Booth • 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뛰어난 창작자들이 계속 나타남은 물론, 항상 새로운 창조적 공간이 생성되고 또 사라지고 있다. 대구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들과는 또 다른 예술 환경을 가진 듯하다. 그 도시들에 비해 예술 커뮤니티가 작은 대신에 다채롭게 형성되어있다. 이런 환경에서 열리는 다양한 전시회들과 소규모 활

저는 대구에서 [b]racket이라는
시각예술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들은 무척 흥미롭다. 그러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마케팅과 언어장벽으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듯하다. 하지만 『브라켓』이나 전시행사를 통해 대구의 예술을 접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매우 좋은 편이다. 확실히 대구는 잠재력이 많은 도시이다.

이윤경 • 나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다. 생각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대구에 있고 그들은 항상 자신의 예술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구의 다양한 소규모 카페나 책방에서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아서 『브라켓』을 항상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대구의 문화예술은 서로 돕고 도우며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공간의 규모와는 상관없이 더 많은 곳에서 예술 활동을 선보여서 많은 사람이 어디서나 예술을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세용 • 당신이 바라는 『브라켓』은 어떠한가.

John Shrader • 현재의 고민은 잡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광고주가 점차 줄어들면서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나마 B커뮤니케이션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지금껏 이어올 수 있었다. 줄어든 배부처도 걱정거리다. 잘 만든 잡지라 하여도 독자가 있어야만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다. 기존 배부처를 점검하고 새로운 제안을 계속해, 국내는 물론 해외 유수의 갤러리와 서점 등 더 많은 곳에서 『브라켓』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브라켓』의 많은 예술가와 작품들이 독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술적 호기심과 뜻밖의 감각을 전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듯하다. 이전 호에 소개된 예술가들의 작업세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성장했는지 『브라켓』과 함께 계속 살펴봐주길!

Meryl Booth • 『브라켓』이 지속적으로 발간되고 더 많은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조성되기를 바란다.

사실 예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브라켓』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 독자들에게 좀 더 유연한 자세로 다양한 예술 스타일을 소개하고, 창의적 영감을 공유할 수 있는 잡지가 되었으면 한다. 더불어 한국의 예술과 문화는 물론 삶에 관한 논의도 이어가면 좋을 듯하다. 한국에 있는 많은 외국인들은 일상 속에서 언어나 문화차이로 인한 생경함을 느끼곤 한다. 나는 예술이 그런 간극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 생각한다. 그렇게 『브라켓』이 의미 있는 잡지로 다가가길 원한다.

이윤경 • 분기별로 발행되던 『브라켓』이, 지난해 후원이 줄어들며 한 호밖에 발행되지 못했다. 지역의 예술과 젊은 작가들의 작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안타까운 마음이다.

현대사회에서 예술은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그만큼 예술은 점점 다채로워지고 있다. 대구에서 뿌리내린 『브라켓』이 전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배부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문화예술이 공유되길 바란다. 그리고 『브라켓』이 예술인들에게 작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계기와 토대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사명을 안고 우리는 계속해서 『브라켓』을 만들고자 한다. (『브라켓』을 유지하기 위한 스태프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브라켓』에서는 언제나 예술인들의 작품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대구에서 [b]racket이라는
시각예술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 3. 2021년에 발행된 『브라켓』 40호, 매년 분기별로 발행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에는 한 호밖에 발행되지 못했다.(출처=필자 제공)

그리고, 『브라켓』은...

우리가 함께 잡지를 만드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 글을 쓰면서 다시금 『브라켓』의 역할과 그 의의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대구는 문화예술의 역사가 깊은 도시인만큼 많은 다수의 시각예술 작가들이 있고, 그들을 후원하는 문화재단 그리고 전시할 수 있는 크고 작은 공간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반면 시각예술 잡지는 『미술세계』, 『월간미술』, 『퍼블릭아트』 등 서울에서 발행하는 상업적 잡지가 대다수다. 당연히 비중에 따라 지역의 작은 이야기들에게는 지면이 돌아가지 못한다.

한편 지역의 끈끈한 예술 커뮤니티는 오히려 다른 지역의 예술가들 특히 외국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 대구에서 진행된 전시에서 외국인 작가는 빼고 지역작가를 섭외하라고 해 잡음이 일기도 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오해였다고 번복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도시로 인식이 박혀버릴까 우려되기도 했던 바이다.

정세용

사진 4. 『브라켓』은 예술을 통해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글로벌 독립예술잡지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출처=필자 제공)

대구를 비롯한 한국의 내외국인 작가들을 조명하는 『브라켓』에는 지역의 젊은 작가들에 대한 지지와 지역문화의 세계화라는 큰 바람이 담겨있다. 작은 계기라도 그 때문에 청년들과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함께 소통하며 다양한 융합이 이루어져 지역 창조력에 힘이 된다면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물론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계속되겠지만, 그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 빠르진 않아도 목표를 향해 꾸준히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3명의 외국인으로부터 시작한 『브라켓』.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지역 예술계의 성장을 위해 젊은 예술가들과 그들의 작품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고 싶다고 했던 처음의 목표는 여전하다. 『브라켓』이 지향하는 다양성과 유연성이 문화의 한쪽을 파고들어 조금씩 지역사회와 예술계를 다채롭게 바꿔가길 바란다. 『브라켓』의 처음과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독립책방도 만들고 싶다. 『브라켓』이 지역예술을 투영하는 아카이브의 한 조각이 되길 바란다. 또 우리의 공간에 그동안 『브라켓』이 소개했던 모든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그날도 꿈꿔본다.

브라켓(bracket)은 설명을 붙여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대괄호'[ ]'를 지칭한다. 같은 범주로 본다는 뜻이다. 여러 국적의,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는 '예술'이라는 하나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 『브라켓』이 예술을 통해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글로벌 독립예술잡지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

저는 대구에서 [b]racket이라는
시각예술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 5. 시각예술잡지 『브라켓』 이슈들(출처=필자 제공)

[b]racket 홈페이지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 법은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예술인의 문화적·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를 보장하고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 1조(목적)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라는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이를 바탕으로 과연 더 나은 예술계가 될 수 있을까.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하고 있는지,
법 제정의 취지에 어울리는 실효성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지난 2021년 8월 31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2022년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

SECTION 02.

기억을 담다

기억을 담다

한국영화사에서 대구영화를 말하다

서성희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제작사인 '조선키네마주식회사'의 첫 작품 <해의 비곡>(1924)은 대구를 배경으로 촬영됐다. 광복군 결사대 출신이었던 윤봉춘 감독의 데뷔작 <도적놈>(1930)도 대구 대동영화사에서 만들어졌다. 1932년 이규환 감독은 나운규 주연의 <임자 없는 나룻배>를 대구 일대에서 촬영했고, 나운규는 '대구영화촬영소'를 설립해 <종로>(1933), <칠번통소사건>(1937) 등을 대구에서 촬영했다. 마지막 무성영화인 윤대룡 감독의 <검사와 여선생>(1948)은 대구 용두방천(상동교와 중동교 사이)에서 촬영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대구에 뿌리를 둔 영화" 「영남일보」
2014년 12월 31일자 기사 발췌

초기 한국영화사의 주요도시, 대구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이 대구 출신이라면 여전히 놀라는 사람이 많다. 바로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이라는 격동의 시절을 살면서 전통 여성상에 도전했던 '박남옥'이다. 초기 한국영화사에 있어 대구는 주요한 도시였다. 30년대 봇물 터지듯 이어진 한국영화의 열기 속에 대구에서도 잇달아 영화사들이 창립되고 활발하게 영화가 만들어졌다. 일제의 암흑기에서 벗어나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대구로 집중된 영화 인재와 물자들로 인해 많은 영화가 제작되었다. 50년대 이후 영화판에는 대구지역 출신 감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대구 자유극장이 직접 제작하고 민경식 감독이 연출한 <구원의 애정>(1955), <경상도 사나이>(1960)를 비롯한 쟁쟁한 영화들이 대구에서 만들어졌으며 영화를 통해 대구사람들의 특성을 드러내던 시기가 있었다. 대구를 배경으로도 많은 영화가 탄생했다. 윤예담 감독의 <산적의 딸>(1957)과 신상옥 감독의 <빨간마후라>(1964)가 각각 달성공원과 K2공군기지, 동촌유원지 풍경을 담고 있으며, 대구 명덕국민학교(현 명덕초등학교) 이윤복 어린이의 일기를 영화화한 김수용 감독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5)의 많은 장면이 실제 명덕국민학교에서 촬영되었다. (친구였던 이창동 감독이 엑스트라로 출연했다고 한다.) 이처럼 당시에는 '지역영화=지역에서 제작된 영화'라는 개념이 그리 낯설지 않았다.

사진 1. 민경식 감독의 <경상도 사나이>(1960) 홍보 이미지. 실제 경상도 출신 배우 이대엽이 사투리로 녹음했다.(출처=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사진 2. 김수용 감독의 <저 하늘에도 슬픔이>(1965)의 스틸컷(출처=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대구의 영화감독들

이규환(1904~1982)

조선영화의 최고봉에서 한국영화 부흥을 이끈 감독

이규환 감독은 1904년 대구에서 태어났다. 계성중 4학년 때 3·1운동에 가담했다가 일본 순사를 피해 밀양으로 피신해 잠시 살았다. 당시 농촌이었던 밀양에서의 생활은 이후 이규환 감독 작품 속 향토적 색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일본의 촬영소에서 영화 일을 하다 귀국 후 1932년 자작 시나리오 <임자 없는 나룻배>로 감독에 데뷔한다. 그는 <밝아가는 인생>(1933)을 비롯해 <바다여 말하라>(1935), <무지개>(1936), <나그네>(1937) 등 일제강점기에 총 8편의 영화를 연출한다. 광복 후 제작한 아동 모험극 <똘똘이의 모험>(1946)은 종전의 흥행기록을 갈아치울 만큼 인기를 얻었다. 한국전쟁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영화의 기반이 출렁이던 1954년, 대구에서 촬영을 시작해 1955년 1월 16일 국도극장에서 개봉한 <춘향전>(조미령, 이민 주연)은 극장 주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루며 흥행에 성공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영화 부흥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규환은 일제강점기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감독이었고, 광복 후에도 한국영화 부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최고의 흥행 감독이었다.

사진 3. <임자 없는 나룻배>(1932)의 배우 나운규와 문예봉. 당시 동아일보 학예부장 주요섭은 "조선 민족의 혼이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암시해 준 영화"라고 평가했으며, 개봉 첫날 일본총독부 검열계의 재검열 곤욕을 치루기도 하였다. 한국인 스태프만으로 구성하여 정체성을 살렸으며, 대구 화원유원지 일대에서 촬영했다고 알려져 있다.(출처=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사진 4.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1955) 포스터. 2달의 개봉 기간 동안 당시 서울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0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전례 없는 흥행기록을 세웠다. 한국영화 도약의 신호탄이 된 상징적 작품으로 가창과 화원유원지 등에서 촬영했다.(출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김유영(1907~1940)

일제강점기 영화계 일인자였던 사회주의 감독

김유영(본명 김영득) 감독은 구미 출신으로 1923년 대구공립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에 입학했으나 항일독서회 사건으로 보성고등보통학교로 전학했다. 졸업 후 1927년 '조선영화예술협회' 연구부에 들어가면서 영화계에 입문한다. 이곳에서 영화적 재능을 인정받아 조선영화예술협회의 창립작이자 최초의 카프(KAPF) [1]*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영화로 알려진 <유랑>(1928)으로 데뷔를 한다. 이후 '서울키노'에서 1929년, 두 번째 작품 <혼가>를 연출하며 프롤레타리아 민중의 서러움과 투쟁을 그려냈다. 이듬해 1930년 '조선시나리오작가협회' 동인들이 『중외일보』에 연재했던 <화륜>을 영화화한다. 1938년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제인 <조선일보영화제>를 개최하였으며, 1939년 <애련송>에 이어 유작이 된 <수선화>는 1940년 8월 13일 서울 성보극장에서 많은 영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영되었다. '서정성과 향토미가 돋보이는 영화'라는 평가를 받은 이 작품은 그가 오랜 시련의 고비를 넘어 이념의 진공 상태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나운규 타계 후 이규환 감독과 함께 당시 영화계의 일인자로 불렸으나 분단 이후 카프가 금기시되면서 한국영화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비운의 감독이 되었다.

민경식(1916~)

6·25전쟁 동안 만들어진 영화 중
현존하는 유일한 영화의 감독

한국전쟁 당시 제작된 영화 14편 중 유일하게 필름이 남아 있는 작품은 민경식 감독의 <태양의 거리>(1952)다. 민경식 감독은 대구에서 태어나 만경관의 간판 그리는 일을 하다 배우, 감독으로 전향한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로 이후 윤일봉, 나애심 주연의 <구원의 애정>(1955), 문정숙, 도금봉 주연의 <내일 없는 그 날>(1959), 이대엽, 조미령 주연의 <경상도 사나이>(1960), 신성일, 이민자, 박암, 장동휘가 나온 <눈물 없는 두만강>(1963) 등을 연출했다. 총 5편의 필모그래피를 남겼지만 1962년 영화법 제정 이후 다시 대구 지역 극장가에서 간판을 그리는 일로 돌아왔다. 당시 영화제작사들이 통폐합되고 서울로 집중되던 상황에서 더

이상 연출이 어려워진 것이라 추측된다. 그 때문에 지역영화 생태계를 고사시킨 아픈 역사의 산증인으로 기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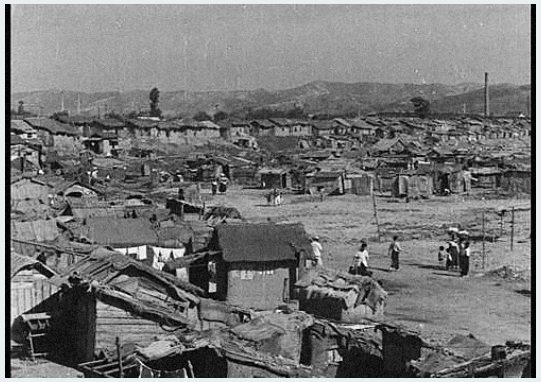


사진 5, 6. 민경식 감독의 <태양의 거리>(1952) 스틸컷. 한국전쟁 피란민으로 들끓던 대구 풍경을 여실히 담아내 사료적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피란 중 어린이들의 우정과 당시 불량아의 생활상을 그리며 코리안 리얼리즘을 시도한 영화로 평가받는다.(출처=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조긍하(1919~1982)

시대를 놓치지 않았던 멜로 영화의 장인

1919년 대구에서 태어나 대구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37년 일본 도쿄 제국음악학교 성악과를 졸업했다. 1942년에는 피아니스트로 데뷔, 1944년에는 사진작가로 활동하면서 6·25전쟁 이후 대신동에서 조광사진관을 운영했다. 그러던 중 1957년, 대구 경상감영공원 앞 경우사진관을 운영하던 박재학과 서상만, 신달웅, 기획자 변종건과 함께 '영남영화사'를 설립하고, 대구에서 <황진이>를 연출한다. 멜로 드라마에서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갈등과 애정을 묘사하는데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육체의 길>(1959), <육체의 고백>(1964), <과부>(1960), 전쟁영화의 걸작 <철조망>(1960)과 <인천상륙작전>(1965), 문예영화 <쟌발쟌>(1961), 액션영화 <아카시아 꽃잎 필 때>(1962), 사극 <애란>(1963), 스릴러물 <얼굴 없는 여자 손님>(1970), 반공물이자 현대 정치물 <젊은 아들의 마지막 노래>(1970), <광복 20년과 백범 김구>(1973) 등 매해 거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와 소재의 영화를 만들었다.

사진 7. 조긍하 감독의 <황진이>(1957) 스틸컷. 당시 악극단의 유명 여배우 지일화에게 '도금봉'이라는 예명을 지어주고, 도금봉은 <황진이>의 흥행성공에 힘입어 일약 스타덤에 오른다.(출처=다음영화)

박남옥(1923~2017)

한국 첫 여성 영화감독

1923년, 박남옥 감독은 경상북도 하양에서 태어났다. 여덟 살이 되던 1930년, 남욱정보통학교(현 서부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어린 시절 영화 포스터를 모으면서 영화에 관심과 열정을 가졌다. 이화여전 중퇴 이후 대구에서 기자로서 영화평을 썼다. 이후, 조선영화사 '광희동촬영소'에서 편집을 익히고, 신경균 감독의 스크립터를 맡으며 본격적으로 영화판에 뛰어든다. 한국전쟁 중에는 국방부 촬영부 소속으로 전쟁뉴스를 찍었다. 그리고 1954년, 전쟁 이후 미망인들의 현실과 갈등을 그린 <미망인>을 제작하며 한국 최초의 여성 영화감독으로 이름을 남긴다. 이때가 딸을 출산한 지 1년 정도가 될 때이다. 당시 『동아일보』에 "여성 감독이 아니면 착안하기 어려운 앵글의 각도와 사건의 템포, 리듬의 명쾌, 화면과 동작(연기) 등에 생활감정을 예리하게 융화"했다는 평가가 실렸으며, 최초의 여성 감독 영화이면서도 여성영화로 의미가 큰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남성 중심적인 영화 현장에서 차별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한국영화사의 방점을 찍은 주체적인 여성으로 대표된다. 이후 그녀는 1959년 『시네마 팬』이라는 영화잡지를 창간하며 영화 일을 이어갔지만, 더 이상의 영화는 남기지 않았다.

사진 8.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 박남옥. 돌도 지나지 않은 딸을 업고 스태프들의 밥을 손수 해먹이며 메가폰을 잡았다고 한다. 여성이기에 후시 녹음실에서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는 등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영화를 제작했다. 2008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그녀를 기리며 '박남옥상'을 제정했으며, 이후 2017년 다시 부활해 진취적 활동을 보이는 여성 영화인들에게 수여하고 있다.(출처=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복원된 영화 <미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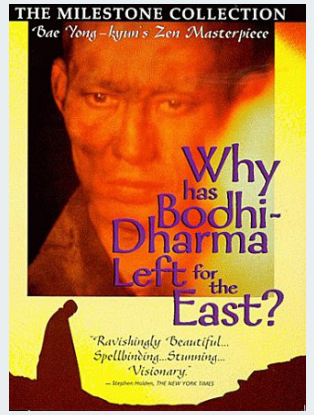
사진 9. <미망인>(1955)은 한국 최초의 여성 감독 박남옥의 데뷔작이자 유일한 작품으로 언니에게 제작비를 빌려 만들었다.(그래서 제작사가 '자매영화사'이다.) 1950년대 미망인이라는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주변 관계를 통해 여성들의 곤궁한 현실을 리얼리즘으로 담아냈다. 그러나 시대를 앞서간 탓인지 사나흘 만에 간판을 내리며 흥행엔 실패했다. 1997년 서울국제여성영화제를 준비하며 당시 한국영상자료원에 보관되어있던 필름을 복원하면서 재조명되었다.(출처=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사진 10.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 포스터(출처=네이버 영화)

영화를 누구나 만들 수 없는 시대

1963년, 영화법 개정으로 영화사가 16개로 통합되면서 지역영화 시대는 급격히 저물어 버렸다. 이후 대부분의 한국영화는 수도권에 집중되었고 이른바 '충무로 시대'로 전환되었다.
이 시기를 거쳐 80년대에 이르면, 지역영화라는 개념이 지워져 버린다. '사전검열'을 통해 영화에 사회를 담아내는 것이 철저히 통제되면서 예술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었다. 그 때문에 멜로영화와 에로영화 일색의 한국영화계 암흑기가 열린다. 대구 역시 영화는 없고 영화단체만 남아 있게 되었다.
지역에서 태어나 영화를 하고 싶은 사람은 대부분 서울로 갈 수밖에 없었다. 대구는 영화 소비로는 전국 4위였지만, 영화제작은 못 하는 생산 불능의 도시로 전락해버렸다.

대구영화 제작의 태동기



1989년, 대구에서 소리소문없이 제작된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1989)이 제42회 스위스 <로카르노 영화제(Locarno Film Festival)>에서 최우수 작품상인 '용호상'을 받으며 한국에 알려졌다. 1인 7역, 제작 기간 4년, 각본, 연출부터 조명, 미술, 편집까지 전 과정을 혼자 도맡는 등 영화계의 상식을 모두 깨부수며 등장했다. 이 난데없는 작품은 집단예술이라 생각했던 영화가 개인예술로도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작가주의 리얼리즘 영

화의 걸작이자 독립영화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작품이다.
그는 두 번째 작품 <검으나 땅에 희나 백성>(1995)에서도 독립자본과 일인다역으로 장기간에 걸쳐 영화를 만들어내는 자신만의 제작, 연출 방식을 고수하며 충무로로 대표되는 서울 상업영화계와 거리를 두었다. 그리고 이 작품은 대구 영화계에 다시 한번 불을 지폈다. 배용균 감독의 주요 스태프로 활동했던 송의헌, 김동현, 김홍완, 최창환 등은 16mm 필름으로 단편영화를 제작하며 대구를 대표하는 독립영화 감독으로 성장한다. 이들은 창작자의 테두리를 넘어 대구 독립영화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었고, 열악한 대구의 제작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창립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는 필름으로만 영화를 만들던 때로 누구나 쉽게 전문성을 얻기 어려웠고, 많은 자본이 필요한 까닭에 영화제작이 확장되지 못한 채 소수의 감독만이 창작활동을 전개하는 분위기였다. 그중에 배용균 감독의 스태프 출신 감독들은, 그의 리얼리즘을 이어받으며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나갔다.

대구의 독립영화

대구독립영화협회와 대구단편영화제

대구는 독립영화 [2)]*상업영화의 자본이나 이야기 전개, 주제 등으로부터 독립해 창작자의 의도가 중시되는 영화의 총칭* 중에서도 러닝 타임 40분 이내의 단편영화 부분에서 전국적 지명도를 지닌다. 대구지역의 독립영화 수준과 감독들의 에너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구단편영화제>이다.
2000년 3월, 대구지역의 영화인들이 모여 지역을 기반으로 영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지역 영상발전을 목표로 '대구독립영화협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창립 첫해, 건전한 경쟁을 통해 국내의 우수한 단편영화를 소개하고 대구의 작품을 알려 전국적 교류를 꾀하고자 제1회 <대구단편영화제>를 개최한다. 수동적인 영화 소비 도시로서 한계를 벗고 지역의 젊은 영화인들이 주도하여 영화 창작의 활성화와 성숙한 지역 영상문화를 이끌어내며 현재까지 22회째 이어오고 있다.

사진 11. 제22회 대구단편영화제 포스터(출처=필자 제공)

매년 성장을 거듭하던 <대구단편영화제>는 한 해 1,000편이 넘는 경쟁 단편영화들이 출품되는 전국적 권위가 있는 단편영화제로 인정받고 있다. 상영작 부문으로는 전국 규모의 '국내 경쟁 부문', 대구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제작된 영화인 '애플시네마 부문', '해외 초청 부문'이 있으며, 수상작 선정을 경쟁 부문 본선에 오른 감독들이 직접 심사하는 방법으로 타 영화제와 차별성을 가진다.
당시 대구의 젊은 영화인들이 상업영화가 아닌 독립영화를, 장편이 아닌 단편을 선택한 것은 지역의 제작여건을 고려한 현실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제약 조건들 아래 지역의 영화계는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척박한 환경을 일궈 좋은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그리고 창작자들이 계속해서 작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역량 있는 감독들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이처럼 발전의 가능성을 지닌 <대구단편영화제>는 22년이라는 역사를 쌓으며 지역을 넘어 한국의 독립영화 문화를 주도하는 영화제로 나아가는 중이다.
또한, 2010년에는 복지를 주제로 한 전국 유일의 <대구사회복지영화제>, 2012년에는 여성들의 삶과 여성주의 시각으로 녹여낸 영화를 상영하는 <대구여성영화제>가 개최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대구의 영화는 계속해서 깊이와 저변을 확장하며 다채로워지고 있다.

영화 마니아의 공간,
오오극장

2015년 2월 11일,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립영화 전용 극장이 대구에 생겼다. 바로 대구 최초의 독립영화 전용관 '오오극장'이다.

사진 12. 오오극장 풍경
(출처=필자 제공)

대구에서 열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영화인들은 꾸준히 작품을 만들어왔지만, 막상 영화를 안정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했다. 더욱이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지역 영화인과 문화예술단체, 독립영화에 갈증을 느끼던 관객들의 모금을 통해 공간을 마련했고, 이렇게 100% 민간의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독립영화를 개봉하는 상설영화관, 오오극장이 설립되었다.
오오극장은 영리 추구가 아닌 영화문화의 다양성과 그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다. 상대적으로 극장 상영 기회가 적은 지역 독립영화, 단편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먼저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지역영화 중심'의 영화관이다. 또한, 주목받는 독립영화 감독이나 배우들의 작품을 상영하고 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함께하는 만남의 공간으로 지역 영화 문화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사진 13. 대구영화학교
(출처=필자 제공)

대구영화 전문 교육기관,
대구영화학교

대구에는 대학의 영화학과나 전문적인 영화교육 기관이 없어 영화의 꿈을 가진 청년들은 서울이나 부산으로 가야 했다. 지난 2019년, 대구시로부터 대구영상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탁받은 '대구경북영화영상사회적협동조합'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대구영화학교(Daegu Film School)'의 문을 열었다. 매년 연출, 촬영, 제작 분야에 4명씩, 총 12명을 선발해 영화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아카데미로서 지역영화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실제로도 박재현, 박찬우, 김선빈, 장주선 등 대구영화학교를 졸업한 감독들이 국내 유수의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빛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대구영화 현장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 써 내려갈
대구영화사를 위해

2020년, 미국의 <아카데미 시상식(Oscar, Academy Awards)>에서 우리를 환호하게 하는 이름이 불렸다. '봉준호'. 그의 작품 <기생충>(2019)이 각본상, 국제영화상, 감독상과 최고 영예인 작품상까지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기염을 토했다.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칸영화제(Festival de Cannes)>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국내에서는 천만 관객 돌파 흥행까지 성공하더니, 세계 영화사에 '한국'이란 큰 획 하나를 그은 것이다. 잘 알다시피 봉준호 감독은 대구 출신이다. 대구 아카데미 극장에서 <로보트 태권브이>를 재미있게 본 그의 어린 시절 추억은 많은 대구 시민들에게 반갑게 다가왔다.

한국영화사 연대표를 따라가면 굵직한 마디마다 '대구'와 '대구 출신' 감독들이 새겨져 있다. 영화법이 제정되며 지역영화는 몰락의 아픔도 겪었지만, 8~90년대 상업 영화의 흥행을 넘어서 독립영화의 길을 개척한 박철수 감독, 투철한 작가정신으로 한국영화의 주제적 깊이와 표현 영역을 넓혀온 이창동 감독 등이 풍성한 문화의 향기를 대구라는 이름에 더했다.

앞서 살펴봤던 유구한 영화역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구의 영화 제작환경은 서울이나 부산 심지어 전주보다 열악하다. 그런데도 대구 영화인들의 의지와 관객들의 관심으로 대구영화의 명맥은 계속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 대구독립영화협회와 <대구단편영화제> 등을 비롯해 지속가능한 지역영화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도전과 실험을 거듭했다. 외부환경이 어떻더라도 영화를 사랑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가슴속 피어나는 영화에 대한 열정을 막을 순 없다. 지역의 청년 영화인들의 심장이 뛰는 한, 대구에 정주한 그들이 마음껏 영화를 찍을 수 있고 그들이 만든 영화가 대구를 환호하게 할, 그날이 올 거라 믿는다.

대구영화계는 지난 40년 동안 죽어가던 제작환경 회복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한참 영화 생태계를 구축하고 창작의 박차를 가할 시기,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지역뿐 아니라 영화계 전체에서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혼란과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OTT 플랫폼이 급부상했고, 온라인으로 퍼져간 K-콘텐츠 열풍이 세계를 휩쓰는 중이다. 'K'로 대변되는 한국문화의 흐름은 밖에서 보면 한국의 재발견이며, 내부적으로는 자기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원활한 문화교류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만든 영화가 좀 더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해외 영화제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렸으면 한다. 그리고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OTT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더욱 다양한 장르적 실험, 과감한 이야기와 포맷에 도전하는 창작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지역영화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야 한다. 이런 변화를 뚫고 대구의 영화가 세계 속에서 찬란한 빛을 드러내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대구는 한국 영화 역사 초기에도 그랬듯, 서울 중심의 현재 영화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바로 대구에 삶의 터전을 잡고 좋은 영화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 독립영화감독들이 있기 때문이다. 김현정, 최창환, 유지영, 고현석, 장병기 등 대구의 영화청년들이 연출한 유수의 작품들로 역사는 새로 쓰이고 있다.

사진 14. 대구를 소재로 한 유지영 감독의 장편영화 <수성못>(2019) 작업현장

대구의 옛 극장을 추억하다

김중기
(문화공간 필름통 대표, 영화평론가)

기억 속 대구의 옛 극장

옛날 극장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냄새다. 단관 시절 극장에서는 항상 꾸덕꾸덕하게 오래 쌓이고 삭힌 냄새가 났다. 칼로 긁으면 한 움큼씩 뚝뚝 떨어져 나올 것처럼 오래 쌓인 냄새다. 틀림없이 불쾌한 냄새였겠지만, 스크린에 펼쳐진 오드리 헵번(Audrey Hepburn)과 잉그리드 버그만(Ingrid Bergman), 소피아 로렌(Sophia Loren)의 아름답고 화려한 이미지가 덧대져 그 냄새는 추억의 향수가 돼 버렸다.

사진 1. 영화 <페인 앤 글로리(Pain and Glory)>(2019) 스틸컷 (출처=씨네21)

스페인 페드로 알모도바르(Pedro Almodovar)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그린 <페인 앤 글로리(Pain and Glory)>(2019)에서 그 냄새를 이렇게 규정했다.

"내 어린 시절의 영화란 암모니아 냄새와 쟈스민 향기, 한 여름의 산들바람이었다."

소변 냄새가 진동했지만, 스크린에 펼쳐진 배우들의 쟈스민 향기와 함께 내 삶에 스며든 맑은 추억이었다는 뜻이다. 역시 대가다운 정확하면서 아름다운 표현이다.

페드로 알모도바르처럼 필자 또한 돈만 생기면 극장으로 달려갔다. 중구의 대신동에 살아서 가장 자주 드나든 극장은 인근에 있던 **'사보이', '시민', '진성', '오스카 극장'**이었고, 좀 더 나가 **'동아', '달성', '칠성'** 등을 갔다. 꼭 봐야 할 영화가 있다면 신천교 양쪽에 있던 **'신도', '신성극장'**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 남문시장에 있던 **'대한극장'**이나 그 외 **'대도', '미도', '부민'** 등 대구 전 지역의 극장을 찾아 헤맸다.

이들 극장은 대부분 재재개봉관이다. 이른바 3류 극장으로 개봉관의 필름이 재개봉관을 돌아 이들 극장에 올 때쯤에는 필름에 스크래치가 나서 화면에 비가 오는 듯했다. 2개 영화를 동시에 상영하기도 했다. 도원동에 있던 **'동아극장'**의 경우 가수들의 리사이틀이 자주 열리기도 했는데, 하굣길에서 봤던 흰 진바지를 입은 가수 김추자 씨의 뇌쇄적인 포즈가 그려진 대형 간판은 잊을 수가 없다.

사진 2. 대구 아세아극장에서 상영한 조긍하 감독의 영화 <총독의 딸>(1965) 포스터(출처=대구근대역사박물관)

1970년대 대구의 극장 수는 31개였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한일', '대구', '만경관', '아카데미', '아세아', '제일극장'**이 개봉관이었고, **'자유'**와 **'송죽'** 등이 재개봉관이었다. 1970년대 말 개봉관의 입장료가 500원이었다면, 재개봉관은 300원, 재재개봉관은 200원 또는 150원 정도였다. 1977년 10월 20일 <전쟁과 평화>를 상영하던 만경관의 입장료가 450원, <타워링>을 상영하던 한일극장이 460원이었다. 옛날 일기장을 찾아보니 이렇게 적혀 있다.
이날 필자는 이 극장 저 극장을 헤맨 모양인데, 결국 돈이 모자라 영화를 보지 못했노라 일기장에 적어 놓았다.

사진 3. 1980년 영화관 입장권(출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단관 시대의 풍경

이때는 단관 시대다. 1개 관에 1개의 스크린이 있던 시절이다. 그래서 대부분 1층과 2층이 열려 있는 복층 구조의 대극장이었다. 700석에서 1천 석 정도의 규모로 좌석이 가장 많았던 곳이 **'대구극장'**이었다. 3층에 작은 관람석까지 있어서 1천 석이 훨씬 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올드 팬들은 임검석(臨檢席)을 기억할 것이다. 극장 뒤쪽 VIP 관람석처럼 비치된 별도의 좌석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순사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극장 내 동태를 파악했고, 60, 70년대에는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야 할 책무를 가진 이들을 위한 좌석이기도 했다. 또 80, 90년대에는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한 선도 자리로 이용되기도 했다. 나중에는 관객 수를 줄여 수익금을 착복하던 극장을 감시하기 위해 제작사에서 사람을 보내 관객 입장 정도를 파악하는 용도로 쓰이기도 했다. 이래저래 불쾌한 감시자의 자리였다. 임검석이라는 이름부터 권위적이다.

이때 극장 안은 쥬세페 토르나토레(Giuseppe Tornatore) 감독의 <시네마 천국(Cinema Paradiso)>(1990)처럼 늘 담배 연기가 가득했다. 영사기의 환한 불빛이 담배 연기로 일렁이는 모습은 마블링 기법으로 그린 작품 같았다. 그때는 비 오는 날 버스 안에서도 담배를 피워댔으니 극장 내부도 마찬가지였다. 1980년대 중반 담배 연기는 서서히 사라졌다. 필자가 마지막으로 극장에서 흡연을 목격한 것은 1986년이었다.

사진 4. 80년대 동성로 거리. 길 건너 한일극장이 보인다.(출처=대구경관사진전국공모전)

사진 5. 인기 많은 영화를 상영할 때면 극장 앞은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출처=국가기록원)

흑백 TV조차 구경하기 어려웠던 그때는 명절날 영화 한 편 보는 것이 최대의 낙이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극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차례를 지낸 후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이 유일한 문화생활이었다. 스크린 수가 적고, 또 1개 관에서 1편만 상영했기에 인기작의 경우 장사진을 쳤다. 명절마다 찾아오는 성룡 영화를 주로 상영했던 한일극장의 경우 매표구에서 대구백화점까지 추운 설날에도 긴 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다.

사진 6. 1961년 11월 20일 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김성환의 만화 '고바우 영감'(2946회). 고바우 영감에게 비싼 값의 영화 암표를 팔려던 암표상, 영화가 시작하고 나자 정가보다 더 싸게 팔게 되면서 마무리된다.(출처=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록문화제 제538-1호)

입석이라도 있으면 다행이었다. 여윳돈이 있으면 몇 배를 주고 암표를 사기도 했지만, 대부분 그럴 형편이 되지 못했다. 좌석은 고사하고 몸 돌릴 틈도 없이 시루의 콩나물처럼 빼곡하게 서서 영화를 보곤 했다. 당연히 소매치기도 많았다. 주머니 속에 소매치기의 손이 들락거렸다. 영화에 혼이 빠져 보다가 500원 지폐를 소매치기 당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억울하고 아까워서 땅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이렇게 복잡해도 주전부리를 파는 상인들은 용케 목에 줄로 맨 상자에 껌이나 땅콩, 오징어를 담아 다니며 팔았다. 요즘 극장문화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전근대적인 극장 풍경이지만 그때는 당연하게 여겼다.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었으니 말이다.

이때는 영화 시작 전에 양복지를 파는 사람들이 무대에 나타나기도 했다. 객석의 사람들에게 번호가 적힌 표를 나눠주고 번호가 불린 사람에게 양복지를 특별 할인가로 파는 형식이었는데, 사실은 일종의 사기성이 농후한 강매였다. 어리숙한 사람의 번호를 불러 싼 가격이라고 속여 파는 것이었다. 아마도 극장 측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었을까.

당시 영화를 보기 위해 거치는 의식이 있었으니 애국가와 대한뉴스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흘러나오는 애국가와 스크린의 태극기를 바라보며 애국애족을 다짐하고, 파월 용사들의 용맹함이나, 청와대의 근황, 국가의 중요시책 등에 대한 뉴스를 봐야 드디어 나의 알토란 같은 돈을 주고 보려했던 영화를 볼 수 있었다.

사진 7, 8. 대한뉴스(1945~1994). 집집마다 TV가 보급되기 전, 나라의 소식을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국정을 옹호하기 위해 제작된 뉴스 프로그램. 1963년 영화법이 개정되면서 전국 극장에서 관람 전 상영 의무화가 되었다.(출처=국가기록원)

그럼에도 사람들은 극장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유일한 문화활동이었고, 고단한 삶을 잊게 하는 것 역시 '영화'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명절의 경우 '셀 틈이 없어 돈을 박스에 담아 갔다', '동전은 자루에 넣어 쌓아 두었다' 등 극장 관계자의 일화도 많다. 몽둥이를 들고, 입장하려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며 막기도 했다. "극장이 무너질까 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영화를 보면서도 이런 구박을 당했구나 싶어 가슴이 아린다.

단관 시대에서
멀티플렉스 극장의 시대로

그러나 1980년 컬러 TV가 등장하고 1982년 프로야구가 생기는 등 다른 여가활동이 가능해졌다. 극장은 더 이상 국민들의 여가활동에서 독보적인 자리를 지킬 수 없었고, 변두리의 3류 극장부터 문을 닫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중심가에는 **'가고파', '뉴코리아', '해바라기', '푸른소극장'** 등 200~300석의 소극장이 유행하기도 했다. 1982년 공연법의 개정과 시설 법규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1982년 1월 5일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 이들 극장을 중심으로 새벽 2~3시까지 영화를 상영하는 심야극장이 인기를 끌었다. 이런 소극장은 당시의 에로영화 붐을 타고 외국의 포르노 극장처럼 야한 영화를 상영하는 전용관으로 명맥을 유지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80년대 대구의 극장가는 개봉관과 재개봉관, 재재개봉관, 소극장이 혼재된 양상을 보였다. 일부 3류 극장의 경우 공간을 축소하면서 자리를 지키기도 했다. 서문시장 인근에 있던 **'시민극장'**의 경우 <어우동> 등 히트작을 상영하면서 일과를 마친 시장 상인들의 시름을 달래주었다. 그렇지만 90년대 들어 중심가 이외 변두리 극장은 일제히 자취를 감췄다.

사진 9. 과거에는 주요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소개하는 벽보판을 거리에서 볼 수 있었다.

대구의 극장이 대변혁을 일으킨 것은 **멀티플렉스**의 등장이었다. 멀티플렉스는 한 극장에 여러 개의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복합상영관이다. 이는 스크린 벌수 제한이 풀리면서 가능해진 일이었다. 정부는 1980년대 영화 한 편당 프린트 벌수를 12개로 제한했고, 1992년까지 14개로, 1993년에는 16개로 늘렸다가 1994년 프린트 벌수 제한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전국 16개 극장만 동시에 상영할 수 있었던 제한이 무제한으로 풀린 것이다. 1994년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이 32벌의 프린트로 서울에서만 7개, 지방에도 25개 극장을 점령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진 10. 멀티플렉스로 바뀐 한일극장(CGV대구한일)(출처=근대역사박물관)

이 제한이 풀리면서 극장의 형태는 변화를 맞이했다. 대형 극장보다 여러 개 관으로 쪼개 라인업을 늘리는 것이 훨씬 유리해진 것이다. 만경관이 1994년 2개 관으로, 아세아극장이 1997년 2개 관으로 나뉘어 '씨네아시아'란 이름으로 개관했다. 이후 제일극장과 아카데미가 각각 3개 관과 2개 관으로 변신했다. 또 1997년 대구 **'중앙시네마'**가 3개 관으로 신축, 개관했다. 이후 2000년 6개 관으로 증축하면서 대구의 멀티플렉스 시대를 앞당겼다. 이로 인해 그동안 대구 자본으로 이뤄져 있던 극장가에 서울 대형 자본이 진출하면서 위기감이 조성되기도 했다. 이후 2000년 한일극장이 7개 관으로, 2001년 아카데미가 6개 관으로, 2002년 만경관이 15개 관으로 변신을 꾀했으나 대구극장과 자유극장, 송죽극장 등은 끝내 폐관하면서 화려했던 단관 시대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사진 11. 70년대 극장에 걸린 대형 간판(출처=국가기록원)

멀티플렉스의 등장으로 아날로그식 극장 풍경 또한 바뀌게 되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극장의 대형 간판이다. 극장 앞에 걸려 있는 대형 영화 간판은 80, 90년대 빼놓을 수 없는 도심 풍경이었다. 멀티플렉스로 변하면서 배우들의 대형 그림으로 영화 개봉을 알리던 간판이 사라졌다. 극장의 간판을 그리던 이들은 한때 극장 내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기도 했다. 배우와 최대한 닮게 그려야 하는 고난도 대형 초상화 작업이었고, 결과물의 완성도에 따라 극장의 순위가 갈릴 정도였으니 극장 소유주는 실력 있는 이들을 찾았다. 극장 간판을 그리다가, 후에 화가로 전업해 성공한 이들도 있었다.
배우 중에 누구를 그릴 것인가는 그들의 권한이기도 했다. 그래서 배우들이 순회 홍보를 위해 지방 극장에 가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그들이었다. 김지미 같은 대배우도 만경관 등에 방문하면 촌지를 주면서 '크게', '잘' 그려주기를 부탁했다고 한다. 간판의 크기가 정해져 있었지만, 촌지를 주는 배우들의 얼굴은 더 크게 그려서 붙이곤 했다. 물감으로 직접 그리던 간판이 1990년대 후반 디지털 대형 인쇄물로 바뀌다가, 멀티플렉스로 전환되면서 현재의 대형 포스터가 자리 잡게 됐다.

단관이 사라지면서 관객들의 큰 즐거움 또한 사라졌으니 바로 대형 스크린이다. <아라비아의 로렌스(Lawrence Of Arabia)>(1962), <벤허(Ben-Hur)>(1959), <닥터 지바고(Doctor Zhivago)>(1965) 등 70mm 시네마스코프 영화들을 대형 스크린으로 즐기던 시대가 사라진 것이다. 2000년 대구MBC가 개관한 **'시네마M'**이 한동안 전국 최대 크기의 스크린을 자랑했지만, 사옥 이전으로 2020년 4월 30일 자로 영업을 종료했다. 물론 현재 아이맥스(IMAX)관이 있지만, 재개봉관까지 모두 대형 스크린을 장착했던 단관 시대가 아닌 옛날 소극장 정도의 스크린만 범람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편해진 것도 물론 많다. 단관 시절에 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다. 입석표도, 암표도 사라졌다. 인터넷으로 예매하기도 하고, 같은 영화가 여러 극장에서 상영되기 때문에 극장에만 가도 금방 표를 살 수 있다.
예전에야 극장 안에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어도 누가 제지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한 회에 한 번만 관람 가능하고, 영화 상영 도중에 출입할 수 없다. <람보(Rambo)>(1983), <인디애나 존스(Raiders Of The Lost Ark)>(1981), <다이 하드(Die Hard)>(1988), <터미네이터(The Terminator)>(1984) 등 표 한 장을 사서 두 번 세 번 보던 일도 지금은 불가능하다. 두 번 보려면 두 장의 표를 사야 한다.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예전의 '호사'를 기억하는 관객들은 각박하게 느껴지는 시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10대, 20대의 젊은 층은 한 극장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현금 없이 할인카드와 마일리지 카드 등으로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멀티플렉스형 극장을 선호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

팬데믹으로 극장이 다시 한번 더 요동치고 있다. 전국 영화관의 스크린 개수는 약 3천여 개다.(2019년 기준) 이미 포화상태로 스크린이 과하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도중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스크린 축소가 진행되는 과정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팬데믹 이전 한국 영화시장은 76%가 극장 매출이고, 21%가 극장 외 부가판권 매출, 3%가 해외 매출이었다. 극장에서 수입이 3/4을 차지한다.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19로 흥역을 치른 극장가의 매출은 2020년 전년대비 73%가 감소했다. [1]*「2020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 영화진흥위원회,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극장 매출이 40%, 극장 외 부가판권 매출이 50%, 해외 매출이 10%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영화관 스크린 수가 20% 이상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제작사가 배급과 극장업까지 겸하는 수직계열화 [2]*2013년 이후 국내 상영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상영관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는 계열사 혹은 자사로서 배급사인 CJ E&M, 롯데엔터테인먼트, 메가박스플러스엠과 수직 계열화되어 있다. (출처= 김완민, 「영화산업에서의 수직계열화가 상영에 미치는 영향」, 2017)* 되어있어 지금과 같이 영화시장이 축소될 경우 한꺼번에 무너질 우려가 있다. 기업의 속성상 수익성이 나지 않을 경우, 영화관 운영이나 국내 영화 제작에 아예 손을 놓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 한국은 자국 영화 점유율이 50%가 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다. 그러나 한국영화 제작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극장가는 자본력 있는 할리우드 영화 전용관이 될 소지가 많다. 전국의 스크린이 할리우드 영화로 장악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모골이 송연해진다.

이러한 우려를 낳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 색다른 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독립영화, 저예산 영화를 영화관에서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대형 블록버스터와 상업영화들이 개봉이 미뤄지거나 제작이 중단되면서 이들 영화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생긴 것이다. 상업영화들의 전쟁터에서 독립영화들이 스크린을 잡는 것은 상당히 신선한 모습이었고, 그동안 독립영화 감독, 작가들이 꿈꾸던 일이었다.

대구에는 **'오오극장'**이라는 독립영화에 특화된 극장이 있다. 2015년 개관한 지역 최초의 독립영화 전용관이다. 전체 55석 규모의 오오극장은 국내에서 제작된 장편 독립영화를 개봉하고, 기획전을 통해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해외 우수 독립영화 등 보다 다양한 독립영화들을 대구 관객에게 소개하고 있다. 현재는 예술영화까지 확대해 대구의 예술영화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는 공간이다. 반면 예술영화 전용관인 **'동성아트홀'**은 2021년 12월로 문을 닫았다. 상영관 건물 계약 해지로 이전 공간을 찾지 못해 휴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12. 오오극장 내부 모습(출처= 오오극장 홈페이지)

사진 13. 대구에 등장한 최초의 극장 '니시키자(錦座, 금좌)'

대구는 한국영화사에서도 주요한 도시다. 1907년 대구 최초의 극장인 **'니시키자(錦座)'**가 등장했다. 이어 1910년 중반 **'칠성좌', '대구좌(大邱座)'**가 세워졌다. 1920년에는 조선인 전용이자 영화 상설관인 **'조선관'** 등이 들어서면서 극장 문화가 꽃피기 시작했다. 영화사마다 뛰어난 대구지역의 감독들과 그 작품들이 활약했다. 1925년 기준 전국에 27곳의 극장이 있었는데, 그중 서울 12곳, 대구 4곳, 평양과 부산이 각각 3곳으로 어느 지역보다 영화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강했던 도시였다. 그랬던 대구가 예술영화 전용관 하나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자성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문화는 다양성이 생명이다. 영화로 치면 블록버스터 오락영화도 있고, 독립영화도 있고, 수준 높은 예술영화도 있어서 이들이 모두 공존하면서 사랑받는 것이 최선이다. 예술영화 전용관이 사라지는 것은 다양성을 해치는 일이며, 선택의 길을 빼앗는 반문화적인 일이다. 70, 80년대 추억의 극장 풍경을 떠올리면서 '암모니아 냄새와 쟈스민 향기, 한여름의 산들바람'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없었다면 어떠했을까. 시대가 바뀌어 21세기가 되었지만, 지금의 극장 관객이 만들어가는 영화의 추억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다.

SECTION 03.
북구를 담다

북구를 담다

청년
문화,
당신의 생각은?

심재신(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매니저)

사진 1. 지난 2021년 11월 개관한 '청문당(靑文堂)'은 대학가의 빈 원룸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재탄생한 복합문화공간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산격3동과 경북대학교 일대의 문화향유 저변을 넓히고 예술적 가치를 창출하는 '대학문화예술키움'의 주요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23길 15-3)

'청년'의 사전적 정의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이다. 1910년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이상적 국가를 건설하자는 말을 내세울 때 주체로 등장한 것이 청년이었다. 하지만 100여 년이 흐른 지금의 청년은 어떻게 쓰이고 인식되고 있는가? 행복한 인생 설계, 만족스러운 문화생활, 자산의 생성과 보전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2020년대 대다수 청년의 현실이다.

약 1세기 전 청년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래 청년문화의 의미는 확장과 변화를 거듭했다. 지금 우리 지역 대구의 청년문화는 어떠하며 또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문화'라는 단어와 함께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이것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가 있었다. 바로 지난 2021년 12월 27일, 경북대학교 북문 건너 **청문당(靑文堂, 청년 문화키움 당)에서 열린 토크콘서트 <청년문화, 당신의 생각은?>** 이다.

행복북구문화재단 김병수 문화정책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크콘서트는, 지역의 청년문화 그리고 청문당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눈 자리였다. 이 글은 함께했던 패널 6명의 의견을 정리해, 필자의 생각과 함께 담아낸 글이다.

청문당(靑文堂)
홈페이지

김태욱(주식회사 이공이공 대표) |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축제, 관광, 도시, 청년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 추진하며, 지역 상생을 도모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집단을 이끌고 있다.

노동욱(대구광역시청년센터 활동지원팀장) |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중간지원조직에서 청년 참여와 소통을 주관하는 활동지원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김윤환(킬킬콘텐츠연구소 대표) | 경북대학교 서문에 위치한 공연·영상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 중. 주로 현장 영상중계,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하고 있다.

서종정(유니에즈 대표) | 경북대학교 북문에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중. 청년이 주체가 되어 나눔을 실천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등의 활동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지민준(뷰티인사이드 대표) | 경북대학교 북문에 위치한 독립서점을 운영하며 창작자들의 굿즈도 판매한다. 커뮤니티, 워크숍 등을 기획·운영하고 있다.

한승엽(태종기획 대표) | 지역의 다양한 공연예술가들과 협업을 모색하고 지역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기획을 진행 중이다.

먼저, 주식회사 이공이공의 김태욱 대표가 우리 지역 가까이, 안동의 청년들이 꾸려가는 축제와 다채로운 활동사례들을 소개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청년들과 여러 행사를 만들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많이 성장했지만, 그럴수록 어떻게 지역 청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더 나은 다음을 준비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된다고 전했다.

비단 이러한 고민과 현실은 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금도 많은 청년이 그들의 터전과 문화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일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청년들의 삶의 배경이자 자원, ‘지역’

노동욱 • 발제해주신 김태욱 대표가 활동하는 안동과 주변 지역에 최근 여행을 다녀왔다. 전통술에 관심이 생겨 찾던 중 젊은 친구들이 운영하는 여러 양조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을 보면서 지역 특색을 살린 콘텐츠들을 어떻게 큐레이팅하고, 또 지역의 범위를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지 등 지역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청년(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했다.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고 그려내는 주축이 청년이다. 그러나 도시의 발전과 미래를 고민하고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기기는 어렵다. 이는 함께 자라고 있는 청소년들, 기성세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노동욱(대구광역시청년센터 활동지원팀장)

김윤환 • 지역은 주로 서울과 비교된다. 수도권에 비해 갖춰진 문화 여건이 턱없이 부족한 까닭인지 서울은 동경의 대상이고, 지역은 그렇지 못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팬데믹으로 인해 영상매체를 기반을 둔 콘텐츠 생성과 소비가 급성장했다. 이는 과거 물리적 장소를 중심으로 한 문화 여건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지역을 결핍과 한계로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서울만 못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고 우리에게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무기(개인적으로 영상을 중심으로 한 콘텐츠 문화라 생각한다.)가 있다.

김윤환
(킬킬콘텐츠연구소 대표)

한승엽 • 대게 지방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지역 성장’을 말한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결 구도를 오히려 강조하는 발상 같다. 그래서 주로 변화 방향도 서울의 것들을 빨리 즐길 수 있도록 갖추려고 한다. 나는 오히려 지역만의 특색을 발굴하자고 말하고 싶다. 가령 타지의 친구들이 대구에 일부러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뭉티기’를 먹기 위해서다. 자기네들 동네에는 없는 독특한 식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지역을 찾는 것이다. 원조 마케팅도 같은 결이다. 그 지역에만 있는 것 혹은 여기 와서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점은 충분한 매력요소가 되고, 그때부터 지역은 불평등의 단어가 아닌 특별함을 뜻하는 단어가 된다.

서종정 • 전체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영역을 지역이라 한다. 우리는 주로 사는 지역이 어디냐고 물으면 대구나 도시 단위를 떠올린다. 하지만 서울에 사는 친구들은 OO구나, OO동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 말들 속에서 내가 느낀 건 청년들의 지역 인식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구역과 어느 정도는 비슷하구나였다. 그렇다면 서울에 사는 청년들은 도시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인식하는 듯하다. 우리도 지역을 좀 더 다채롭고 섬세한 단위로 바라보면 좋겠다. 우리의 지역도 충분히 ‘경북대학교’, ‘산격동’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지민준 • 최근에 지역성, 로컬리티(Locality), 로컬-크리에이터(Local-creato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문화를 다루는 것은 오랫동안 문화에 대해 연구를 해온 전문가라든지, 우리와 같은 청년세대 혹은 지역 주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먼저 지역문화를 다뤄온 전문가 집단이 여러 지역에서 콘텐츠를 만들게 된다. 물론 앞선 경험에 의해 불필요한 단계의 삭제나 목표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겠다. 허나 해당 지역의 깊숙한 이해나 침투 없이 비슷비슷한 콘셉트의 콘텐츠들이 반복적으로 생겨나더라. 또한, 해당 지역이 터가 아니니 치고 빠지는 식의 프로젝트는 연속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자고로 지역문화란 내부의 역사성이나 특수성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주류와 대중문화를 따라 하거나 단편적인 것은 결코 지역성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경험적 능력 이전에 그 지역에서 부대끼며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관계나 생각 등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 안타까운 것은 지역의 청년들이 설 자리가 다소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년은 그곳의 세대와 세대를 잇는 가장 활발한 집단이니 움직여야 한다.

지민준(뷰티인사이드 대표)

김병수 • 2000년대를 넘어오면서 지역문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전반이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쏠리면서, 오랜 시간 가꿔온 각 지역의 문화들이 몰살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에 각 지역에서는 자신들의 특색을 되살리는 정책들을 펼쳐나갔고 변화를 이끄는 주요 주체로 청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청년들은 각자 지역 발전과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움직였고, 놀랄만한 성과를 이루기도 또 그 과정에서 다른 문제를 마주하기도 했다. 청년활동가로서 그러한 경험을 나눠달라.

지역 문제해결과 청년활동가 자생의 상관관계

지민준 • 경대 북문에서 지난 몇 년간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다루는 문화 활동을 기획, 운영해왔다. 주로 우리가 사는 도시의 여러 문제에서 출발하여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거나, 도시의 자원과 사람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역의 지원은 거의 못 받았다.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한 것이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는데, 지역의 문화 지원정책은 주로 순수예술 활동 중심으로 이뤄지고, 그런 기준에 의해 청년들이 제시하는 활동들이 재단되고 평가된다.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가지려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쪽으로 쏠려있는 지원의 범위가 확장되고, 규정되지 않은 범주나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우라도 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면 좋겠다.

한승엽 • 순수예술 위주로 지원되는 것 같다고 하셨지만, 실정은 이마저도 부족하다고 본다. 공연이나 시각예술이든 청년 예술인들에게는 자신의 예술을 선보일 공간이 충분하지 못하다. 그들에겐 자기 어필과 역량 발휘의 기회들이 필요하다. 오래 이어진 부족함 속, 정체된 생태계에서 앞선 선배들의 층이 단단히 카르텔(Cartel)화 되어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결국 예술을 하는 혹은 하려는 청년들은 자리와 기회를 얻지 못해 그만두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해 예술 분야, 특히 공연의 경우는 극도로 어려워졌고, 안타까운 현장도 많이 목도했다. 분명 청년문화는 가능성의 분야로, 활동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순수예술로 파생되는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토양을 잘 가꿔야 함께 할 수 있는 예술인도 자라나고 늘어난다. 확실한 건 청년예술 활동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병수 • 청년단체들, 혹은 청년문화에서 자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없었는가.

서종정(유니에즈 대표)

서종정 • 청년단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청년들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동료를 찾아 관계를 맺고, 또 지역 조사부터 해결책을 강구하고 환원하는 활동까지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다. 유니에즈는 지역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지역과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했었다. 학업이나 다른 이유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 경우, 대구는 물론 주변 동네도 잘 모른다. 학식이나 주위에 파는 음식, 혹은 요즘 먹방을 통해 본 음식만 알지, 전통음식이나 가정에서 해 먹는 음식은 먹거나 본적도 없더라. 쓰레기 배출 방법과 같은 생활 속에서 필요한 팁도 알려주는 이가 없다. 이것은 책이나 영상으로 교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실제 경험을 통하거나, 또래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다. 가령 음식문화를 소개한다고 하자. 청년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진행하면 그저 간단한 음식을 만들어보는 것에 그쳐 단편적인 부분만 맛볼 뿐이다. 범위와 규모 면에서 한계가 있더라. 아마, 이런 경험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것이다. 결국 작은 활동만 거듭해서는 문제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한계를 느꼈기에 지원사업에 의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노동욱 • 문화 활동이 자생력을 가지려면 삶의 기본적인 것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최근 코로나 팬데믹은 청년들의 일자리, 놀자리, 살자리 등 많은 것을 무너뜨렸다. 그런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생력은 물론 활동할 힘도, 기회도 없다. 삶이 팍팍해지니 여유도 사라지고 활동을 계속 못 할 뿐더러 하려던 일들도 축소되거나 단절된다. 문화 저변을 넓히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우려면 뿌리내릴 바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앙정부나 지역의 청년정책 예산은 문화보다 일자리 예산이 많다. 아마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김태욱 • 청년이든 청년이 아니든, 또한 어느 지역이든 '자생력'을 갖추고자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문화기획, 문화 활동이라는 게 투입대비 산출이 정확한 영역이 아니다. 100원을 들여 500원의 결과를 얻는 경우처럼 명확하지 않아서 수익을 바탕으로 직원을 고용하기도 어렵고 지속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역의 얘기를 섞자면 로컬-크리에이팅을 통해 소위 '힙 해졌다'는 곳을 보면 대부분 공간을 두고 카페를 통해 자생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이를 지자체 행정이 더욱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성공 사례들로 소개되고 따라가려는 경우도 거의 카페가 해답인 양 들어있다. 그래서 자생과 지속을 위한 공간사업에만 초점을 두고, 문화 활동이나 그 의미는 거드는 요소로 전락했다. 처음에는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시작한 활동가들이 이런 양상 속에서 사업자가 되고, 카르텔을 만든다. 이는 모든 지역이 안고 있을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김태욱
(주식회사 이공이공 대표)

김병수 •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과 지원 그리고 지속에 대한 다양한 고민을 안고 이곳 청문당은 개관하였다. 청문당이 있는 산격 3동은 대학과 주택, 상권 등 다층의 사람들이 서로 맞대며 살아가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청문당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청년문화와 청문당을 바라보는 시선들

김윤환 • 청년, 그리고 문화. 나에게는 무척 모호한 단어다.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 중심이 달라진다. 청년이 세대의 구별이라면 문화는 인간 삶의 양식, 총체적 의미로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 더욱이 경북대학교 일대에 청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온 대학생도 있고, 여러 세대의 지역주민들도 살고, 유동인구도 많다. '청문당은 누가 있는 문화공간인가?' 그리고 '어떤 문화를 담는 공간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시작 단계에선 어디에 중점을 둘 것인지 세부적으로 정확한 포커싱이 필요하다. 시각예술 중심의 전시공간이라고 하면 향유 목적의 사람들이 방문할 것이고, 또는 사람들이 모여 무언가 시도하고 만들어내는 데에 활용될 수도 있다. 이것저것을 다하면 이도 저도 안될 수 있으니 명확한 콘셉트를 잘 잡아야 할 것 같다.

서종정 • 우리는 스스로 '청년문화'라고 말하지 않는다. 행정적 목적과 편의로 만든 용어가 아닐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청년문화라는 말이 나오기 전 청년에 관련한 모든 이슈는 일자리였는데, 다른 부분도 인식하게 된 것은 아닌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므로 청문당도 생겼을 것이다. 이곳은 대학가라는 이점도 있지만, 골목 안쪽이니만큼 많이 알려야 한다. 상권이든 아니든 눈에 띄지 않으면 배제되는, 변화가 잦은 대학가다. 이름처럼 청년에 중점을 둔다면, 먼저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가이니만큼 대학생들의 현실적인 니즈 파악도 중요할 것이다. 가령 최근 내가 듣고 본 것 중엔 미술대학 학생들의 졸업 전시회 후 작품들을 보관, 전시할 곳이 없어 폐기된다고 하더라. 그렇다면 이곳에서, 그 작품들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김태욱 • 청문당의 실제적인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 중요하다. 위치상으로 봤을 때 대학생과 주민이 주요 이용자일 듯한데, 이들의 바람과 생각은 이들이 가장 잘 안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하다. 혹여나 행정조직의 말처럼 사람들을 위한 향유 기회를 부여한다는, 수동적 시선으로 운영한다면 과연 흥미로울까? 그저 또다시 그전과 다를 바 없는 재미없는 공간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승엽 • 동감한다. 거점 공간을 만들어 비전을 세워 활동할 때,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소위 '관 냄새'를 빼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모인다. 즉, 이 공간을 활용하고 즐길 대상들로부터 목적이 나와야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게 된다. 축제든 교육이든, 우선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맞이하자. 진행하고 종료되었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안에서 다음 방향에 대한 키를 찾아야만 한다.

한승엽(태종기획 대표)

노동욱 • 경북대학교 서문에 '다온나그래'라는 공간이 있다. 대구청년센터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괜히 경쟁업체가 생긴듯한 기분에 다양한 감정이 교차한다. (웃음) 다온나그래는 대구 청년 누구나 들려 쉬고 즐기는 활력공간을 표방하며 공간운영단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다소 혼란이 따르기도 했다. 하지만 유연함으로 금세 회복하고 놀랍도록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더라. 앞서 다른 패널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공간의 주체가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일이 계속해서 쌓인다면 청문당은 자연스럽게 멋진 공간이 될 것이다.

지민준 • 보통 이런 공간들은, 행사나 사건이 없으면 쥐 죽은 듯 조용하더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닿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시설 관리 문제나 여타 다른 이유로 폐쇄적으로 운영한다면 공간은 잊히기 쉽다.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무엇이든 할 수 있게끔 모임이나 동아리 활동공간으로라도 찾아올 기회를 최대한 마련해달라. 사람의 온기가 있는 곳에서는 무엇이든지 탄생할 것이다.

청년문화,
'그냥' 일상을 관찰하고 공감하는 데서
시작하자.

당시 청문당에서는 MZ세대의 일상을 보여주는 개관전 <디어, 유스(Dear, Youth)>가 한창이었다. 어떠한 특징으로 사회는 그전 세대와 우리 청년을 구분 짓고 있을까. 전시를 보면서 청년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그리고 청년문화에 대해 어떻게 글을 쓸지 계속 생각했다. 함께 활동하는 동료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쭉 들으며 결코 그들의 생각이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필자는 행복북구문화재단의 대학문화예술키움 사업에 청년활동가로 참여했다. 내가 속한 마을기업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에서는 청년들과 함께 경북대학교 일대의 자원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활동 <청춘네비게이터-가생이>와 지역사회 내 관계 형성을 통해 청년들의 진로 고민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프로그램 <경로를 재탐색합니다>를 기획,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난 사업을 이끌어가는 활동가이자 청년이었다. 두 사업 모두 청년들이 지역을 관찰하고 공감하는 것을 바탕에 둔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일상과 생각들이 교류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다. 무엇보다 운영하면서 힘썼던 부분은 참여자들이 이 활동을 과제로 느끼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청년에게는 계속해서 수행해야 하는 시대의 과제들이 주어진다. 그렇기에 '청년'이 과제로 인식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화'도 마찬가지다. 청년의 정체성은 무엇이고 청년문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답을 끌어내는 질문으로 시작된다면 도리어 청년들은 거부감을 느끼고 접근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화는 삶의 양식이라고 했다. 청년들이 어떤 일상을 보내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고 즐기는지, 어떤 '양식'을 공유하는지 관찰하고 공감하는 것으로부터 청년문화와 청문당은 시작되어야 한다. '청년이 쓰지 않는 단어, 청년과 청년문화', '청문당은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등의 토크콘서트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내포하는 전제는 청년문화를 만들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지 말자는 것이다.

손에 잡히지도 않고 공감도 얻지 못하는 청년문화를 애써 만드는 것보다 청년들의 일상을 온전히 관찰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먼저다. 경북대학교 일대, 대구 북구의 청년문화 그리고 청문당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

토크콘서트
<청년문화, 당신의 생각은?> 현장 영상

북구 시장로드

한상갑(『디지털경제신문』 기자,
전 『매일신문』 문화부장)

칠성시장
팔달시장
매천시장
그리고 산격시장

사진 1. 1970년대 칠성시장 풍경(출처=국가기록원)

대구 속 북구의 시장 이야기

한때 대구의 8대 구군(區郡) 중 낙후지로 분류되며 대구의 오지로 불리던 북구가 대구의 물류·유통·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1988년 관음동에 한강 이남 최초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들어서더니, 1992년에는 산격동에 '유통산업의 새 패러다임을 열었다'는 대구종합유통단지가 들어섰다.

칠성동, 팔달동, 원대동, 산격동 등지에는 해방 이후부터 전통시장들이 곳곳에 들어서며 민초들의 생활 경제, 골목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다. 유통시설, 전통시장, 물류단지는 지역 경제가 발전하면서 시장의 필요로 생겨나는 게 보통이지만 북구의 시장, 물류, 유통사를 들여다보면 이런 시장의 필요 외 지역의 역사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구시 북구가 유통 1번지로 자리매김한 과정은 많은 역사·경제·사회적 요인들이 있겠지만 필자는 그 키워드를 '금호강', '팔달교', '고속도로 접근성'으로 요약한다. 이 세 요소를 잘 조합, 정리해 보면 북구가 어떻게 대구 유통의 중심으로 부상했는지 알 수 있다.

'유통 북구' 도약에는 금호강의 후광이 있었다. 고대사에서 모든 문명의 발전과 전파는 강(江)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미 선사시대 대구엔 많은 부족들이 문명의 싹을 틔우고 있었는데, 이 정치 세력들은 금호강을 따라 문물을 교환하고 있었다. 좁게는 대구·경북의 금호강 수계(水系)부터, 넓게는 금호강-낙동강-한강을 연계한 일본, 북방까지 교역 루트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사시대 금호강을 따라 전개되었던 문물교류의 흔적은 대구·경북의 고분에서 숱하게 확인된다. 대표적인 것이 불로동고분군에서 발견된 '상어 뼈'다. 동해, 남해 세력의 문물이 낙동강-금호강을 타고 올라와 불로동고분군 세력에게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청림문화재연구소 박승규 소장은 "금호강 연암산 밑자락에서는 상어 뼈는 물론 정어리 같은 생선 뼈가 심심찮게 출토되고 있다"며 "이는 선사시대 금호강이 남해 해상세력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역로로 기능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사시대 금호강을 통한 교역은 삼국시대에서 고려, 조선까지 이어져 왔음이 확인된다. 특히 조선 후기 사문진은 부산과 서울을 잇는 중요 물류기지였을 뿐 아니라, 일본 제품의 수입 루트로도 기능했다. 당시 금호강이 특산품, 세곡(稅穀) 조운(漕運)을 담당하는 주요 수운(水運) 통로로 활약했음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현대에 들어와 '유통 거점 북구'를 가능하게 했던 직접적 사건은 1986년 팔달대교의 건설이었다. 대교의 건설은 교통에 있어 대구 경제의 남북을 잇는 획기적 사건이었다. 이는 물류, 유통 차원에서 칠곡, 구미, 안동, 영주, 군위 등 농산물이 대구로 유입되고 대구의 공산품이 경북의 중·북부로 퍼져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1994년에 완공된 중앙고속도로는 대구시 북구의 전통시장, 유통경제 차원에서 더없는 호재였다. 근거리, 소규모, 지역 상권에 머물던 북구 경제가 경북의 중·북부로 확대되면서 광역 유통망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1970년에 건설된 경부고속도로도 대구 물류의 동서축 연결과 김천, 구미, 칠곡, 경산 경주에 이르는 농·공산품 유통망 구축에 든든한 배경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 칠성시장

해방 이후 대구 민초들에게
경제적 터전이 된 장터 열어

북쪽 하늘 북두(北斗)의 기운이 넓은 장터를 열어 민초들에겐 상리(商利)를 베풀고 나라에는 기업을 열어 국리(國利)를 펼쳤던 현장, 바로 '칠성시장'이다.

도시철도 대구역사 광장에는 일곱 개 바위가 놓여있는데, 이 바위들이 바로 칠성시장의 유래가 된 '칠성바위'다. 이 바위들은 청동기시대 무덤인 고인돌로 오래전부터 북두칠성 모양으로 배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하늘이 지역민들을 먹여 살릴 길지(吉地)로 장터를 예비해 두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한국 경제에 큰 획을 그은 삼성, 쌍용, 대성 세 기업이 이 일대에서 태동한 것도 이런 맥락과 닿아있다.

칠성시장이 북구에 장터를 연 것은 1946년. 해방 직후 정부가 전통시장들을 재정비하면서 시장공영화 정책에 의해 '북문시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됐다. 개장 초기에는 동촌, 하양 등지에서 사과와 농산물이 많이 집결했고, 한때는 '동천시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지금은 '칠성시장'이라는 단일 이름으로 불리지만, 시장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장연합체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칠성시장, 경명시장, 대성시장, 칠성꽃시장, 대구청과시장, 삼성시장, 북문시장, 능금시장, 가구시장이 각개로 참여하고 있다. 취급 품목은 만물상급으로 다양하다. 가장 많은 품목은 식자재로 농산물, 청과물과 수산물이 주종을 이룬다. 거기에 식기 및 주방용품, 생활용품도 많이 거래되고 근처에 가구거리, 화훼거리, 문구거리 등이 자리하고 있다.

어쨌든 칠성시장은 해방 직후 혼란한 정국에 장터를 활짝 열어 민초들에게 생활, 유통, 경제의 터전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사진 2. 칠성시장 전경(출처=필자 제공)

칠성시장의 맛집들

칠성시장의 점포 수는 노점을 포함해 2,000개쯤 된다. 이 중 식당은 약 300여 곳. 칠성시장 식당 음식의 특징은 '다양한 메뉴'이다. 횟집, 돼지고기, 족발, 곰탕, 국밥까지 전 메뉴를 망라하고 있다.

칠성시장 맛집의 원조는 43년 동안 애주가들의 사랑을 받아온 닭곱창의 명가 '진주식당'이다. 매콤한 양념에 버무린 닭곱창은 막걸리 주당들을 불러들이며 꾸준히 그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방송 출연 여부가 맛집 기준은 아니지만, 지난해 진주식당은 KBS 2TV의 '편스토랑' 추억의 닭곱창 편에 소개되어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닭곱창이 막걸리 파들을 자극한다면, 소주 파들의 발걸음을 이끄는 곳은 석쇠 불고기의 명가 '단골식당'이다. NH농협 남쪽에 있는 석쇠 불고기 골목은 몇 해 전 박세리가 방문해 화제가 된 곳이다. 이 골목이 대구를 넘어 전국적인 명소로 데뷔한 것은 2015년 SBS '삼대천왕'에 나오면서부터다. 당시 백종원 씨는 나주 연탄불고기, 김천 고추장 불고기와 함께 단골식당을 3대 석쇠 불고기 맛집으로 선정했다. 달달한 양념 맛이 밴 돼지고기와 연탄불 그리고 기름이 엉겨 붙은 절묘한 불맛이 이 집만의 비밀이다.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많은 손님들이 이 골목을 거쳐 갔다. 1980년대엔 운동권 학생들의 은밀한 모의 장소였고, 삼성 야구가 잘나갈 땐 프로야구 팬들의 뒤풀이 장소였다. 카바레 춤꾼들의 작업 장소였고, 공사판 날품팔이들의 허기를 달래 주는 생계현장이었다. 비대면으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 연대가 점차 희미해지는 요즘, 과연 누가 이들 뒤를 이어 시장으로 향할까.

사진 3. 칠성시장 '단골식당' 연탄불 석쇠 불고기(출처=필자 제공)

사진 4.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대구의 야간관광 명소가 된 '별별상상 칠성야시장'(출처=대구광역시)

● 팔달신시장

1986년 팔달대교 완공 후
대구 농산물 집산지로

서두에서 언급했듯 고대 금호강은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4~5세기 불로동고분군에서 출토된 해산물과 남해 해상세력의 부장물은 고대에 이미 부산 낙동강과 금호강을 잇는 수상 교역로가 있었다는 증거다. 금호강 특히 지금의 팔달교 일대는 대구의 남북을 연결하던 교통의 요충지이자 수상교역의 중심지였다. 현재의 '팔달(八達)'이라는 지명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선사시대부터 이어져 온 역사와 전통이 반영된 결과이다.

'팔달시장'은 1969년도에 형성되었으니 올해로 개시(開市) 53년째를 맞이했다. 1986년 팔달대교 건설은 팔달시장 역사에 있어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대교가 들어서기 전 대구의 농수산물은 칠성시장에서 주로 거래되었는데, 이 다리가 들어서면서 팔달시장이 지역 농산물 유통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었던 30년 전만 해도 팔달시장은 통로마다 발 디딜 틈이 없었고, 장꾼들의 왕래로 시장이 온종일 북새통을 이루었다. 상인들은 "그때가 진짜 시장 냄새, 사람 냄새가 났던 시절이었다."고 회상한다.

전성기를 구가하던 팔달시장은 1988년 매천동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한 후 상권이 급속도로 위축됐다. 도매기능이 매천동으로 넘어 간 데다 골목마다 대형마트, 연쇄점들이 등장해 상권을 위협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팔달시장은 여전히 전체 700여 점포 중 300여 점포가 과일·채소 점포일 정도로 농산물 전문 시장으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팔달시장의 맛집들

쫄깃한 곱창, 얼큰한 육수, 당면, 이 정도면 50~60대 주당들의 미식(美食)코드를 맞추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시장 북편에 자리 잡은 '의성곱창'은 구 시장 시절부터 영업해오던 53년 차 노포(老鋪)다. 팔달신시장이 노원 1가 쪽으로 신축 이전하며 시장의 본류에서 멀어졌지만, 옛 맛을 기억하는 술꾼들이 잊지 않고 찾는 덕에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전골·곱창구이 1인분에 1만 원이 안 된다. 여기에 소주 한 병을 추가해도 둘이 2만 원이면 요리, 식사, 술이 해결된다.

북구 주민들의 심야 간식 명소 '팔달포차'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운영되는 포장마차다. 보통의 포장마차와 다른 점은 술을 팔지 않는다는 것. 이 때문에 시내에서 밤새 달린 술꾼들이 마지막으로 들르는 곳이 됐다. 이곳 메뉴는 총 다섯 가지다. 김밥, 콩국, 우동, 토스트, 라면이 전부다. 가격이 2~3천 원대로 저렴해 테이블 회전율을 높여야 하므로 술을 과감히 포기했다.

사진 5. 팔달신시장 입구(출처=필자 제공)

사진 6. 팔달신시장 '의성곱창'(출처=필자 제공)

● 매천시장

한강 이남 최초, 최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도약

사진 7. 매천시장 전경(출처=필자 제공)

한강 이남에 최초, 최대 농산물 도매시장인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이 수많은 경쟁지를 제치고 현재 위치에 들어선 배경에는 '팔달'이라는 지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사통팔달'의 줄임말인 '팔달(八達)'이 의미하듯, 현재의 북구는 대구의 북쪽 관문과 남북 연결로로서 의미가 있다. 이 일대는 칠곡, 달성은 물론 대구의 중·서·남구의 도심과도 맞닿아 있다. 한반도 남부내륙의 한복판인 대구에 이런 큰 매천시장이 자리한 것은 지리, 교통, 유통의 이점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매천시장이 들어선 것은 1988년 10월인데, 이 시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구의 여러 사건과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1986년 팔달대교의 개통이다. 팔달대교는 대구·경북의 물류 연결이라는 큰 그림 하에서 건설되었다. 이 다리 건설 이후 경북의 농산물과 대구의 공산품을 본격적으로 교역하는 시대가 열렸다.

1994년에 완공된 중앙고속도로는 대구시 북구의 전통시장, 유통경제 차원에서 더없는 호재였다. 근거리, 소규모, 지역 상권에 머물던 북구 경제가 경북의 중·북부로 확대되면서 광역 유통망을 형성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칠곡지구 택지개발사업도 북구 지역의 도시세와 경제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동안 칠곡 택지개발은 1~4지구와 학정지구, 도남지구, 금호지구를 거쳐 오며 북구에 인구를 대거 유입시켜 '몸집'을 키워왔다.

이 결과, 1980년대 후반 3만 명 대에 머무르던 북구 칠곡지구 인구는 현재 23만 명을 넘어서며 자족(自足) 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인구의 급격한 유입은 매천시장의 튼튼한 배후이자, 든든한 내수(內需)시장이 되어주었다.

매천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일단 엄청난 규모에 압도된다. 16만m^2가 넘는 크기로(약 5만 평) 축구장 25개를 펼쳐 놓은 크기다. 주요시설로는 청과부류 경매장, 수산동, 관련 상가, 냉동창고, 서비스동, 관리동이 있다. 청과부류에는 '대구청과', '농협대구공판장', '효성청과', '대양청과', '대구경북원예농협공판장' 등이 있고 수산부류에는 '대구수산', '대구종합수산', '신화수산' 등 3개의 법인이 있다.

매천시장은 2019년 총 거래액 9,363억 원을 기록하며 매출 1조 원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농산물 가격 하락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청과부류 56만 4,689t(7,870억 원), 수산부류 1만 2,689t(909억 원)의 거래를 기록했다. 대구시민의 과일, 채소 수요량의 90%를 공급하고 있으며 1일 유동인구가 1만 명을 넘을 정도로 북구 경제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사계절 싱싱한
수산물 공급

매천시장에서 팔려나간 농산물들이 대구시민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책임지고 있지만, 보통 매천시장은 수산시장으로 더 유명하다. 사시사철 지역민들에게 싱싱한 해산물, 횟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산동 1층 회센터는 웬만한 동해쪽 도시의 시장, 회센터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 횟집에서 만난 한 시민은 "바다가 없는 내륙도시 대구가 바닷가 도시를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매천시장 수산시장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금도 겨울철 별미인 대게, 대방어, 생굴, 대하, 과메기부터 전복, 조개류 등 온갖 해산물들이 맛객들의 미각을 유혹하고 있다.

사진 8. 매천시장 회센터(출처=필자 제공)

● 산격종합시장

북구 아파트, 단독주택지
주민 생필품 보급처

'산격시장'이 북구 동북로에 자리를 잡은 건 1981년. 처음엔 대구교육박물관, 산격초등학교 주변 대단위 주택가 근처에 있었다. 산격동 일대 주택단지의 생필품, 식품, 잡화 보급처로 기능하던 시장은 1999년 산격대우, 산격에덴, 산격보성 등 아파트가 대거 들어오면서 그 규모를 키워나갔다. 여기에 반경 1km 내 산격초, 산격중, 대구북중, 성화여고, 경상고부터 영진전문대, 경북대 등 대학까지 거느리며 매머드급 상권으로 성장했다.

산격시장은 학생 유동인구, 대단위 아파트, 주택가를 배경으로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이곳 역시 1996년 유통시장 개방 여파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여기에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이 홈쇼핑, 전자상거래, 온라인, 비대면 거래로 다변화되면서 오프라인 거래의 대표격인 전통시장은 점차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산격시장은 2010년 이후 유동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시설 노후화, 시장 상인들의 고령화로 상권 퇴조현상이 뚜렷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2018년 11월 대구에서 처음으로 청년몰을 개장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북구청은 중소벤처기업부 청년몰 사업에 공모해 국비 6억여 원을 확보하며 결실을 이뤄냈다. 청년몰의 다른 이름은 '신(辛)다림길'. 매운맛이 강한 대구의 음식문화와 '사람이 다니는 길'이라는 의미가 합쳐졌다. 현재 청년몰에는 식당 9곳, 디저트 가게 4곳, 홈패션 3곳 등 16개 점포가 입주해 있다. 청년 상인들은 자체 블로그, SNS를 운영하며 젊은 층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산격시장 발전을 위한 두 번째 전략은 대구시, 경북도에서 준비했다.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지사는 2018년부터 '대구경북 한 뿌리 사업'에 힘을 쏟았고 '도농상생 직매장'이라는 구체적인 결실을 보게 되었다. 도농상생 직매장은 산격시장 내 노후건물 960m^2를 리모델링 하여 조성했으며, 상설판매장 66개 점포, 커뮤니티 센터, 홍보관을 갖추고 있다. 상생장터에서는 과일, 채소, 농산가공품 등 800여 개 품목이 대구의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으며, (앞으로) 경북 23개 시군 291곳 농가와 납품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사진 9, 10. (왼)산격종합시장 (오)산격종합시장 청년몰(출처=필자 제공)

산격시장
청년몰의 한계

‘젊은 층을 시장으로 끌어들여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시작된 산격시장 청년몰은 활발한 주문, 배달이 이루어지면서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젊은 층들이 전통시장을 노크하고, 청년몰에 접근이 활발해졌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했다. 필자가 최근 방문했을 때도 택배기사들이 배달을 위해 바삐 움직이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소비자들이 직접 시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SNS나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몰 바로 앞 보리밥, 칼국수 노점에는 노인, 주부 손님들로 빈자리 없이 꽉꽉 들어찬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전제되어 있기는 하다.) 어떻게 하면 젊은 층들이 직접 시장으로 나와 구매를 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산격시장이 우리에게 던진 화두였다.

전통시장 몰락 위기 딛고
‘유통 거점 북구’
명성 회복해야

1996년 유통시장의 개방은 전통시장에게는 치명적인 ‘사건’이었다. 까르푸, 월마트 같은 글로벌 대형 할인마트부터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국내 대형 할인마트들이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까지 진출하며 골목상권을 순식간에 잠식해 버렸다. 여기에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업태가 등장하고, 더욱이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한 인터넷 쇼핑율과 언택트 마케팅이 등장하면서 전통시장을 점점 압박하고 있다.
유통시장 개방 후 26년이 지난 지금 전통시장의 몰락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경련이 실시한 2030 유통 현안조사에서 MZ세대들의 55%가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입한다고 응답했고,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비율은 1.2%에 그쳤다. 온라인 위주 소비행태 변화, 젊은 층들의 전통시장 외면, 대형할인마트들의 골목상권 침해와 같은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며 전통시장의 급격한 위축과 쇠퇴는 북구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북구지역의 물류, 유통, 시장들이 타지역에 비해 상권과 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구에 전통시장 넘버 2, 칠성시장은 아직 서문시장과 대구 전통시장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상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서문시장이 섬유, 의류, 양말 등 패션 분야에 특화되었다면, 칠성시장은 농수산물 부터 각종 공산품까지 아우르며 76년째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또, 다양한 먹거리와 맛집들은 연중 맛객들을 시장으로 이끌며 ‘미식 스트리트’의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유명한 팔달시장과 매천시장은 팔달교를 사이에 두고 대구 농수산물 유통의 양강(兩强)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매천시장의 거래액은 해마다 증가를 거듭해 올해 내로 1조 시대를 열 것으로 보인다. 팔달시장의 700여 점포도 새벽부터 불을 밝히며 대구·경북의 농산물 유통 집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산격동 아파트, 단독주택 주민들의 생필품, 잡화, 식료품 공급처 기능을 담당해온 산격종합시장도 예전만은 못 하지만 아직 전통시장으로서 위상을 지키고 있다.
2018년 시작된 청년몰도 다른 시장에서 실패를 거듭해온 사례와는 달리 평균 이상의 성과를 올리며 타지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성공사례가 되었다.
이제 2028년이면 대구·경북에 다시 통합신공항 시대가 열리게 된다. 이때 북구는 신공항과 고속도로, 도시철도, KTX로 연결되며 국제공항 시대를 함께 열어가게 될 것이다. 유통의 거점으로 성장을 거듭해온 북구가 통합신공항 시대를 맞아 국제유통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매천시장(대구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대구북구 행복북구사진공모전 당선작, 최두열 <청과 경매>

대구북구 행복북구사진공모전 당선작, 정덕채 <구암서원>

문화예술을 담는 만만한 그릇

함지

함지

문화예술담론지 함지

Vol.4

발행인
배광식

편집인
이태현

발행일
2021년 12월 31일

편집위원
김영동, 김미정, 김중기,
박미영, 오레지나, 이재진

편집기획
김병수, 오창희, 이요환, 김재수,
이주현, 서효봉, 박미현

편집디자인·제작
상상146

발행처
재단법인 행복북구문화재단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47
T. 053-320-5120
www.hbcf.or.kr

문화예술담론지
함지는
1년에 2번 발행합니다.
(비매품)

『함지』에 실린 글과 사진, 그림 등은
(재)행복북구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함지』에 실린 글은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임을 밝혀드립니다.

『함지』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재)행복북구문화재단으로
신청바랍니다.
T. 053-320-5128